

* 본 사업은 여가부 2018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에 의한 것임.



PROGRAM

대회등록과 인사 (09:00-9:30)	
1부 개회식 및 기초발제(9:30-10:30) 사회자: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9:30-10:00	개회 선언 2018 여성평화건강기조직위원회 공동대표 한영수(한국YWCA연합회 회장), 최순영(경기여성네트워크 대표)
	축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격려사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Herstory (영상으로 만나는 여성평화건강기)
10:00-10:30	<p>기초발제 1.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여성들이 만드는 평화 한반도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안 -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p> <p>기초발제 2. '새로운 평화와 페미니스트 미래로의 안내' - Mairead Maguire (북아일랜드, 노벨평화상 수상자)</p>
2부 패널발제(10:30-12:20) 사회자: 한정숙 (서울대학교 교수)	
10:30-12:20	<p>발제 1. 최성희(강정국제팀장): 4·3, 강정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p> <p>발제 2. Mary-Wynne Ashford(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anada):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p> <p>발제 3.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대표): 대인지뢰의 현황과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p> <p>발제 4. Rebecca Johnson(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K) : Climbing down from the Nuclear Monster - a Challenging Necessity for Peace and Security</p> <p>발제 5. 김정수(평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p> <p>발제 6. Kozue Akibayashi(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회장, Japan) : Feminist must support Korean Peace Process for a Decolonized and Demilitarized Korean Peninsula</p> <p>발제 7. Kin Chi Lau(Professor of Global University for Sustainability, Hongkong/China) : The Korean Peace Treaty as a major step to reverse the arms race in North East Asia</p>

중 식 (12:30-14:00)

3부 라운드테이블(14:00-16:30)

14:00-16:30

1주제. 여성과 군사주의

사회: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Kalama Niheu(Ohana Koa-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Hawaii/USA)
: Korea Alliance for Justice
- Cindy Wiesner(Grassroots Global Justice, USA)
: Unresolved Korea War, Militarism in Asia and Pacific and Women's Resistance Roundtable
- Lisa Natividad(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Guam/USA)
: Message from Guahan-the Trip of Spear of US Military Might
- Medea Benjamin(CODEPINK, USA): Women Say, "Disarm, Disarm"

2주제. 여성과 인권, 평화만들기

사회: 박현선(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대표): #MeToo 운동의 함의
- Alice Nderitu(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Kenya)
-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대표): 한국의 에코 페미니즘 운동과 한반도 평화
- Mavic Cabrera-Balleza(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Philippines): Amplifying Women's Voices towards Sustainable Peace
- Katherine Ronderos(LIMPAL COLOMBIA, Colombia)
: Feminist Peacebuilding, What is Possible, What Can Be Done?
- Yifat Susskind(MADRE Executive Director, USA/Israel)
: To the Two Koreas from Israel and Palestine, Lessons Learned

3주제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사회: 함희경(한국YWCA연합회 국제협력위원장)

- 장미란(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 여성평화운동의 근본을 다시 생각한다 - '평화 감수성' 증진과 일상의 재구성
- Wang Xuan(Research Centre of Biological Warfare in WW II, China)
: Japanese Bacteria Battle Investigation and Lawsuit
- 이은선(세종대 명예교수)
: 동북아 평화프로세스와 4·27판문점 선언 - 여성통합학문연구의 시각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taa Noogsoi(Blue Banner NGO, Mongolia) : The Role of Mongolian Nuclear Free Status in Peace Building in North East Asia - Olga Maltseva(Dialogue of Culture/FEFU, Russia) : Women's Soft Power in Preventive Diplomacy for the Preservation of Sustainable Peace - Patti Talbot(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nada) : Faith and Fierce Patience, Seeking Peace in Korea -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USA) : Women and Peace in North East Asia
4부 라운드테이블 논의 내용 공유(16:30-17:00) 사회자: 한정숙 (서울대학교 교수)	
16:30-17:00	라운드테이블 논의 내용 공유
5부 폐회식(17:00-17:10) 사회자: 최인숙(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표)/한미미(세계YWCA 부회장)	
17:00-17:10	2018 국제여성평화경기 선언문 낭독 평화의 올림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CONTENTS

개회식	
축사 1: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11
축사 2: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13
격려사: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15
기조발제	
기조발제 1.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여성들이 만드는 평화 한반도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안 -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19
기조발제 2. '새로운 평화와 페미니스트 미래로의 안내' - Mairead Maguire (북아일랜드, 노벨평화상 수상자)	25
패널발제	
발제 1. 최성희(강정국제팀장): 4·3, 강정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	31
발제 2. Mary-Wynne Ashford(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anada):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	46
발제 3.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대표): 대인지뢰의 현황과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	50
발제 4. Rebecca Johnson(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K) : Climbing down from the Nuclear Monster - a Challenging Necessity for Peace and Security	57
발제 5. 김정수(평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58
발제 6. Kozue Akibayashi(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회장, Japan) : Feminist must support Korean Peace Process for a Decolonized and Demilitarized Korean Peninsula	65
발제 7. Kin Chi Lau(Professor of Global University for Sustainability, Hongkong/China) : The Korean Peace Treaty as a major step to reverse the arms race in North East Asia	66

라운드테이블

1주제. 여성과 군사주의

- Kalama Niheu(Ohana Koa-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Hawaii/USA) 71
: Korea Alliance for Justice
- Cindy Wiesner(Grassroots Global Justice, USA): Unresolved Korea War, 75
Militaryism in Asia and Pacific and Women's Resistance Roundtable
- Lisa Natividad(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Guam/USA) 76
: Message from Guahan-the Trip of Spear of US Military Might
- Medea Benjamin(CODEPINK, USA): Women Say, "Disarm, Disarm" 78

2주제. 여성과 인권, 평화만들기

-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대표): #MeToo 운동의 함의 83
- Alice Nderitu(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Kenya) 94
-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대표): 한국의 에코 페미니즘 운동과 한반도 평화 95
- Mavic Cabrera-Balleza(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103
Philippines): Amplifying Women's Voices towards Sustainable Peace
- Katherine Ronderos(LIMPAL COLOMBIA, Colombia) 107
: Feminist Peacebuilding, What is Possible, What Can Be Done?
- Yifat Susskind(MADRE Executive Director, USA/Israel) 108
: To the Two Koreas from Israel and Palestine, Lessons Learned

3주제.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 장미란(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111
: 여성평화운동의 근본을 다시 생각한다 - '평화 감수성' 증진과 일상의 재구성
- Wang Xuan(Research Centre of Biological Warfare in WW II, China) 116
: Japanese Bacteria Battle Investigation and Lawsuit
- 이은선(세종대 명예교수) 117
: 동북아 평화프로세스와 4·27판문점 선언 - 여성통합학문연구의 시각에서
- Altaa Noogsoi(Blue Banner NGO, Mongolia): The Role of Mongolian 127
Nuclear Free Status in Peace Building in North East Asia
- Olga Maltseva(Dialogue of Culture/FEFU, Russia): Women's Soft Power 129
in Preventive Diplomacy for the Preservation of Sustainable Peace
- Patti Talbot(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nada) 130
: Faith and Fierce Patience, Seeking Peace in Korea
-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USA): Women and Peace in North East Asia 131

폐회식

-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 선언문 135

부록: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 국내외 참가자 약력

-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 국내외 참가자 약력 139
-

개 회 식

축사 1/2

격려사

축사 1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세계 여성들, 평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여성평화건설기조직위원회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 빛내주신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은 종전선언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남북 화합과 통일, 그리고 평화의 기로점에 서 있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의 봄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냥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단의 시간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평화구축 과정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여성들의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 오늘 심포지엄은 매우 중요하며 여성들의 행동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는 지름길이며, 이와 동시에 남

개회식

북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입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통일·외교 등 주요 국가정책 영역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오늘 심포지엄이 여성들이 담당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실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2018년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축사 2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평화통일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오신 단체들과 함께 <2018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을 주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슴 벅찬 행사를 함께 마련하신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안김정애 대표님, 한국YWCA연합회의 한영수 회장님, 평화통일연대의 박종화 이사장님, 평화어머니회의 고은광순 대표님, 문화세상이프토피아의 최인숙 대표님, WOMENCROSSDMZ의 창설자이며 국제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신 크리스틴 안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해외단체 실무를 맡아 함께 애써주신 Nobel Womens Initiative의 리즈 번스타인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조발제를 해주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신 메어리드 맥과이어, 그리고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김성은 이사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한반도의 분단 70주년, 제주 4·3 발발 70주년, 정년 협정 65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남북과 일본의 여성들이 하나가 되어 동경, 서울, 평양을 오가며 한반도 전쟁과 분단을 겪은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토론하고 입장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00년 6·15선언 이후에는 활발한 남북여성교류가 있었지만, 지난 10여 년간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해 평화 통일을 위한 염원은 이뤄지지 않고, 남북여성들의 일회성 만남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올 초부터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훈풍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종전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전 세계에 표방했습니다.

이러한 ‘4·27 판문점 선언’은 70년간 축적된 새로운 한반도, 평화통일의 한반도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힘, 평화춧불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여성과 군사주의, 군사주의적 환경에서의 여성인권,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꿈꾸고 있는 수많은 계획과 이상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평화의 바퀴는 절대 혼자 굴러갈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행사를 지원해주신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018 국제여성평화 심포지엄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세계 유수의 여성 평화 운동가와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내 여성성단체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의 관점으로 평화를 논의하는 ‘세계여성, 평화를 말하다. 2018년 국제여성평화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월 27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선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 여성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대립이 아닌 대화와 신뢰 구축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평화의 장에서 전쟁반대와 군축, 완전한 비핵화를 외쳐온 우리 여성들은 평화와 안보의 핵심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의 중심 주체로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남북여성통일대회, 남북여성대표자회의를 비롯한 남북여성교류와 수해지역 지원, 산모돕기와 같은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민간교류를 선도해왔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토론회와, 평화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등 국제적 연대를 이어왔습니다. 2018년 여성평화걷기 행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입니다.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행사가 성사되기까지 애쓰신 국제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울려 퍼진 여성들의 목소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 지속적인 남북 여성 민간 교류 활성화와 남과 북, 나아가 세계여성이 함께하는 평화 행사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합니다.

기 조 발 제

기조발제 1. 김성은

기조발제 2. Mairead Maguire

기조발제 1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여성들이 만드는 평화 - 한반도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안 -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2018년 4월 27일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적인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5년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한 날이다. 8천만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던,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새 시대가 시작됨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한 것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과 북한이 불꽃 튀는 전쟁 이야기로 불안하게 하였던 것을 상기하면, 이런 과감한 결정은 오랜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착시켜야만 한다는 급박한 남북의 국민적 의지를 대변한 것이라 믿는다.

오늘 한반도의 70년 분단의 고통이 일제패망 후 미국과 소련이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적 세계전략으로 전범국인 일본 대신 한반도를 분단한 일방적 조치 때문이었으며, 현재의 위기도 미국과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대립이 지정학적 국제상황인 것을 상기하면, 한반도의 평화염원은 단순한 우리 민족의 염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평화에 대한 관심사일 것이다.

한반도 냉전청산은 북한의 영구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양국의 철저한 신뢰위에 이어질 어려운 달성목표이다. 인간의 생명을 단번에 많이 없앨 수 있는 무력을 소유한 주변강대국들 사이에서 평화체제의 지속은 참으로 어려운 달성목표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이처럼 관심이 높아진 것은 참으로 귀한 기회이므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분야의 치밀한 고도의 외교 전략도 필요하지만 전 국민들의 지혜와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의 바램은, 4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5월 초에 북미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것도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 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3인의 미국인들 손을 잡고 분단선을 넘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귀국하는 것이었다.

복잡한 사정상 북미회담은 6월 12일로 미루어졌고, 5월 9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아직 도전(challenges)이 남아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차이점을 풀기 위해 협력을 원한다”는 발표를 하며, 억류되었던 세 사람을 데리고 10일 귀국했다. 세 사람의 석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북한에 대한 확실한 체제보장 약속이 긍정적인 조치를 보였다는 평이다.

이 모든 협상과 타협진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국내문제가 잘 해결되어 선거에 이기고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 남북의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유례가 없는 강력한 핵무기나 경제제재로 인한 빈곤과 질병은 물론 자연피해, 인구 감소 등은 모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평화를 깨는 일이다.

미국이 북에 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과 범위는 물론 미국이 북에게 해 줄 보상과 그 수행과정, 속도조절, 전세계적 핵군축 등을 가장 잘 꼼꼼히 깐깐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주체는 역시 시민들, 그 중에도 생명과 상생, 공존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여성들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함을 우선 추구하려는 정치권력, 신무기를 개발, 유통, 활용해야하는 군산복합체, 전쟁을 속전속결하려는 군부와 일하는 사람들, 경제적 이윤만 챙기려는 거대기업들에게만 맡겨둘 상황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평화운동은 70년대부터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었다. 앞으로 남북의 여성들이 연대하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여성들과 힘을 모아 한반도에 반드시 평화공동체를 만들도록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여기 모인 여성들이 2018년 5월 24일 세계여성평화군축의 날과 4월 2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세계 평화를 위한 전세계 비핵화’를 촉구하는 선언을 제안 하는 바이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평화협정

전쟁을 종결짓고 평화를 보장해주며 통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화협정이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안전을 보장하고, 제재를 완화하고 미국, 국제사회의 북한 투자를 허용하는 신경제구상을 발표하였다.

정전체제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가 여러 번 있었다. 남북이 1972년 7·4남북기본합의서,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선언, 2007년 남북이 채택한 10·4선언

등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는 노력들이었다.

4월 27일 남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이 요구하는 CVID는 같은 것일까? 여전히 비핵화의 내용과 과정은 숙제로 남아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보잘 것 없던 1992년 2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를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고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며 비핵화 검증을 위해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한미의 군사훈련, 선제공격(preemptive-attack), 참수작전(oplan 5015), 유엔의 경제제재, 안보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핵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5대 ‘조선반도 비핵화’ 조건을 내세웠었다. 남조선에 배치된 미국의 모든 핵무기 공개, 그에 대한 검증, 한반도 주변에 핵타격 수단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약속, 그 어떤 경우에도 핵의 위협, 사용이 없다는 확약 등이 들어있다.

2017년 11월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핵확산조약(NPT)이 공인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의 핵보유국(nuclear club)은 5개국이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비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들로 알려졌다.

핵보유국들은 그들의 핵무기기술 전파, 판매, 분실 등으로 핵무기 소유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핵의 비확산과 평화적 이용, 핵군축이 핵확산금지조약의 중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도 요구되는 핵감축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핵보유국들 간에는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로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핵전략이론이 있다. 5개 공식핵보유국이나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또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주장, 선제공격과 경제제재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올해 5월 8일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제재를 발동 하겠다’ 선언하였다. 이란은 2002년부터 핵개발 문제가 불거져 6번의 유엔 제재를 받았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4월 스위스 로잔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유럽연합이 제시한 것을 이란이 받아들였던 협약이다. 이란의 비핵화단계별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으로 경제제재를 풀어주기 위해 체결한 핵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이 협정만으로는 이란의 핵무

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해오던 중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보여준 테헤란의 비밀저장고에서 모사드가 발견한 1999-2003년 진행했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프로젝트 아마드’ 핵개발 문서들을 은폐한 것을 두고 이란 협정이 핵시설, 핵물질, 핵능력의 완전 폐기가 아니라며 협정에서 결국 탈퇴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에 2025년 10월 18일 모든 제재가 해제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탄도미사일도 규제해야 하며, 이란전역에 대한 IAEA의 즉각적인 사찰을 허용하라고 했다.

이 발표 후 5월 10일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28대를 동원해 공대지 미사일 60발, 지대지 10발 시리아 내 이란 시설 70곳을 공격했다고 러시아정부가 발표하였다.

또 IAEA 사찰 최고책임자가 돌연 사퇴했다는 AP통신의 보도이다. 미국은 미국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과거 중동지역과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군을 파견했었으나 중동의 평화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이 곧 오는 6월 12일 북미협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이란 핵협정 서명 3년 만에, 바뀐 정권에 의해, 협정탈퇴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남북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북미협상에 대해, 미국과 북한, 남한에게도 심각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을 ‘최대의 압박’으로 위협하며 비핵화를 선제조건으로 ‘최고수준의 경제제재’까지 계속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화해분위기가 고조되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핵위험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대결과 불신으로 치달았다. 통일대박을 부르짖으면서 흡수통일을 꿈꾸던 대통령 박근혜는 남북경협이 상징이던 개성공단을 2016년 2월 7일 하루아침에 닫았다. 개성공단을 닫기 불과 44일 전이었던 2015년 12월 23일 남쪽 여성단체임원 64명이 개성에 가서 40여명의 북쪽 여성대표들과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교류협력 방안을 이야기하고, 남북의 예술품을 나누고, 노래하고 춤추며, 맛있는 개성음식을 먹기도 하면서 곧 통일이 올 듯 했었다. 여성들이 개성에 갔던 피곤이 가시기도 전인 2월 7일 개성공단 폐쇄발표가 났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어이없었던 일이다.

여성이 만드는 사회정의와 평화문화(culture of peace) 확산

역사적으로 강대국이나 강자의 폭력과 논리는 정당화되고 여성, 약소국, 약자의 고통과 저항은 묻혀버릴 때가 많았다.

오랜 가부장적질서와 군사문화의 피해자로 살아 온 여성들의 평화운동이 화해와 치유를 가능케 할 것이다. 참된 사회정의를 이루는 것이 평화의 길이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다. 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정상화하여, 생명 전체를 포용하고 조화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평화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경제활동은 물론, 상호 신뢰구축과 치유를 위한 쿤(Thomas Kuhn)이 말하는 혁명적인 인식전환(paradigm shift)과정, 모든 사람들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태도, 이해와 특히 갈등 조정의 능력 함양은 필연일 것이다.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와 유엔 평화문화(UN Global Movement for the Culture of Peace)운동은 물론 우리 민족의 동질성회복,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유엔이 후세대에게 평화문화를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한 유엔평화문화선언과 실천 프로그램(Declaration and Program of the Action on Culture of Peace)을 채택하고 평화문화비폭력 갈등해소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평화문화란 개개인을 넘어 지역, 국가, 전 세계가 폭력을 거부하고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한다. 유엔 평화문화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다.

1. 평화문화의 질적 가치, 태도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방식에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갈등해결, 대화, 합의를 포함시킨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2. 빈곤을 근절하여 지속가능한 식량 확보를 하고, 부채문제 해결, 사회정의의 실현, 여성의 능력을 키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줄인다.

3. 전쟁과 폭력이 지배할 때마다 인권보장은 없었다.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평화문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4. 경제, 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형태를 제거한다.

5.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은 민주주의 원칙이 잘 적용되고, 사회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의 관리이다.

6. 참여적인 의사소통 지지와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미디어를 통한 또 다른 폭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7. 국제평화와 안전증진. 핵무기와 지뢰금지 조약 등 전 세계의 많은 갈등상황을 인도주의적 방법으로 해결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앞으로도 계속 평창올림픽 참여와 같은 스포츠 교류는 물론, 이산가족만남, 여성, 학

생 등 시민의 왕래교류, 문화, 예술교류 협력과 같은 적극적인 평화과정을 통해 그 결과로 비핵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판문점 선언은 단순히 남북의 평화만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만든 냉전체제의 마지막 남은 잔재를 청산하는, 동북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의 시작은 2016년 겨울 내내 시민들이 들었던 질서정연하고 따뜻한 촛불로 시작된 철저한 비폭력 평화시민혁명이었던 것이다. 진정 유엔평화문화의 실천 본보기였다고 하겠다.

다시 한 번 오늘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전 세계 비핵화선언’을 촉구하는 바이다.

기조발제 2

새로운 평화와 페미니스트 미래로의 안내

Mairead Maguire. 북아일랜드, 노벨평화상 수상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초대해주신 행사 주최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년 전인 2015년에 제가 WCD에 참여하러 방문했던 때에 대한 매우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평양과 개성을 방문했었고 서울에서는 평화행사에 참여했었지요. 북한 주최자들, 그리고 평양과 개성에서 함께 행진한 7,000명의 한국인 자매들이 저희에게 깊은 인정과 마음을 보여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통일에 열정을 가지고, 평화조약과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평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여성의 지도력을 요구했습니다. 3년 후 우리는 지금 평화조약의 직전에 서 있습니다.

평화협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하고, 전후 한반도에서의 이익을 반영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모인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이 심포지엄에 참여하면서 기념하는 또 한 가지는 오늘이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6일 토요일에 여성평화걷기에 참여함으로써 평화과정을 지지하는 국제 여성들의 연대를 보여주고, 한국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세계를 향해 “평화의 비전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이다. 평화는 가능하다!”고 외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고, 이런 완벽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열정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평화는 한국 국민들의 비전과 권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그들의 집과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를 말하는 비전입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우리는 각자가 책임을 지고 용감하게 남자, 여자, 아이 모두와 함께 평화를 건설해야 하고, 두려움과 폭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와 폭력의 악순환에 빠져 들었을 때, 용기 있는 지도력은 그 악순환을 깨고 평화를 위해 위협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지도력을 보일 때 온 세상이 기뻐하고, 공포와 절망의 어두운 구름 뒤에서 햇빛이 나오며,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점 커지는 비관론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이러한 용기는 우리 모두를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평화의 공간으로 이끌어 줍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우리 모두가 용감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평화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 은 희망을 늘 새롭게 하고, 영혼에 물을 줍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전 세계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고 비무장 지대를 건너는 장면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가능성이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감동적이고 웅장한 순간이었고, 한반도에 있는 한국의 형제자매간의 평화와 화해의 통일적인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남북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 한반도 종전을 외치고 그것은 남과 북의 국민들이 해낸 것이라고 선언하는 날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평화정착, 비핵화, 군축, 평화구축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의 지도력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치적 지도자로서 그들은 모범을 보여주었고, 한국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차이를 제쳐 두었으니 그들의 평화 노력을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 지정학적 세력들은 여전히 있어, 과거에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유로 한국 국민을 갈라놓는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우리가 처한 1976년도의 상황을 기억하면, 그때 우리는 폭력 속에 갇혀 있었고, 인종적, 정치적 내전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어린 조카들이 폭력의 결과로 사망했을 때, 수천명의 여성들은 정부와 비정부 세력으로 인한 폭력 근절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고,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고, 대화, 협상, 타협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해야 하며 모든 북아일랜드 국민들을 생각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풀뿌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며, 서로의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성적 신념의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다문화 세계에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람이 사는 모든 곳, 즉 우리 앞에 놓인 도전입니다. 용서도 역시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고 평화의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서로를 아프게 했지만, 연민으로 인해 국민과 국가 모두의 치유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간의 정신적, 신적 행복을 위해 하는 일이고, 우정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폭력 문화에서 평화 문화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평화 과학의 이론과 실천 모두를 공부해야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비폭력, 갈등 해결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진정으로 이루려면, 군국주의, 무기, 핵무기, 전쟁을 없애고 비무장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믿기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의 평화 운동에서,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특히 교육, 보건, 환경과 관련된 인간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정부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비판적이고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성별을 불문해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인 회담 과정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북아일랜드의 폭력분쟁이 종식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축복을 받았지만 분쟁 후 평화정착은 늘 진행중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인들이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건설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국제 평화 유지군들이 저와 함께 평화를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온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해드렸으면 합니다. 평화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풍부한 헌신, 근면, 용기로 인해 올 것입니다. 평화는 반드시 옵니다! 한반도에서의 역사적인 이 순간, 전쟁종식의 성공은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무와 힘이 보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빕니다.

[매어리드 맥과이어] Mairead Maguire (노벨평화상 수상자)
www.peacepeople.com www.nobelwomensinitiative.com

패널 발제

- 발제 1 최성희
- 발제 2 Mary-Wynne Ashford
- 발제 3 고은광순
- 발제 4 Rebecca Johnson
- 발제 5 김정수
- 발제 6 Kozue Akibayashi
- 발제 7 Kin Chi Lau

발제 1)

4·3, 강정,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

최성희. 강정 국제팀장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남단 강정마을에서 8-9년째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최성희입니다. 민중의 오랜 염원이 붓물이 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한 층 가까워진 이 중요한 시기에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여기 계신 여성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하나인 모든 여성들께 감사와 우정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행사 조직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 (1) 제주 4·3 70년, 왜 여성주의적 관점이 필요한가
- (2) 강정은 4·3이다. 그러나 또한 강정은 4·3이 아니다. 왜 그런가?
- (3)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왜 제주 비핵화와 비무장화가 필요한가

위 질문들은 모두 어려운 질문들이고 제가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학문적 소양과 경험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그 배경과 근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 70년, 왜 여성주의적 관점이 필요한가

‘고 오창기님은 4·3 당시 군경에게 총상을 입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 3기’로 자원입대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습니다. 아내와 부모, 장모와 처제를 모두 잃었던 고 김태생님은 애국의 혈서를 쓰고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4·3에서 ‘빨갱이’로 몰렸던 청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지켰습니다.’ (2018. 4. 3. 문재인 대통령 추도사 중1)

대통령이 직접 4·3 희생자 위령제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읽은 것은 2006년 노무

1) 전문 가기 http://www.assembly.ac/com_02/490

2부 패널발제

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그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가 아쉬운 점 중의 하나는 ‘여성의 부재’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여성이 언급된 곳은 없습니다. 언급되었다면 성명 아닌 아내와 모, 장모와 처제로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성명을 가진 남성과 관련 되어서만 그 존재가 역할로나마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추도사 어디에도 ‘항쟁2’)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추도사는 ‘이념’에 의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 그리고 ‘화해와 용서’로 이겨낸 ‘이념이 만든 비극’을 강조할 뿐입니다. 정부의 2003년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3)’는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인용된 추도사 단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빨갱이’로 몰렸던 청년들 즉 ‘이념’에 의해 희생된 젊은 남성들이 ‘조국’을 통해 이념의 틀을 비로소 넘어섰다 라는 논지입니다. 그 조국, 국가는 다름 아닌 폭력의 주체이자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념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성명으로 대표되는 주요한 가족 구성원(남성)-이념-조국-군대라는 가부장제 구조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는 부차적 또는 그림자로서만 언급될 뿐입니다.

이러한 아쉬움들을 제기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결론으로 강조한 ‘평화와 인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미래’를 진정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적 시각, 그리고 희생자 가해자의 이분법 아닌 주체라는 개념 틀이 필요함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 平和’라는 단어를 푼다면 ‘평등’과 ‘조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핵심은 바로 이 ‘평등’과 ‘조화’에 있습니다. 여성주의는 곧 평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1947년 3·1 사건4) 직전에 결성된 제주도 부녀동맹 출범식 위원장 김이환의 개회사5)는 돌아볼 만 합니다. 그는 “조선의 해방은 8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무산

2)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시작된 4·3 무장대 항쟁의 선언문에는 이 항쟁이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일어났다고 명시되어 있다.

3) http://www.jeu43peace.or.kr/report_2017.pdf

4) 1947년 3월 1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던 군중이 아이를 친 한 욕지 기마 경찰에게 저항하자 군중을 행한 경찰의 무차별 발포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민간인 6명이 죽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코리아는 1949년 6월 29일 주한미군이 철수(군사고문단 5백명 잔류)할 때까지 미군정의 통치아래 있었고 이 발포 사건으로 제주도민의 미군정과 매국 정권에 대한 저항은 3월 10일 민관 총파업을 가져올 정도로 격렬했다.

5) 이정주, 제주 4·3 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제주 여성 4·3 의 기억: 제주 4·3을 여성주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포럼(2017, 12. 21, 제주여민회 주최, 주관으로 제주시에서 열림)

대중과 1천 5백만 여성의 해방 없이는 도저히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조직체를 가짐으로써 이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성의 해방 없이 6) 나라의 해방 없으며 투쟁 없이 해방 없다는 인식, 해방이 곧 평화는 아니나 해방이란 글자 대신 평화라는 글자를 넣어도 위 논지는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현재까지 증언되고 기록된 제주 4·3이 얼마만큼 여성들의 기억과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가란 의문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 특히 여성연구자들은 회의적인 듯합니다. 이 분들은 10년-30년 전부터 직접 발로 뛰며 수많은 증언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 소설가 한림화 선생은 1980년대 초반 150개 제주 마을을 직접 돌아다니며 4·3 사례를 모았는데도 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모으는 과정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⁷⁾

“인터뷰 방식에서 매우 심란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이름을 직접 묻지 않기, 녹음하지 않기, 자신을 사진 찍지 않기, 노트 등 필기하지 않기(특히 누가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등을 약속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전제조건을 달았기에 이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미리 작성한 질문지 노트를 보면서 질문하는 것은 허용하였다. 그럼으로 인터뷰에 응한 이들의 사진이나 녹음, 메모, 기록 등 현장기록물이(극히 몇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여성들은 사건의 당사자이며 목격자로서 ‘말할 수 없는 ‘비체(object)가 된다.(김은실⁸⁾)

‘4·3의 크기와 역사적 무게에서 ‘수치로 측정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경험들’이 존재하며 여성의 경우 더욱 심하다. 제주 4·3사건위원회가 설치한 희생자 접수처에 신고된 피해 정도를 보면 남성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1,043명이며(78.7%) 여성은 2,985명(21.3%)이다. 이 숫자는 당시 남성들이 겪는 고난과 피해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여성들은 직접적인 죽임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6) 또 다른 예로 당시 학교세우기 열풍을 이끌었던 민주주의민족전선 선전부의 건국 5원칙 중 3 번은 주목할 만하다. (전 4·3 위원회 김종민 제공)

1.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2. 지주와 농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3.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
4.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세우자!
5.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7) ‘살아남았기에 더 고통스러웠던 4·3 제주여성’ 제주소리 한형진 기자 (2018. 4. 28)

8)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학 센터 소장), 제주4·3 여성 연구의 필요성. 제주 여성 4·3 의 기억: 제주 4·3을 여성주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포럼(2017, 12. 21, 제주여성회주최, 주관으로 제주시에서 열림)

2부 패널발제

성폭력을 겪었고, 남자 형제나 집안을 위해 토벌대와 강제 결혼을 해야 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정의 생계자로서 모진 고통을 감내했다. 이런 경험들은 수치화될 수 없다.’ (이정주)⁹⁾

한림화 작가는 또한 “제주여성의 4·3사건 진행 시 당한 인권 유린과 인권 말살을 비롯해 복구과정에서 한 역할과 사회 구축, 복원 등에 대한 문헌·기록은 찾기가 힘들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제주여성사, 특히 4·3 관련 제주여성사의 상당 부분은 빈 공백으로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빈 공백에 눈을 돌리고 당시 ‘국가권력과 공권력’이 ‘제주여성사회에 가했던 인권말살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일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¹⁰⁾ 4·3 당시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에 의해 다시 한 번 인권이 말살되고 단지 부차적, 또는 무고한, 희생된 양민으로만 치부되는 여성들을 다시 역사의 주체로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인권회복과 평화로 나아가는 미래를 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홀어머 쇠테우리들 widow cattle herders:

한경면 청수리는 중산간 마을이다. 1950년대, 이 마을에 4·3 사건과 6·25 한국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마흔세 명이나 되던 때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제주도 내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봄이 되면 한라산 기슭인 ‘모진홀고지’에 소를 돌려 보냈다. 마소를 돌보는 일을 테우리라 한다. 테우리는 남성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못 되었다. 가을이 되어 고지에 올렸던 소를 찾으러 홀어머들끼리 나섰다가 우연히 찍게 된 사진이다.’

사진 및 기록 출처: 제주여성사 자료총서 1

사진 자료집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48쪽(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발간)

강정은 4·3 이다. 그러나 또한 강정은 4·3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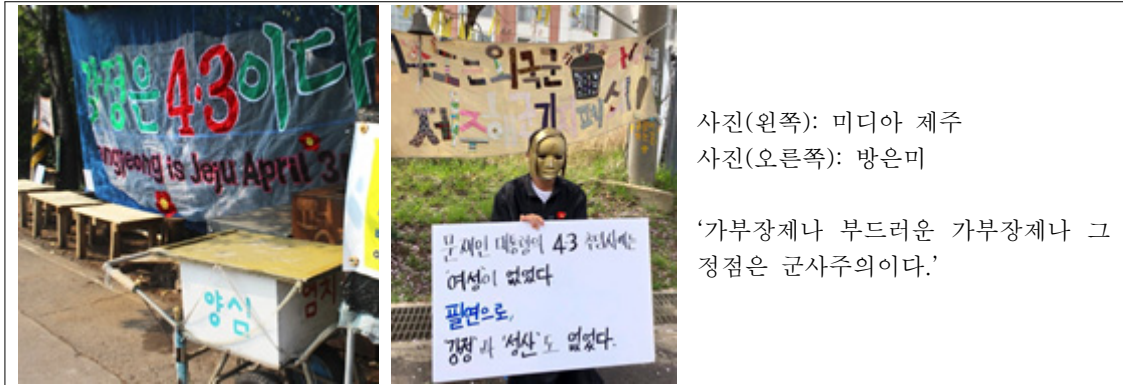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도사 전문 그 어느 곳에서도 강정주민들이 10년 이상 국가의 폭력에 맞서 평화를 갈구하며 싸웠던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대해서도, 정부의 비민주적 입지 선정 절차와 환경파괴에 반대하며 제주 제2공항(공군기지) 계획에 반대하는 성산 주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평화와 인권이

9) 이정주, 제주 4·3 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ibid

10) ‘살아남았기에 더 고통스러웠던 4·3 제주여성’ ibid.

파괴되고 있는데 어떻게 과거에 대한 해결이 ‘완전’할 수 있으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강정에서 펼쳐졌습니다. 4·3 70년을 맞아 강정에서 내건 가장 큰 현수막에는 강정은 4·3이다. Gangjeong is Jeju April 3rd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지킴이들이 직접 손바느질을 했습니다.(사진)



사진(왼쪽): 미디어 제주
사진(오른쪽): 방은미

‘가부장제나 부드러운 가부장제나 그 정점은 군사주의이다.’

왜 강정은 4·3인가? 저는 4·3 70년을 맞아 특히 이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강정은 제주 4·3항쟁의 원인이 된 역사적 배경과 동일한 맥락 위에 놓여있습니다.

제주 4·3은 미군정과 육지 중앙 정부가 지배와 탄압이란 방식으로 민중의 통일된 독립 국가라는 열망을 무산시키려 하자 이에 항거해 일어난 민중 항쟁이자 이 항쟁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수난¹¹⁾이기도 했습니다. 강정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미국의 지배 아래 있는 한국 정부가 ‘국가시책’이란 이름 아래 분단된 나라 남쪽 ‘평화의 섬’에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인 군사기지를 세우려 하자 이에 대항해 강정 주민들을 포함, 민중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어오는 투쟁입니다. 비록 2016년 2월 기지가 공식적으로 완공되었지만 사람들은 매일 정오 인간 띠 잇기 때 ‘제주해군기지 폐쇄’를 외침은 물론, 끊임없이 기지 감시 및 저항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기지인 제주해군기지는 기존 해군기지들과 다르게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라는 특별한 구실 아래 건설되었습니다. 그 말은 제주해군기지가 기존 해군기지들 처럼 대북 목적을 갖고 있는 것 외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언제든지 활용될

11) 전 4·3 위원회 김종민은 4·3의 시기를 크게 탄압(1945. 8. 15일 해방 이후 1947. 3·1 까지), 항쟁 (1947. 3·1부터 1948. 4·3 까지), 그리고 이후의 대수난 (1954. 9. 21까지)의 시기로 분류하며 4·3이 항쟁이나 학살 어느 하나의 단어로 정의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2부 패널발제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주해군기지에는 제주해군기지전대, 잠수함전대 외에 제7기동전대가 있습니다. 이 기동전대에는 한국에서 가장 최첨단 군함들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개가 모두 속해 있습니다. 이 군함들은 언제든지 ‘군사 훈련’ 이란 이름 아래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제주 근해 또는 그 외의 곳에서 전쟁 훈련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기지가 완공되기 전 한국 정부와 해군은 이 기지에 미군함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2년 10월 당시 장하나 국회의원은 기지 설계상 수역이 15만 톤 크루즈¹²⁾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미항공모함의 입항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음을 폭로하였습니다. 김광진 의원 또한 기지 설계상 수심이 미 핵잠수함을 위한 것임을 폭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미상호방위조약¹³⁾의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지 완공 1년여가 지난 2017년 3월 25일 미국의 스테데 이지스 구축함(USS Stethé)이 제주해군기지에 첫 번째 미군함 이자 외국함으로 그 모습을 강정 바다에 드러냈습니다¹⁴⁾. 제주 4·3 7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반역의 역사가 제주바다에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69년 전 제주 해안을 봉쇄하며 학살을 지휘했던 미 군함이 처음으로, 그것도 4·3추모 기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2)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이란 이름 아래 15만 톤 크루즈 2 대의 동시 접안을 가정하며 민, 군 복합 시설로 건설되었다.

13)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딜레스 미 국무장관이 조인하였고 1년 후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그 자체 한국 전쟁 종결 후 서명된 정전협정(1953. 7. 27)을 위배하는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전협정 13 c항과 13 c항은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비록 군사조약 체결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군사조약은 외부로부터 군인이나 신형 각종 첨단무기를 들여올 것이기 때문에 위배로 보아야 한다. 또한 4조60항(“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를 협의할 것을”)의 정신에 위배된다.[...]’ (강정구, 2003, 7, 14, 민중의 소리 기고, "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통일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대전제"

14) 미 해군 장교 데이비드 서치타(David J. Suchyta)는 2013년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라는 보고서에서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할 첫 미군함은 알레이버크 급 구축함이 첫 기항에 적합하며 "첫 방문은 3일 이내로 짧아야 한다. [...] 미국 수병들은 최상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상에 나와 유니폼을 입고 손을 흔들며 입항해야 한다. 기항하는 함정은 다른 인근 기항지를 들렀다가 오는 형태여야 한다. 기항 전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렀다면 '승조원 휴식'을 강조할 수 있다. 한국 해군 도움으로 승조원들은 특히 이웃한 강정마을 등에서 가능한 한 많은 '컴렐(COMMREL-community relations)'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참조: 서치타 인용 미 해군 장교 "제주해군기지, 중국에 큰 위협" (연합뉴스 2017. 3. 28) 그리고 [정옥식 칼럼] 제주해군기지, 전략적 자산 아닌 '부담' (프레시안, 2015, 8, 17)



1948년 5월 10일 단독 선거가 무산된 직후 제주해안을 봉쇄한 미군 구축함 크레이그(1948. 5. 12)와 2017년 3월 25일 제주해군기지에 외국 군함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스테디 미 이지스 구축함 (출처: 4·3 평화공원 및 연합뉴스)

두번째로 저항의 주체들에 대한 탄압에서 학살이란 양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서 유사합니다. 국민의 주권과 생존권, 평화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은 작년 2017년 5월 18일(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 결성)로 10해째를 맞았고 올해 2018년 4월 29일로 투쟁 4천일을 맞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700여명(누적 총계)이 연행되고 587건의 기소가 있었으며 60여명이 구속 또는 벌금 납부 거부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총 20명의 해외 활동가가 제주해군기지반대 연대활동으로 입국 거부를 겪었습니다. 2명의 해외활동가¹⁵⁾가 각각 강제추방과 출국명령을 당하였습니다. 4억원의 벌금으로도 모자라 2016년 4월에 해군과 박근혜 정부는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을 5개 단체와 116개인에게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 15일 구상권이 철회되었지만 국가의 기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유치 결정부터 기소, 벌금, 구속 남발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지 못하였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산산조각 붕괴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가슴아파하는 일입니다.

공동체 붕괴는 국가가 ‘국가 시책’을 무리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폭로된¹⁶⁾ 2008년 9월 유관 기관들의 한 비밀회의에 나온 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는 추진 단계,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해군이 주도해서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 ‘분열은 좋은 상황. 공세적 법집행 필요함’ (제주 환경부

15) 프랑스 시민 벤자민 모네와 영국 시민이자 노벨 평화상 후보인 앤지 켈터가 구럼비 밭과 중단을 위한 직접 행동으로 각각 2012년 3월 14일과 15일 강제추방과 출국 명령을 받았다.

16) 2009년 5월 5일 MBC에서 방영된 PD 수첩 812회 프로그램, '제주도 강정마을 왜 분노하는가'

2부 패널발제

지사). ‘도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공세적으로 고소 고발해야 경찰도 조치 가능,’ ‘인신 구속 있어야 수위 낮아져’ (경찰) ‘해군 기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 집행 요구,’ ‘외부 세력 개입에 대해서는 강정 찬성 측에서 문제 제기하면 국정원, 경찰이 측면 지원’(국정원, 제주 지검 차장 만나).

2011년 여름, 저항이 거세지자 국가와 보수 언론이 들고 나온 프레임은 다름 아닌 “중북좌파 빨갱이”였습니다. 강정은 제주의 다른 지역들처럼 4·3 학살을 겪은 곳입니다. 100여명 이상이 마을 여러 곳에서 “빨갱이”로 몰려 학살을 당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수십년 지속된 군사독재 당시 자신이 유가족임을, 목격자임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군사독재와 분단의 지속을 위해 4·3에 대한 기억은 말살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좌제는 유가족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파괴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들과 잇다른 고문의 배경에 4·3은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중북좌파 빨갱이” 프레임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국가의 모든 부당한 탄압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제입니다. 이는 국가가 강정의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할 것이라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70년 전 제주섬에 ‘레드 아일랜드(빨갱이섬)’란 이름을 붙이고 무차별적 학살을 가한 것처럼 말입니다. 1948년 5.10 단독 선거가 제주도 2개 구 도민의 보이콧으로 무산되자 당시 제주지구 미군사령관 브라운(Brown)대령은 “원인에는 흥미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 뿐 I am not interested in the cause of the uprising. My mission is to crack down only”이란 말을 하며 토벌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실행된 이른바 ‘빨갱이’들에 대한 ‘예비 검속’ 그리고 학살 또한 4·3 기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강정은 단지 해군기지를 반대한다 라는 이유로 얼마든지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고 또 목인되는 곳입니다. 그 한 예로 2013년 5월 10일 한 여성 주민이 의도적으로 팔꿈치로 민 경찰에 의해 6미터 다리 난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영상¹⁷⁾) 그 날 주민들은 쇠사슬에 자기 몸을 묶으며 도정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마을 농성천막 행정대집행에 처절하게 저항하였습니다. 해녀의 딸로 강정에서 태어난 주민 김미량은 다행히 나무에 걸려 목숨을 건졌지만 복부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을 찾아온 서귀포 시장에게 같은 제주도민을 탄압해서는 안 되며 제주해군기지는 미해군기지나 마찬가지로, 또한 자신이 희생된 만큼 그 날 체포된 이들을 석방해 달라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을 시작했지만 사건 이후 부당한 공권력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5월 10일, 그를 팔꿈치로 민 경찰은 그가 다리로 떨어지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험한 지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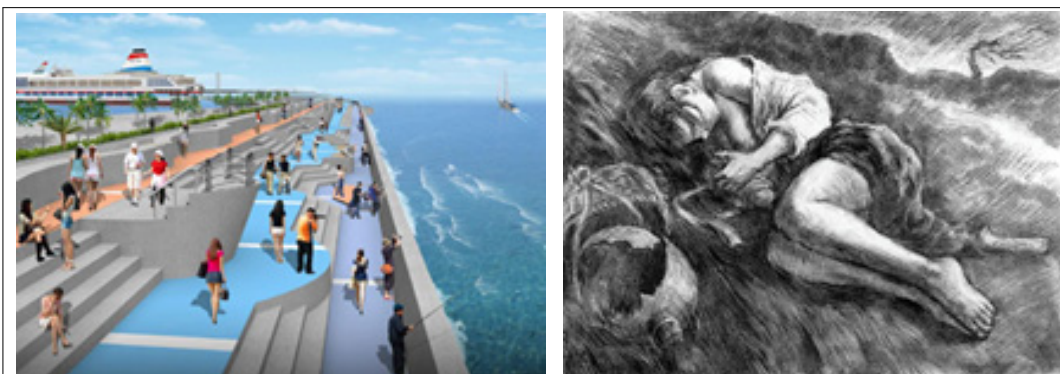
17) <https://youtu.be/CIi8adsnww0>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부의 왜곡과 의도적 방관에 의해 강정의 다른 많은 사건들처럼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3년 후 정부의 구상권 청구 시 피청구자의 한명이 되었습니다. 김미량님은 지금도 고향에서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사랑하는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10일 도정의 마을농성천막 강제 철거와 이에 대한 항의가 있던 날, 한 남성 경찰이 다리 난간에 앉아있던 강정 여성 주민 김미량을 팔꿈치로 밀었다. 여성은 다리 6미터 아래로 추락하였다. (동영상 캡처)

한편 군사주의는 가부장제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사주의는 가부장제가 속성으로 가지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상품화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할 것입니다. 기지가 건설되기 전 해군의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 광고를 보며 4·3 당시 여성에 대한 참혹한 성폭력들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일제시대 일본군이 피해국들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면 60년대 중반-70년대 중반,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전쟁에 개입한 한국군의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과 학살은 이후 80년대 광주 학살과 성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정 여성들의 군사기지에 대한 저항 운동은 이렇듯 군사주의와 군사화로 점철된 한국 역사가 여성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인식하는 데서 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른쪽: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 광고 간판 그림 왼쪽: 강요배, ‘강간’ ‘동백꽃 지다’ 4·3 역사화 연작 그림의 일부, 1989-1992

이렇듯 저항, 저항의 원인이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탄압의 본질에서 강정은 4·3의 연속선에 놓여있습니다. 강정은 4·3입니다. 강정이 반복되는 4·3임을 인식하

2부 패널발제

지 않는다면, 4·3의 ‘완전한’ 해결은 요원합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그 폭력성이 넓고 깊게 인지되어야 하며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군사화와 군사주의로부터 섬을 지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인식의 공유와 평화 교육,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강정은 4·3이 아닙니다. ‘이다, 아니다’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강정의 저항이 비폭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폭력을 등에 업고 세워진 제주 해군기지, 그 위를 우리는 평화의 물결로 뒤덮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13년 1월 27일 강정해군기지만대운동 개인들로부터 시작된 제주 비무장 평화의 섬 선언 제안 취지문은 7년을 끌고 있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투쟁이야말로 평화의 섬 제주도의 비무장화를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도 모범적인 비폭력 평화투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봉기를 개시한 300여명의 무장대는 손에 아주 초라하나마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민 학생, 청년들을 고문치사한 경찰지서들을 포함, 도의 24개 경찰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였습니다. 4·3 전 전문위원 김종민 선생은 4·3 기간 토벌대와 무장대의 민간인 학살 비율을 약 9:1로 보는데 소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8:2, 7:3도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장대에 의한 민간 학살이 있었으며 심지어 성폭력도 있었다 합니다. 4·3항쟁은 부당한 탄압에 대한 항쟁입니다. 그러나 그 항쟁이 반드시 생명평화라는 세계관을 수반했던 것은 아닙니다. 항쟁이 지키고자 한 것이 생명평화 또는 그러한 공동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탄압과 항쟁(또는 저항)의 본질이 같다는 점에서 강정과 4·3은 같으나 그 세계관에서 강정과 4·3은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4·3과 강정의 투쟁은 모두 ‘생명평화공동체’를 향한 도민의 끊임없는 투쟁이란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왜 제주 비핵화와 비무장화가 필요한가

2017년 3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척의 미군함, 2척의 캐나다함, 2척의 호주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거나 강정바다에서 측량 조사를 하였습니다¹⁸⁾. 이 중 11월 22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여 5일이나 머무른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는 제주에 들어온 첫 핵잠수함으로서 1991년 12월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되어 그 다음해 1월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위반됩니다. 선언 제2조는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18) 제주 해군기지 외국함 입항 현황 2017년: 3월 25일 미 이지스 구축함 스테뎀(3월 26일 출항)/6월 20일 미 이지스 구축함 듀이 (6월 20일 출항)--> 장비 파손으로 부두 정박후 10시간 후에 떠남/6월 22일 캐나다 호위함인 오타와와 위니펙(6월 23일 출항)/8월 15-31일 강정바다에서 무단 작업한 미 측량함 헨슨 (입항 또는 항내 진입은 아님)/9월 26일 미 소해함 치프 (10월 2일 출항)/10월 22일 미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 (10월 26일 출항)/11월 3일 온 호주 함정 멤버튼 함과 파라마타 함(11월 6일 출항)/11월 22일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 (11월 27일 출항) 이다. 이들은 대부분 방문과 휴식을 구실로 오는데 허술한 규제 아래 많은 쓰레기와 오물들을 제주땅에 남기고 떠났다.

목적에만 이용한다.”라고 천명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핵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른바 미 ‘전략 자산’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미 핵잠수함이 제주해군 기지에 들어왔다는 것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거점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를 강화합니다.

2017년 10월 28일 49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 논의에 이어 11월 7일 한미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과 최첨단 정찰 자산에 대한 구입과 개발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올 해 2018년 4월 11일-12일 사상 처음으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4·3 추모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강요로 이미 방위비 분담금의 73%를 분담하고 있는 한국. 1조원이 남았는데도 미국은 4월 11일 방위비 분담금의 2배 인상을 요구했습니다¹⁹⁾. 또한 미군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을 한국 쪽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종 훈련을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 등 전략무기를 출격시킬 때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우리 정부가 맡아달라고 요청²⁰⁾”하였습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뒤에는 사드유지비용까지 부담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습니다.

최근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은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정’ 그리고 남북한 상호 ‘군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핵과 관련되는 이른바 미 전략자산²¹⁾의 한반도 배치 및 출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미국은 1992년 1월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무시하고 연합 훈련이란 이름 아래 한반도에 계속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보내는 무력시위를 해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 전개되는 기지들, 소성리 사드 기지와 제주해군기지 등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기지들을 폐쇄시키고 군사화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핵조례, 비핵지대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주의 비핵화 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 해 3월 24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주 비핵화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작년 11월 들어

1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이트 및 구립미야 사랑해 카페 참조

http://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guard&wr_id=1838

http://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guard&wr_id=1838

20) 미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하라.” 한겨레, 2018. 4. 13

<http://m.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40530.html#csidx7fdf8e6621a48d39ec256b5267737f2>

21) 전략자산 Strategic assets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이 포함된다. 전략자산이란 말은 어폐가 있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거대살상무기 또는 죽음의 무기라고 불리는 게 타당하다.

2부 패널발제

은 미핵잠수함이 ‘평화의 섬’에 어긋나며 제주도의 생명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²²⁾ 비핵화 의제는 곧 있을 6월 13일 총선에서 또한 번 도민들의 논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정부는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습니다.²³⁾

1991년 4월 한-소 정상회담이 제주에서 열리고 5월 평화의 섬 논의가 당시 미 켄터키 대학의 교수였던 문정인 교수 등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제주국제협회의 토론장에 참여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전문가들은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다섯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한 바 있습니다.²⁴⁾

1. 첫째 제주도는 비무장화 되어야 한다.
2. 둘째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한 지정학적인 중심지임을 깨달아야 한다.
3. 셋째 제주도가 국제적인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 센터가 되어야 하고 평화에 관한 연구와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4. 넷째 제주도민들이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지역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다섯째 제주도가 평화의 개념과 일치하는 균형 잡히고 분권화된 자생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는 2000년 6월 17일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제1차 세계 평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 평화의 섬 모형정립과 실천방안>에서 “동북아 국가 간의 이념 및 군사적 대립구조의 역학관계 속에서 제주가 군사적 대립과 전쟁 개입 가능성을 예방하고 한반도 내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제주 평화의 섬 개념은 처음부터 제주도의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출발하였습니다.

22) 핵잠수함 들어온 제주 "더 이상 해군기지 확장 안돼" (제주소리, 2018. 3. 24)

23) 세계평화의 섬 선언문 (2005. 1. 27)

24) 24-25. 1991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섬과 비무장평화의 섬 논의에 대한 전개는 제주 비무장 평화의 섬 선언 제안취지문 (2013, 1, 17) 과 고유기, 유시민·문정인, 강경마을 와서 사죄하라 (오마이 뉴스 2011, 8, 6)를 대부분 참조, 인용했음을 밝힌다.

2003년 10월 10일에는 제주대 평화연구소가 주최하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발전 방안에 관한 워크숍에서 제주도가 '탈냉전에 대응한 비핵지대 및 평화회담 개최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중요한 역할이 지적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또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통해 제주도를 비핵지대화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연구, 교육훈련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제시되기까지 했습니다.

2006년에는 제주국제평화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4월 제주를 '평화지대'로 선포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주의 '비군사화(비무장화)'와 '중립화'를 국제적으로 선언할 것과 "장기적으로 군사목적의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과 기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추진 원칙을 발의한 문정인 교수를 비롯, 초기의 평화의 섬, 비무장평화의 섬 주창자들은 '점차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냉전시대의 안보 논리로 퇴보하기 시작' 하더니 결국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 가능하다는 궤변'에 이르렀습니다.²⁵⁾

위로부터 시작된 평화의 섬 논의는 이렇듯 제주해군기지 완공이라는 반대의 방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제주 성산에서 제 2 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것이 공군 기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작년 말 한 주민이 42일간의 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 비행장이 있던 제주 서남쪽 모슬포 모슬봉의 레이더 기지는 그 시설을 눈에 띄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지는 미군 기지였다가 한국 국방부로 반환되었지만 미군과 연동하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섬 전체로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군사화는 또한 토지의 부동산 개발, 상품화, 사유화를 급속히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악화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아래로부터의' 비무장 평화의 섬 논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 걸음 중의 하나가 '비핵화 운동'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2013년 이미 뜻을 가진 개인들이 '비무장평화의 섬'을 만들었지만 '비핵'이라는 이슈가 목전에 있는 만큼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장기적으로 '비무장평화의 섬'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의 비핵화와 더불어 저는 또한 유엔사와 나토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캐나다 위니펙 함과 오타와 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였을 때 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민 단체들은 캐나다의 군사훈련 참여가 '[2016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에 유엔사령부 산하 9개 전력제공국(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터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과 한국이 주둔국 지위협정(SOFA)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

25) 24번 각주 참고

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²⁶⁾ 또한 ‘한국방위를 한미간 양자동맹의 현안이 아니라 지역안보 현안으로 설정하고 다자동맹으로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²⁷⁾

한편 한국 국방부는 올 해 10월에 있을 국제 관함식의 개최지로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노인회의 한 원로께서 언급하듯 국제 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국과 나토의 동북아 지배 전략에 종사하는 전초기지, 공고한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한 해군기지 찬성 주민이 말했듯 ‘로켓’과 같은 속도로 말입니다. 강정마을회는 이미 3월 30일 투표로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혹여라도 해군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에 관함식을 개최하지 않도록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여성들, 남성들의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글을 맺으며

저의 관심은 또한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에서 특히 여성들의 투쟁을 인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4·3 당시와 그 이후 여성들의 경험을 돌아보면 여성들은 사건의 당사자이며 목격자이나 ‘말할 수 없는’ 존재, ‘비체 abject’였습니다.²⁸⁾ 지금도 여성들은 여전히 그러합니다. 광주항쟁과 탄압 시기에서 군대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증언은 38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일제시대 일본군의 성노예 강요를 폭로한 것은 해방 이후 46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나 비체인 존재인 여성들은 역설적으로 남성 주류 담론에서 누락된 공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공간들의 의미를 스스로 언어화하고 해방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모두의 해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부장제, 군사주의와 싸우는 일일 것입니다. 아래의 인용으로 저의 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²⁹⁾

‘기억과 역사는 자기 정체성의 근원이다. 여성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만들지 못한다. 선택적 기억과 망각, 침묵, 부분적 말하기에 의해 구축된 가부장제 하의 여성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학 센터 소장, ‘제주4·3 여성 연구의 필요성’)

26) [6월 20일] 기자 회견문: 미 듀이(Dewey) 이지스구축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거부한다 한·미·캐나다 해상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전송) <http://cafe.daum.net/peacekj/GeUj/657>

27) 이와 관련해 언급할만한 일은 호주 주재 미국 대사로 내정되었던 전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될 계획이라는 2018년 4월 24-25일 언론 보도이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2-3일 앞둔 날이다. 해리 해리스는 2017년 1월 하와이의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제주를 비롯 한반도의 줄알트 배치를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다. 미 메인주 베쓰 철강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줄알트는 현재 최첨단 미해군 전함이자 항공모함 길러로 알려져 있다. 해리 해리스 같은 사람이 주한 미국 대사로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커녕 한미일 동맹의 강화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이미 미 이지스 구축함과 핵잠수함 까지 들어온 제주해군기지가 빠르게 미국의 전략적 전초기지가 될 거라는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28)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학 센터 소장), 제주4·3 여성 연구의 필요성. 제주 여성 4·3 의 기억: 제주 4·3을 여성주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포럼(2017, 12. 21, 제주여성회주최, 주관으로 제주시에서 열림)

29) 이 글은 2018년 5월 24일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세계여성들, 평화를 말하다’를 위해 2018년 5월 작성되었다.



왼쪽 위: 미 메인주 화가 수잔나 레스커 Suzanna Lasker 가 제주를 생각하며 그림(브루스 개그는 전달)

오른쪽 위와 아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첫 외국 군함이자 미군함인 스테뎀 함을 반대하는 육, 해상 시위. 2017. 3. 25.

많은 여성들이 리드하거나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장태욱, 오마이뉴스와 방은미

발제 2.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

Mary-Wynne Ashford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anada

“최고의 시절이었고, 또 최악의 시절이었다.” 찰스 디킨스가 프랑스혁명 시기 파리와 런던에 대해 묘사한 이 말은 지금 남한과 북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은 마침내 65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최고의 시절이기도 하지만 북미간 핵전쟁의 위험으로 최악의 시절이기도 하지요. 전쟁은 한반도를 둘로 쪼개고 이산가족을 만들었으며 북한지역을 지난 65년간 제재 속에 가두어놓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각종 제재들로 인한 인도주의적 재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재론자들은 제재를 군사적 침략 대신 쓸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라 홍보하지만 제재는 결코 외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재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전쟁의 수단일 뿐입니다. 제재는 사회의 취약계층인 여성들, 아이들, 환자들, 그리고 노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가해지는 전쟁의 도구입니다.

저는 1999년과 2000년에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협회의 대표로 북한을 방문해 핵전쟁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 의사들과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북한 의사들은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자신들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여전히 홍수와 기근에서 헤어나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제약 회사들로부터 기부 받은 시프로프록사신이라는 항생제 5만달러어치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극심한 전력부족으로 인한 결과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현대의학 장비들은 링거액 수혈부터 CT촬영, 엑스레이, 초음파검사나 자잘한 검사까지 전기로 움직입니다. 수술하는 데에도 조명부터 마취기계, 모니터, 레이저, 비디오 복강경 등 전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개성에 있는 어린이병원으로 갈 때에는 6차선 고속도로 위에 우리 외엔 단 한대의 차도 볼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보이는 차들은 유니세프나 적십자 등 구호단

체들의 차가 대부분이었고 밤이 되면 도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양의학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의학을 쓰고 있었습니다. 약품이 다 떨어진 병원 복도에서는 인삼을 건조하고 있었지요. 시약이 떨어져 검진실은 문을 닫았고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어쩔 수 없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더욱 안 좋습니다. 위생장갑, 수술복, 메스, 봉합재료, 약품 등 대부분의 물품들은 제재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문제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물품들을 계속 재활용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녹이 슬고 뭉툭해진 메스를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신의학회지와 서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같은 아동질환에게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폐렴과 홍역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기름 부족으로 인해 눈에 물을 대지 못하고, 수확물을 도시로 나르지 못하며, 비용을 구할 수 없고, 식품들을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버스 대신 걸어다녀야 합니다. 식량부족은 아이들과 임산부같이 영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제재는 민간인들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2017년 9월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26항에는 명확하게 “... 대북제재는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제재의 대상이 아닌 경제, 식량 및 인도적 지원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 아니며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구호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명문에서 역사의 교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라크에서 제재의 결과로 수십만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한겨울에 요리하고 난방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은 난방과 요리를 위한 산림벌채로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간시설을 고치고 홍수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는 장비를 운용하는 데 쓰일 기름이 필요합니다. 구호단체에서 필요한 약품이나 이불과 같은 물품을 주문하면 판매자들은 반송이 두려워 주문을 잘 받지 않습니다. 판매자들은 때때로 주문한 물품보다 질이 낮은 물품들을 대신 보냅니다.

유니세프는 현재의 대북제재 하에서 6만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사망할 것으로 보고

2부 패널발제

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 또한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장장애는 뇌손상 같은 영구적 결과도 수반합니다. 2017년 유니세프 보고서는 5세 이하 어린이의 28% 정도가 이미 어느 정도, 혹은 심각한 수준의 성장 장애를 겪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끝내기 위해 요구해야 합니다. “보호의 책임”이라는 유엔 협정에는 국가가 소속원들을 보호할 의지가 없거나 여력이 안 될 경우 그 책임은 국제사회가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구호활동가들이 신속하게 북한으로 갈 수 있고 국제 은행 시스템을 정상화하여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해외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수입을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재를 끝내는 데에는 평화협정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협상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인도주의 활동과 신뢰구축 활동, 교육을 위한 교환활동,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평화구축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갈등을 풀고 평화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 모든 평화 구축의 과정이 포괄적이고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15년간의 이행내력을 조사한 연구는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는 데 여성들의 공정하고 의미 있는 참여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데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무력분쟁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더 이상 이견이 없고, 분쟁 후 평화를 재건하는 데에도 여성 참여가 필요함은 자명합니다.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한 국가가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이 더 오랫동안 투표를 하면 할수록 전쟁의 위험은 줄어든다.” - Caprioli³⁰⁾

아래는 각각 무력충돌 가능성을 5배가량 줄일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햇수
- 의회 내 여성들의 숫자를 5% 늘리기
- 출생률을 1/3가량 줄이기 (출생률은 교육수준, 경제적 기회, 정치적 권리,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 여성노동자의 비율을 5% 늘리기

30) Caprioli, Mary, 2000. 'Gendere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37(1): 51-68

평화를 구축하는 데 남녀가 같이 일하면 남성들은 보통 실용적인 세부사항에 집중하고 여성들은 관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둘 모두가 중요하며 이 모든 관점들이 다뤄질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캐나다 외무장관인 Chrystia Freeland는 “평화로 가는 길에는 깨우친 여성들이 필요하다.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 여성들이 포함될 때, 그 평화는 더 오래간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포함될 때,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높이 유지된다. 여성들이 통치에 가담할 때, 나라는 더 포괄적이며 더 안정적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구축 활동이 이루어져가는 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각종 장애물들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남한이 이 통합과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할 시점입니다. 교육과 고용, 경제 개발, 그리고 심지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이어나가는 헌신은 긍정적 결과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각종 직종별 혹은 문화적 교환 활동, 관광, 공공경제체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성들이 발 벗고 나서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시간입니다.

발제3)

대인지뢰의 현황과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1. 한국 발견 지뢰 종류(Anti Personnel Mine, Anti Tank Mine)

- 대인지뢰(AP MINE)-M14(플라스틱), M2A4, M3, M16A1(미제),
PMD-6, 57(북한 제조 나무상자 지뢰)
- 대전차지뢰(AT MINE)- M72A4, M6, M15, A7-27, M19(플라스틱)

미 국방성의 자료에 의하면 금속지뢰의 작전 유효수명은 12년. 군이 설치한 지뢰 중 금속지뢰의 99%는 땅에 매설한 지 25년이 지났으므로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지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 그러나 플라스틱 재질의 M14발목 대인지뢰는 100년이 지나도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밟아야 폭발한다.

2. 대인지뢰의 현황

- 언제부터 얼마나 매설 되었나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사용한 지뢰는 많지 않다.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상황 이후 동서냉전이 심화되고, 1964년 9월 한국군이 월남전에 파병된 후 북한군의 빈번한 DMZ 도발로 DMZ 일원 다량 지뢰 매설, 1968년 1월 북한 124군부대 김신조 등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88서울 올림픽에 대비하여 1987년 까지 서울 우면산 등 후방 방공기지 39개소에 M4대인지뢰를 약 7만 5천여 발을 매설하였다. (40년 전 당시 우리나라는 DMZ 남북한계선에 철조망조차 설치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북의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의 원조를 받아 비인도적 무차별살상무기인 대인지뢰를 남북한계선이남 접경지역 800여 개소, DMZ 550여 개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설치하였다. 1983년 10월 9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서남아·대양주 6개국 공식 순방 첫 방문국인 버마(현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일어난 강력한 폭발 사건으로 대통령의 공식·비공식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폭탄테러 사건 발생 이후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군사대비 목적으로 서울 우면산, 부산 해운대 등 후방 방공기지 39개소에 M14대인지뢰 7만 5천여 발 매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후방방공기지 매설 지뢰는 제거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지뢰

4,000여 발은 행방도 모르는 실정)

2012년 말 현재 약 1,320여개소, 약 111km²(계획 지뢰지대 1,100여개소 약 18km², 미 확인 지뢰지대 220여개소 약 94km²)의 지뢰지대가 존재하고, 매설된 지뢰만도 약 130만 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북측: 2미터 간격 2열, 총 6열로 전체 100만 발 매설된 것으로 추정)

● 후방은 어디에 매설되어 있을까?

- KCBL(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이 현재 미군시설 중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한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호명산(캠프 레드클라우드 통신대)

경기도 연천군 야월산 ATC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 ATC

경기도 가평군 화악산 Evn ATC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스토리 사격장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초평도 미군 훈련장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캠프 그리브즈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캠프 보니파스, 캠프 리버티벨

부산시 해운대구 장산(캠프 하야리아) 통신대, 미 8군 제 1통신여단 307 통신대대



- KCBL이 밝힌 후방지역 지뢰지대 36곳

2부 패널발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면산 (牛眠山)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좌동 장산 (長山)
부산 영도구 동삼동 산 159번지 중리산 (中里山)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리 최정산 (最頂山)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산 (文鶴山)
울산 북구 효문동 무룡산 (無龍山)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검단산(黔丹山)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문암리 불무산 (佛舞山)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고령산(高嶺山), 개명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노고산 (老姑山)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놀로리 산 23-2 파평산 (坡平山)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 (番都) 5리, 신지리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천덕산 (天德山)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남양동 무송리 (茂松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안중지역) 고등산 (高登山)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된박산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장릉산 (章陵山)
경기도 가평군 화악2리 화악산 (華岳山)
경기도 의정부시 및 양주군 양주읍 어둔리 호명산 (號鳴山)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문안산 (文安山)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백화산 (白華山)
충남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지기산 (智基山)
충남 서천군 서면 합전리-월호리 옥녀봉 (玉女峰)
충남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水鄉里)및 도하리
전북 김제시 황산동 (凰山洞)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영병산(影甁山)
전남 보성군 별교읍 낙성리, 옥전리 존제산 (尊帝山)
전남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 (錦城山)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星山里)
경북 포항시 대보면 구만리 봉화산 (烽火山)
경남 양산시 상북면 원효산 (元曉山)-천성산 (千聖山)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불모산 (佛母山) 및 화산 (花山)
경남 하동군 금남면 금오리 금오산 (金鰲山) 및 용산 (龍山)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된봉산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대룡산 (大龍山)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오대산국립공원 내 황병산(黃柄山)

● 피해내역

- 6·25휴전~1989년 - 민간 1,000여 명, 군인 3,000여명 등 총 4,000여명 사상
- 1990~2000년 - 민간 75명, 군인 80명 등 155명 사상
- 2001년~현재 - 지뢰폭발사고 37건, 민간인 사망 3명, 발목절단 6명, 기타 중경상 8명 등 17명 사상, 군인 9명 발목 절단 등 중경상
- 현재 민통선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2533가구 8135명. 민통선 내의 유일한 면단위 부락인 해안면의 경우 주민 668명 가운데 지뢰피해자가 50명으로 알려져 있어, 단순 계산으로도 8%의 높은 피해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철원읍 대마리가 649명 중 29명, 생창리가 349명 중 20명, 마현리가 884명 중 20명 등으로, 모두 세계 최대의 지뢰피해국인 양골라의 수치(200명당 1명)를 능가. 현재 우리나라에 지뢰 사고로 인해 발생한 누적 피해자 수는 1,00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민간인이 약 80%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사고원인

- 민간인 피해자는 군이 법률에 따라 지뢰위험지역 경계표시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때문
- 생계유지 위해 고철 수집, 산채 채취, 영농, 땀감 확보 등 위해 지뢰매설 의심지역 출입
- 폭우로 유실된 지뢰가 논, 밭, 강, 바다로 흘러들어 영농, 휴가, 관광 활동 중 사고

● 제거방법과 문제점

- 동물, 금속탐지기, 적외선탐지기, 열중성자 분석방법을 이용
- 중장비를 이용하면 효율이 높으나 생태환경 파괴
 (2010년 국방부는 제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489년이라고 발표. 의무복무 병사의 62%가 외동아들. 군은 병사의 희생을 막기 위해 중장비 동원한 지뢰제거에 의지. 일 년에 500발 정도 제거. 사단법인 녹색평화연합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1일 민간인 전문인력 2천여 명 양성 투입할 경우 DMZ내 지뢰까지 10년 이내 제거 가능.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이후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가 가능했던 것은 위치가 정확히 표시된 지뢰 매설 지도가 있었기 때문. 민간 전문가 지뢰 탐지 및 제거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사례 없음)
- 플라스틱 재질의 대인지뢰(M14)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고 가벼우며 금속탐지기에 감지되지 않는다. 발견도 어렵고 유실되기 쉬워 민간인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부 패널발제

3. 국내외 지뢰관련 조약, 시민단체

●국외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1991~)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000년 유엔 및 미 국무부 자료를 이용해 지구상 64개국에 1억1천만개 이상의 대인지뢰가 묻혀 있다고 발표했다. (이집트 2천3백만개, 이란 1천6백만개, 앙골라 1천5백만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캄보디아 각 1천만개, 베트남 350만개) 현재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 매설된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1,100년간 3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뢰 금지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은 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조디 윌리엄즈. 그는 미국의 ‘베트남 참전용사회’에서 일하면서 많은 상이군인들이 작전지역에 미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베트남 참전용사회’와 독일의 ‘메디코 인터네셔널’이 모태가 되어 시작한 전세계 지뢰금지운동은 1991년 11월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의 결성으로 본격화된다. ICBL이 주축이 된 지뢰금지운동은 96년 ‘특정 재래식 무기협약’(CCW)의 지뢰 사용금지 및 제한과 96년12월 유엔의 대인지뢰금지협약 촉구 결의안을 이끌어 냈고 ‘오타와 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미국은 한국을 예외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입 유보. 전세계 NGO들은 한결 같이 종전 뒤에도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대인지뢰 금지운동은 인도주의 운동인 동시에 군축운동.

○대인지뢰전면사용금지 국제협약(오타와협약. 1999년 3월 국제법으로 효력 갖고 대인지뢰의 생산·사용·이동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매설된 대인지뢰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운용되고 현재까지 164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남북한 등 가입 않고 있음)

○유엔 총회는 2006년 지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4월 4일을 ‘국제 지뢰의 날(국제 지뢰제거 인식 및 지뢰 퇴치활동의 날)’로 정했다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이라크, 베트남, 캄보디아, 소말리아, 스리랑카, 우간다 등 현재 70여 개 나라에 아직도 1억만 발이 넘는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ICBL의 활동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5,000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 2014. 9. 23. 미국 백악관·국무부·국방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코리아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저장, 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권장하지도 않겠다>며 한반도에서만 대인지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1997~2009)

1997년 11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참여연대, 경실련 등 24개 민간단체가 모여 결성되었으며 피해실태 파악과 한국정부의 오타와 조약 조기가입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2009년 해산 뒤 집행위원장으로 대인지뢰 금지운동을 주도했던 조재국 목사는 사단법인 ‘평화나눔회’를 창립해 대인지뢰 피해자 구호활동에 주력.

○ 한국지뢰제거연구소 (2000~)

소장 김기호가 2000년 7월부터 효율적인 지뢰제거장비와 제거방법을 연구하여 통일에 대비하여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DMZ내 매설된 지뢰를 친환경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설립. 대인지뢰 사용금지 및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뢰피해자 전수조사, 방치지뢰지역을 조사. 대인지뢰사용금지 운동을 전개하고’ 민통선 주민들의 안전과 지뢰지대 관리제도 개선, ‘유엔 지뢰행동 표준규정’을 국방부에 적용토록 하는 등의 공로로 2012년 ‘가톨릭대상 정의평화상’ 수상, 2014년 ‘생태지평상’ 수상. 지뢰박사라 불리는 김소장은 국내 독보적 지뢰전문가.(2013년 ICBL 멤버로 가입)

○ 녹색평화연합 (2012~)

KCBL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김기호가 2012년 12월 20일 사단법인 “녹색평화연합”을 설립. 대인지뢰금지운동과 친환경적 지뢰제거활동을 하며 한국정부의 오타와 조약 가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80. 10. 1 제35차 유엔총회에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이 채택되고, ‘96. 5. 3 CCW협약 제2의정서(지뢰·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지난 2001년 5월 9일 CCW 및 2개 의정서에 서명하여 유엔법률국에 접수. 우리나라는 위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지뢰의 책임 있는 사용을 국제적으로 약속하였고, 재래식 무기의 비인도적, 무차별적 사용 억제를 위한 국제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 및 의정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2001년 5월 24일 "지뢰 등 특정재래식 무기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②(대인지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영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로서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대인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4. 여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

- 2018. 4. 27 남북정상회담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

①남과 북은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간다.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민족공동행사, 국제경기대회 공동으로 진출, 남북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상봉을 추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 한다.

②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

③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협력 한다.-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불가침 합의. 군축을 실현. 종전 선언 후 평화 협정으로 전환.

④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완전한 비핵화와 군축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인가

- 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 지뢰협약에 가입하고 광범위한 지뢰제거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정부(국방부)는 기존의 계획(연간 500발 제거, 완전 제거에 489년 소요)을 버리고 완전한 발상의 전환으로 민간인 전문가들을 동원, 빠른 시일 안에 지뢰 완전제거에 나서야 한다.

- 도로예정지의 지뢰제거작업은 중장비를 이용해도 될 것이나 기타지역에서는 60년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지뢰제거의 노하우를 전 세계에 매설된 1억여 지뢰 제거를 위해 70~80여 국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만국의 여성이여 단결하라!

여성들은 국제연대를 통해 지뢰 뿐 아니라 모든 살상무기의 폐기, 생산과 유통 중지, 무기회사의 폐업 등을 위해 애쓸 것이다. 각 나라간의 분쟁은 소통을 통해 협상하고 타협할 것이며, 자국 내의 분쟁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의의 실현으로 해결하여 '일체의 무력, 폭력을 통한 질서확립'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생명과 살림을 위해서는 평화와 사랑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한 세계 여성들의 무력과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는 점차 강고해져야 한다!

발제 4)

Climbing down from the Nuclear Monster

- a Challenging Necessity for Peace and Security

Rebecca Johnso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K

발제 5)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김정수. 평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감동과 감격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5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1953년 휴전협정 후 처음으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어 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역인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평화체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1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결정될 것이며, 한반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고 험난했던 운명적 여정이 무사히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살얼음을 걷는 듯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본인이 대통령을 마치는 때가 되면 “평화가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실로 분단의 고통 속에 살아 온 8천만 한반도 주민이면 누구나 염원하는 기본적 바람을 드러낸 것이라 본다.

아직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냉전은 현실이고 대결은 일상이며 평화는 낯설다.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오려고 한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2018 정상회담의 표어가 새로운 평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가 도래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전쟁의 불안과 공포, 북과의 대결에서 오는 피로감이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평화의 일상이 되기까지는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발제자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가 도래하려면, 동북아에서도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제안을 통해 오늘의 발제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낯선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평화는 낯선 것이다. 동북아에서 평화는 강대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군사안보나 군사동맹에 의해 유지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by force)만이 그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safety)과 안녕(well-being), 행복(happiness)을 보장해 줄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peace with justice)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사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기치로 내걸고 이를 추진한 역사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1940년대 “대동아공영권”(Greater East Asia Co-Prosperty Sphere)을 내세우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번영과 평화를 누릴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한국, 중국, 대만, 버마, 필리핀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 전쟁의 이름이 대동아전쟁(Great East Asia War)이다.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식민지 한국을 약탈하고, 20만 명도 넘는 동아시아의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끌고 갔으며, 난징대학살을 자행하였다. 동아시아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비극의 역사에서 정의, 즉 역사적 정의(historical justice)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다.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시아의 냉전 상황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제 한반도 분단 체제가 균열을 일으키게 되면서, 냉전 구조에 의해 이득을 얻었던 강대국들은 새롭게 도래하는 동북아 평화체제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지역적으로 조선반도에 가장 가까운 대국이고, 조선(북한)의 정치에서 큰 후방이고, 경제에서는 최대 경제협력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한국(남한) 제1의 무역 동반자이다. 중국은 또한 조선반도 문제 유엔 프레임의 기동 중의 하나이다.³¹⁾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실현을 위한 일괄합의는 생각지도 못한다. ... 중국이 조선반도의 평화행진의 길에 참여하는 것은 (중략)... 중국의 국가 이익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참여는 중국의 객관적 요구에 따른 행로이다. 중국은 목소리만 높이는 연출자가 아니라, 단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최후까지 마지막 역할을 진정으로 담당할 것이고, 중국이라는 큰 힘의 지지가 없으면 평화는 결코 실현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2018년 5월 2일자 사설을 통해 밝힌 중국공산당 당국의 입장이다.³²⁾

일본의 행보는 매우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역시 일본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자위대에서 일반 군대로, 즉 방어차원이 아닌 공격전쟁을 포함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인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에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장조성은 이른바 ‘평화헌법 9조’³³⁾ 개헌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었다. 평창 올림픽까지만 해도 남북의 만남에 대해 냉소적이기만 했던 아베 수상은 남

31) 필자주: 중국이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국이라는 의미로 당시 북한군, 유엔군, 중공군 사령관이 휴전협정 서명에 참여했음.

32) 인터넷 통일뉴스, 2018년 5월 5일자, 강정구 번역.

33) 일본 헌법 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회구하고,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함한다. 2항: 전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2부 패널발제

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각 변동의 흐름을 뒤늦게 깨닫고,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변동에서 자국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해당사자(stake holder)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줄 것을 제안하고, 향후 북일정상회담을 개최하여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총리가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주요내용: 북일 국교정상화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협력 및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함)에 근거하여 납치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정상화를 지향하려 한다. 아베수상은 아울러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한미일, 중국 및 러시아, 국제사회와 확실하게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도 확실하게 역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였다.³⁴⁾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에 의하면,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로소 북한을 적(adversaries)으로 불렀다.³⁵⁾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두 번째로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adversaries)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북한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기 전에, 미국은 비로소 북한을 적국이지만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일 것이다. 그는 또한 5월 11일 워싱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할 경우 미국은 북한의 변명을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denuclearization)에서 P(permanent)VID로 강화시킨 것에서 보듯 북한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대한 요구와 압박을 매우 집요하고도 치밀하게 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동북아시아 각국들은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북미정상회담 이후 모두의 기대대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도래할 것인가? 이것은 가능성의 영역이고 동북아시아 각국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구상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안되었다.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대표적 사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

34) 인터넷 연합뉴스 2018년 5월 11일자.

35) 인터넷 프레시안 2018년 5월 10일자. “미국이 비로소 북한을 ‘적’으로 부른다.”

선언'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원칙(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 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하기로 함을 수립한 '9·19 공동선언' 제4항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참고: 9·19 공동선언 4항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하였다.)³⁶⁾

우리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바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 속에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구현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 구축의 구조적 맥락을 확인하게 된다. 유사한 내용이 이번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3조 2항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³⁷⁾는 내용이 그것이다.

발제자는 여기서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9·19 공동성명'에서 제기된 '안보협력'(security cooperation)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5월 11일 마이크 폼페이 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 “한미 동맹간 이슈이지 북한과 협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 박은 데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비핵화나 평화체제와 별도로 한미동맹 혹은 한미일동맹은 지속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9·19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동북아에서의 안보협력 구상에 못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냉전 질서가 균열되고 해체된 결과로 얻어질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군사동맹은 필연적으로 냉전시대인 구체제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구상이 와다 하

36) (영문) The Six Parties committed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The Six Parties agr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37) (영문) During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pursue trilateral meets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declaring an end to the war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2부 패널발제

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제창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다. 그는 ‘동북아 공동의 집’의 골격으로, 먼저 북핵 문제로 상징되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공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를 우선 조성하고, 이어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긴급 사태에 대해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상설 협력체제의 구축과 공동 환경보호의 실현,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며, 문화 교류와 문화 창조의 장이 되게 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가 정치와 안보의 공동체가 되게 하자고 제안하였다.³⁸⁾ 그리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경험을 가진 한국이 ‘동북아 공동의 집’ 형성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³⁹⁾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와다 하루키 교수가 제안한 ‘동북아 공동의 집’ 구상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라는 안보 협력 제안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이종석 박사는 “다자안보협력체는 동북아에서 양자 동맹을 넘어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목표, 원칙, 규칙, 규범, 의사결정과정을 가지는 협력체가 되어야 한다. 이 체제는 동북아에서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불행했던 과거를 순리적으로 청산하여 평화를 보장함으로써 이 지역 모든 국가의 안보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라고 한다.

‘9·19 공동성명’을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인 ‘2·13 합의’(2007년)에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W/G) 설치를 합의하여 그 중 하나로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워킹그룹을 제안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2007년 3월 16일 베이징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이 동북아 지역에서 정부 간 열린 최초의 다자안보대화 모임이었다.⁴¹⁾ 그러나 역사가 알려주듯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안보 대화는 지속되지 않았고, 반대로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되었다.

이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도출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는 다가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 혹은 다자안보대화의 밑그림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이종석 박사 역시 같은 의견을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피력하였다.⁴²⁾

동북아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조성된 냉전의 질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와해되고 종식될 것이다. 그러나 와다 하루키 교수가 주창한 평등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공동의 집’과 같은 평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축이

38)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서울: 일조각, 2003, 23쪽, 이종석,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성남: 세종연구소, 2011, 35쪽에서 재인용.

39) 인터넷 한겨레신문 2006년 5월 28일자, “박재규 총장·와다 후루키 대담-‘동북아 협력의 길’”

40) 이종석,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39쪽.

41) 인터넷 통일뉴스 2007년 3월 16일자.

42) 인터넷 프레시안 2018년 5월 3일자. “한반도 비핵화시대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나 다자안보대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중국과 미국과 같은 거대국가가 G2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에서 각축을 벌이고, 북한의 경제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것 또한 우리가 목격할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종석 박사 역시 동북아 국가 간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공동체 형성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지역 내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킹은 기존 국민국가의 위계적 구조를 거부하고 동아시아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지역 내 시민사회들이 독자적으로 혹은 교류와 연대를 통해 만들어 내는 각종 소프트 파워가 개별 국민국가의 권력에 대해 견제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현재의 경성권력에 비해 미발달 상태인 연성권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³⁾

동북아에서 여성평화운동은 아직은 미발달한 연성권력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는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동경-서울-평양-동경에서 남·북·일 여성들이 공동개최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비롯하여, 200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경법정을 비롯하여 아시아연대회의 연례적 개최,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일본·중국·미국·러시아 여성들이 함께 참여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사는 동아시아 여성들의 반군사주의 네트워크 활동 등 동북아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여성들의 평화 활동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무력분쟁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아시아 네트워크 역시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연대 속에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냉전이 종식되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동북아에서 여성들의 평화운동도 여러 가지 차이와 불균형을 넘어서 동북아에서 공존과 화해, 평화를 향한 공동체로 나아갈 새로운 역량을 형성하여 개별 국민국가들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국가이익이라는 한계를 넘어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준비하여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는 비록 브레인스토밍 수준이긴 하지만, 동북아 냉전체제 해제 이후 평화체제를 준비하고, 한편으로 오래된 무력 분쟁 이후 재건을 준비하는 북한 및 동북아 평화건설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① 동아시아 군축운동 전개를 통한 반군사주의 운동 지속 : 지난 5월 2일 스톡홀름

43) 이종석,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44쪽.

2부 패널발제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세계 군사비 지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미국은 6,100억 달러(1위), 중국은 2,280억 달러(2위), 러시아는 663억 달러(4위), 일본 457억 달러(8위), 한국 392억 달러(10위) 등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과 군사비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이뤄져도 이렇게 군비경쟁이 지속된다면, 지속가능한 평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공동의 집’,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같이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은 동북아의 여성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군축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북한 여성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개발과 개발협력 모델 만들기 :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 차원의 평화체제가 이뤄지면, 그 다음은 북한의 경제개발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참여해 온 한국의 대북인도적 지원단체들은 대북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을 준비해왔다.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IMF의 국제기금이 북한에 지원되고, 한국의 기업들도 북한에 진출할 것이다. 초기에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더불어 경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되면, 주로 북한여성노동자들이 다수가 고용되는 경공업 중심의 사업장 형태가 다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도 여성노동자가 7~80%를 차지한다. 한국의 7~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처럼,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나 모성 보호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연락사무소(개성에 설치)에 ‘(가칭) 남북여성협력부’가 설치되어 한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들이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 바란다. 아울러 동북아 여성들이 협력하여 북한 지역에서 성인지적·성평등적 관점의 개발지원 패러다임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3자 혹은 4자회담에 동북아 여성시민사회 참여 구조 만들기 :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남북여성들이 만난 마지막 만남 것이 2015년 12월이다.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된 기간 동안 북한 여성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북한여성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편이다. 따라서 북한여성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기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07~12년까지 진행된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본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6자회담을 지향하여 기획되었다. 이제 명실 공히 북한여성들도 참여하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재개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간 진행되는 3자 혹은 4자회담에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고, 회담 기간 중에 1,5 트랙 회담 혹은 NGO 포럼이나 여성포럼을 조직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의지, 지식, 지혜가 여기서 모여져서 동북아여성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지켜나가야 할 지속가능한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

발제 6)

**Feminist must support Korean Peace Process for a
Decolonized and Demilitarized Korean Peninsula**

Kozue Akibayashi.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회장, Japan

발제 7)

The Korean Peace Treaty as a major step to reverse the arms race in North East Asia

Kin Chi Lau

(Professor of Global University for Sustainability, Hongkong/China)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의 군비경쟁과 핵전쟁의 위협이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지구 그 자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99%는 핵전쟁이 상위 1%의 기득권층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위 ‘수호자’들은 신뢰와 협력의 자양분인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대신 갈등, 분쟁, 그리고 전쟁을 조장하여 무기개발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뢰 대신 불신을, 사랑 대신 혐오를, 협력 대신 음모와 살인적인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들은 사회와 인류의 번영 대신 우리의 정신과 사회관계, 그리고 지구도 병들게 하고 온갖 종류의 차별과 양극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불안한 상태로 유지시키려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이 사용된 이래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유지되어 온 소위 공포의 균형은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의 균형 전략이 바로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연구개발을 정당화하는 틀입니다. 무기의 연구, 제조, 그리고 사용을 수반하는 군비경쟁은 심각한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멸을 재촉하는 자살행위일 뿐입니다. 1940년대 말 이래로 인류는 핵전쟁을 수반하는 제3차 세계대전을 간신히 비껴갔지만 지구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국지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우리의 부는 오히려 살상무기에 투자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강대국들, 특히 미국에 뿌리 내린 금융자본과 군산복합체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군비전쟁은 우리들이 아닌 소수 특권층의 이해만을 보호할 뿐입니다. 다국적 기업들과 강대국들로 구성된 이 특권계층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영토를 통제하거나, 세계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 군사력으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군사력을 행사합니다. 이 상위 1%는 무력뿐만이 아니라 기만과 협박으로 나머지 99%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우리 99%는 소위 ‘적’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명목 하에 이 전쟁광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판단을 유보하고, 국가안보라는 미명에 복종하고, 긴축정책을 받아들이고, 환경파괴를 받아들이고, 희생을 받아들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여성 평화 단체들 및 세계 각지에서 모인 평화 운동가들은 똑똑히 선언합니다. -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탐욕이 아니라 필요를, 악

이 아니라 선을, 폭력이 아니라 호혜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군비경쟁과 상호확증파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제거하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활동가들, 특히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 그 성과들이 촛불 혁명으로 발현되어 현재 한반도에 실현된 평화의 틀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남한의 활동가들이 보여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정전협정은 미국, 북한, 그리고 중국에 의해 1953년 7월 27일에 서명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평화협정으로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정 이래 지난 65년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과 대립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남한에만 15개,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더 많은 미군기지가 있으며 이는 지역 안정에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사드 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는 2017년 3월 시작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에 매우 높은 긴장상태를 조성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서명된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조약, 나아가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99%가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 우리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든 도발행위들을 반대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작은 한걸음일 뿐이며 반드시 전세계적인 비핵화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움직임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헌법, 인권, 민주주의를 유린해 왔던 군비경쟁담론과 기존 질서들을 정상화하는 단계들입니다. 바로 이런 논리가 안보라는 공공의 사안을 소수 엘리트들의 사적인 사안으로 변질시키고 우리들에게는 그저 순종을 강요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진척사항들은 지배엘리트들의 생각에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99%을 나락으로 몰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칭 우리의 수호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합니다. 군비경쟁을 지속시키는 이 시스템은 독점적 금융자본들이 공익을 위한 모든 노력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사회 전체를 위해 쓰지 못하도록 분산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노력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소비됩니다. 이 둘은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키지만 할 뿐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과 번영은 근시안적인 이익 추구, 환경파괴, 화석연료 중독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자신의 생존문제와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군비걱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현재의 생태적 위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99%에게 안보는 복지와 사람이 먼저인 공공의 사안입니다. 사회경제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정의의 문제이며 각 공동체들은 바람직한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수에 특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과 파괴로 이어지는 불합리성을 내재한 기존의 개발담론과 구별됩니다.

2부 패널발제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생명들을 위해 우리는 99%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가능한 또 다른 세상을 위해 평화운동과 생태운동, 민생운동을 아우르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과도 평화적인 공존을 하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 평화운동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세계를 핵무기로부터, 공포로부터, 탐욕과 혐오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의, 평화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웁시다.

라운드테이블

1주제. 여성과 군사주의

발제 1 Kalama Niheu

발제 2 Cindy Wiesner

발제 3 Lisa Natividad

발제 4 Medea Benjamin

1주제. 여성과 군사주의

발제 1) Korea Alliance for Justice

Kalama Niheu.
Ohana Koa-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Hawaii/USA

알로하 아이나. 칼라마오카'아이나 길순 니헤우 케이아.
 (안녕하세요. 칼라마오카'아이나 길순 니헤우 입니다.)

내 이름은 칼라마오카'아이나 (길순) 니헤우이다. 카나카 마을리는 조상을 기리는 의미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는 뜻으로 이름을 짓는 전통이 있는데 내 이름도 그 전통에 따라 지어졌다. '길순(Kil Soon)'은 내 어머니 쪽의 한국인 조상들을 기리며 나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내 가족은 1903년~1905년 사이 짧은 기간 최초로 하와이로 온 이들 중 하나이다. '칼라마오카'아이나(Kalamaoka'aina)'는 카나카 마을리 쪽의 아버지와, 내 부모가 만나게 된 칼라마 계곡 투쟁을 기리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칼라마 투쟁은 지금은 하와이 르네상스의 발생지이자 카나카 마을리의 문화와 종족의 부활로 인정받고 있다. 이 투쟁은 1893년 왕조의 전복 후 사람들이 죽도록 버려졌던 어둠의 구석구석을 재조명하는 우리의 투쟁을 고취시켰다. 지금 언급한 전복은 평화롭고 중립적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하와이 왕국을 상대로 1983년 미국이 소수 백인 기업가들의 요청에 따라 행한 불법 침략행위이다. 백년이 지난 1993년 11월 23일, 미의회는 이 전복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미국을 대표하여 하와이 원주민 공동체에게 사과하였다.

칼라마 계곡은 비참하게 파괴되었지만, 그 투쟁은 와이아홀레, 와이카네, 카하나 계곡, 카호올라웨를 포함한 하와이 곳곳에서 미국의 점령 반대 투쟁이 일어나도록 길을 닦아주었다. 이 지역은 1970년대에 파괴와 철거로 표시되었다가 투쟁, 점거 농성,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결국 보존되었다.

기후변화와 군대

카나카 마을리는 군사화의 강도와 미 제국주의 폭력의 표준화에 익숙하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오'아후에 있는데, 지구 표면의 50% 이상을 그 책임 아래 두고 있다. 그 지역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부터 인도 서쪽 국경에 이르고, 남극 대륙에서부터 북극까지 아우르는데, 36개 국가와 20개 지역 및 소유지를 감싸고 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 하와이 내의 연합군은 총 231,560에이커 면적에 113개 군사 시설을 갖고 있다.

내 고향인 오'아후에는 섬의 22%를 군대가 지배하고 있다. 탱크와 군대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늘어섰고, 군사훈련으로 불발탄이 대지에 가득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집회의 권리를 방해하며, 군사 기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자연적인 물줄기를 바꿔 버린다. 전쟁 연습 중의 폭발은 조업 활동을 정기적으로 방해하며, 우리의 땅은 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군사화된 지역에 살고 있는 점령당한 민족이다.

이러한 군사력은 해외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하와이는 종종 두 가지를 결합하는 모임을 개최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이펙(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과 림팩(RIMPAC,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을 들 수 있다. 림팩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제적인 해군 전쟁연습으로 군사력을 전시하고 훈련하며 교환하는 장이다. 림팩 휘하의 가장 끔찍한 훈련 중 하나는 현재 서파푸아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군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나의 고향에서 군대의 공격성이야말로 기후변화에 위험한 영향을 끼치는 사라지지 않는 적이다. “미국 국방부는 세계에서 단일-최고의 연료 소비자이다. 연료가격이 오르고 석유 공급이 제한되어도 군대의 연료 소비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차 대전에서 무장한 군대는 군인 1명당 하루 1갤런의 연료를 사용했다.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는 연료 사용이 4갤런 정도였다. 2007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에서 연료 사용은 16갤런에 이르러 하루 3백만달러 값어치의 연료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섬 가장자리를 잠식해 들어오는 굶주린 파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키리바티(Kiribati)섬과 토켈라우(Tokelau)섬의 우리 이웃들처럼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 태평양 섬들은 해수면 상승의 첫 번째 피해자로서 바다 아래로 사라지고 있는 누워있는 환초들보다 더욱 낮기 때문이다.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는 군 입대 예상 지수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요인이다. 호전적인 군대의 대열은 젊은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군 입대 외에 사회적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로 차 있다. 군대는 그들의 개인적 출세를 허용하는데, 이때 지배 계급보다는 군인들과 동질성이 더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의 고향이 태평양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억압과 착취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큰 비극이라 생각한다. 나는 단순히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의 억압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도 해방되기를 바란다. 이라크 전쟁이 개시된 후 군사훈련으로 군대가 작은 모스크(사원)를 중심으로 하는 무슬림 마을을 만든 후에 미군들에게 이 지역을 점령하는 방법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최근 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번에는 한국식으로 지어진 마을이 동일한 군사 훈련에 동원되었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기후 변화가 지구 전체의 임박한 위협이라는 데에 과학계가 역사상 처음으로 압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우리의 점령자인 미국은 기후 변화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실상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선주민 과학자로서 나는 비판적인 개입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요구할 것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카나카 마을리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은 대가족인 오하나(ohana)에 기초한다. 각각의 오하나는 아후푸아아(ahupua'a), 즉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 확장되어 바다 심해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파이 모양의 토지 구역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각각의 아후푸아아(ahupua'a)는 독립적으로 자체 유지가 가능했는데, 카네와이(Kanewai)라고 부르는 법률과 문화 규범의 혼합체제를 통해 의식주와 지역사회의 육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구비되었다. 따로 수입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이 시스템만으로 약 70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이것은 식량의 90%를 수입하고 있는 오늘날의 하와이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 22년간 나의 삶의 한 부분은 전통적인 칼로(kalo . 토란) 농사법을 지원하여 우리의 식량주권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당한 탄압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 비밀을 유지해온 칼로 농민들의 동맹에 나는 소속되어 있다. 1900년대 초에는 땅과 물을 빼앗겨 우리의 전통적인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었다. 과거 한때 식량이 넘쳐나던 농경지는 극심하게 줄어들었고 수출용의 설탕 농장이나 파인애플 농장으로 대체되었다. 카나카 마을리족에게 연상의 형제자매를 뜻하는 할로아(Haloa)로 여겨지며 존중받아 온 칼로는, 물줄기의 흐름이 평원으로 흐르지 않게 방향을 틀어버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말라붙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왜 식민지화로 인해 파괴되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땅과 사람과 자원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으로 힘을 얻었던 우리 민족은 미래에 대한 배려 없이 땅과 자원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과는 언제나 충돌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선조들의 궤적들을 재활성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글로벌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 타이티와 마샬군도에서 핵실험이 이뤄진 후 나의 가족은 '핵없는 독립된 태평양(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이라 부르는 태평양 일대의 힘 있는 동맹의 한 부분이였다. 나의 아버지와 다른 카나카 마을리는 1970년대 그 동맹의 지도력의 주역이었다. 우리는 핵으로 인한 멸망에 대한 공포가 군사화와 식민지화의 공포와 밀접히 연관됨을 이해했다. 최근 하와이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2016년에 시작한 스탠딩 락(Standing Rock) 투쟁에 결합했다. 스탠딩 락은 선주민이 주도하는 투쟁으로서, 신성한 물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산업의 억압과 파괴에 맞서 저항하는 것을 연결시켰다. 나는 스탠딩 락의 의료 치료사들의 협의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30명의 치료사들 중 한 사람이다. 글로벌 동맹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내가 이곳에 한국의 친지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글로벌 동맹 때문이다. 이것은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로운 중립국가로서 하와이의 역할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

다. 우리의 점령된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쿨레아나(kuleana) 즉 신성한 의무로서의 책임감을 여전히 믿는다. 나는 카나카 마을리이면서 또한 한국인이다. 그리고 나의 선조들의 피가 이 위대한 땅의 민중들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며 여러분의 현장 투쟁과 최근 통일을 향한 위대한 승리를 직접 목격하게 되어 영광이다. 평화를 향한 여러분의 깊고 변치 않는 요청에 발맞춰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을이 점령당하고 폭격당하고 포위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위험하고 메마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어 버린 우리의 고향을 보면서. 전진을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 되어 통합과 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말라마 포노 카코우(Malama pono kakou.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1주제. 여성과 군사주의

발제 2) Unresolved Korea War, Militarism in Asia and Pacific and Women's Resistance Roundtable

Cindy Wiesner
Grassroots Global Justice, USA

1주제. 여성과 군사주의

발제 3) Message from Guahan—the Trip of Spear of US Military Might

Lisa Natividad.

Grassroots Global Justice, USA

과한(괌) 사람들에게 작년 8월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최고조로 무섭고 겁나는 기간이었다. 나의 고향인 마이크로네시아의 섬은 일본군대가 점령하면서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의 교착점에 있어 왔다. 작년 여름 내내 공격을 기다리는 섬나라와 그에 무력한 차모르인들을 조명하려는 언론의 과열보도가 온 지역을 뒤덮었다.

과한은 미국의 비자치령(non-self-governing territory)으로 현대 식민지와 유사하다. 섬의 약 29%는 미국 국방부가 장악하고 있는데, 섬 북쪽 끝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하여 많은 군사기지가 있다. 이 기지는 B52, B1, B2스텔스 등 폭격기들의 무기 저장고이다. 이 항공기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사용될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미국과 대결하는 목표로 과한을 지목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2011년 태평양 피봇(중심) 전략으로 미국 국방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중심을 옮겨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을 봉쇄하려고 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세계적으로 70개 이상의 국가에 약 800개에 이르는 기지를 두고 있다. 태평양-피봇 전략의 결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그 지역에 미국의 군사기지 수를 늘리려는 거대한 계획 실행에 들어갔다. 몇 국가와 영토는 이 계획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 남단 오키나와에서의 헤노코 기지 건설; 한국의 평택과 제주 강정 기지; 하와이 포하쿨로아 확장; 필리핀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서명; 내 고국인 과한은 사드(THAAD)의 배치, 해병대의 재배치, 추가 핵잠수함의 배치 등 확대계획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잉 군사화는 주변 공동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군사작전 및 전쟁준비로 인한 낙후와 환경오염이 있다. 환경에 있는 독소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데, 암의 경우 특히 그렇다. 독소는 종종 PCB, 고염제, 다이옥신과 방사능 노출을 포함한다. 게다가 군대 폭력을 행사하도록 훈련 받은 젊은 남성들이 고도로 집중된 기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 군대는 기지 철조망 안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금 등 지역 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 지역 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기지를 위해 땅을 획득한 결과 토지 강탈이 생기는데, 이런 토지 강탈은 현주민들 및 전 소유주들의 경우에 자유의사, 사전 통보, 또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 등이 없이 이루어진다.

북한은 과거 과한을 위협해왔는데 이는 임박한 핵공격의 가능성을 알리는 경보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국토안전주의보를 동반한다. 이런 주의보에는 서있는 구조물에서 대피하는 법, 테이프나 비닐로 외부공기유입을 막는 법, 또는 방사능을 씻어내기 위해 헤어컨디셔너를 사용하지 않고 샤워할 것 등의 내용이 있다. 평화 활동가로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했던 나로서는 그런 천진난만한 경고를 듣고 매우 좌절했다. 우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핵공격의 증거들을 통해 현실을 알게 되는데, 가장 큰 도전은 핵폭탄 폭발에 뒤이어 하늘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불길이다. 서 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돔(A-Bomb Dome)이라 불리는 소방서가 하나 있는데 이 곳은 인류에게 핵무기의 파괴적인 영향을 상기시키는 곳이다. 게다가 마살군도공화국 사람들에게는, 방사능을 정화하거나 암과 같은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막기에는 인간의 기술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미국은 우리를 방어할 것이며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어서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어떤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15년 나는 우먼크로스디엠지(WCD)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 WCD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과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함께 구성된 평화만들기 전문인 여성들과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여 구성되었다. 이 방문으로 나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다. 먼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제재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런 제재들은 단지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할 뿐이고, 전쟁과 같은 행위이다. 인도적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고통을 인간이 겪도록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둘째, 북한에 군사화된 사회를 만들어 낸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 국경에서 행한 높은 수준의 일상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북한을 점령하는 통상적인 훈련을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과한이 겪는 위협들은 서방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도발행위들의 결과이다.

우먼크로스디엠지(WCD)의 목표는 우선, 평화를 위한 다리를 놓아 주어 두 국가의 평화협정을 지지 옹호하는 것이다. 올림픽 휴전과 최근 남북간 정상회담은 평화를 향한 단계이다. 우먼크로스디엠지(WCD)는 한국전쟁을 끝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목표와 함께 지속적인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미국이 최근 B2 스텔스 폭격기를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해놓은 것은 북한의 반감만 불러올 뿐이다. 과한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을 줄이려는 목표에 역효과를 낳는다.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북한에 관여방식의 전략을 다시 생각해보고 외교와 평화적인 대화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한반도 긴장을 해결할 유일하고 진실한 방법이다. 나의 과한 사람들과 한반도 남북의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1주제. 여성과 군사주의

발제 4) Women Say, "Disarm, Disarm"

Medea Benjamin. CODEPINK, USA

이런 국제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서로에게 배우고 영감을 주고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몹시 불만스러워 했었고, 우리의 오바마 대통령을 매우 존경했었습니다. 2년이란 짧은 시간 후, 거대한 풀뿌리 운동에 의해 박근혜는 현재 감옥에 갇혀있고, 권력 남용, 뇌물 그리고 강압학대의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한반도 평화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외교의 달인인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께서 선출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제 형세가 일변했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적, 성차별적이고, 이기심이 강하고, 부도덕하며, 무모하고 위험한 미국 대통령에 대해 몹시 불만스럽습니다. 그가 박근혜처럼 뇌물, 강압학대로 기소된 탄핵소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풀뿌리 저항운동이 그를 대통령직에서 몰아내기를 원하지만, 삼류 드라마 속에 비춰진 미국의 정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을 결국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포르노 스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체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부작동적인지를 보여 주는 자이지만, 우리나라 미국은 폭력과 군국주의에 기반을 둔 나라입니다.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흑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 전역에 800개 이상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나라. 미군은 현재 7개의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작년에 미군 특수 부대는 138개 주, 즉 전 세계 국가의 70%에 달하는 곳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세계 최고의 무기 거래상이지요. 2002년과 2016년 사이에 미국의 무기는 167개 국가(전 세계 국가들의 85% 이상)에 전달되어 분쟁, 죽음, 파괴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와의 판매 규제를 풀어 미국의 무기판매를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 군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러한 운동에 동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6년에는 평택으로 파견되어 그곳의 마을 사람들이 매일 미군기지 확장을 막기 위해 싸웠습니다. 미군 장교

들을 위한 골프코스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미군기지 확장은 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을 파괴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군대는 마을 사람들이 소득을 박탈당하고 강제로 떠날 수 있도록 밭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미군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미국 정부가 그들의 땅을 훔치고 생계를 파괴하고, 그들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을 직접 보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단호하고 끈질기게 조직한 저항운동을 보는 것도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그 캠페인이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 투쟁은 평택을 넘어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미국에서 생산된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반대하는 공동체와 연대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제가 이 고요한 동네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가능성의 십자포화 속으로 몰아넣는 군국주의의 악순환의 일부라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벌인 연중 무휴시위, 매일 밤 촛불집회, 전국에서 온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주간시위에 우리는 감탄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대부분 80대 여성들이었고, 그들의 에너지와 매년 매달 계속해서 시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운 좋으면 항의시위를 2년이 아닌 이틀 동안이나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끈질김에 대해 말하자면, 제주 강정 주민들이 기억에 떠오릅니다. 2007년부터 북한과 중국을 위협하고 미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미 이지스 함을 수용하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을 만나러 다녀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인들의 저항운동이 경외스러웠습니다. 그 운동은 의식, 기도, 예술, 춤, 시, 꼭두각시, 음악 그리고 많은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의 지지를 끌어 모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방문객들과 함께 이 추한 기지 옆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해녀의 지출 시간이 다가와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명한 해녀들은 차가운 물에서 전복, 각종 해물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일제 때 치열한 저항을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돌고래 학교와 함께 수영을 했고, 바다, 산호초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하에 있는 보기 흉한 콘크리트 벽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지속해 온 군국주의 저항운동은 남북한 간의 평화회담,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회담을 통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자기의 업적이라 평가하고 싶어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

람들이 수십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 30명이 함께 DMZ 비무장 지대를 넘어 남한으로 갈 때 함께 꿈꿨던 일이고, 한반도 양측 여성 단체들과의 만남에서 이산가족 상봉, 평화조약, 무역관계, 궁극적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들 중 일부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릴이 넘칩니다.

그러나 평화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군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평생의 투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도 또한 끝없는 전쟁상태에서 인생 보호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들에서 수십억을 빼앗아가는 무장 시스템의 희생자들입니다. 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강력한 분야는 무기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드 핑크(CODEPINK)는 도시, 대학 그리고 연금기금에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 위한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성주를 방문했을 때 사드 시스템을 만드는 대형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사의 최고 경영자 마릴린 휴슨에게 메시지를 찍어 달라고 몇 명의 여성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휴슨씨는 무기회사를 운영하는 몇 안 되는 여성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1년에 2천만달러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무기를 팔아 큰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메시지는 아름다웠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은 네 것이랑 비교도 안 되겠지만, 내 인생은 네 것보다 훨씬 풍성하다. 왜 그런지 아니? 나는 다른 엄마의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 내전 직후인 1870년에 "어머니의 날 선언" 을 쓴 줄리아 워드 하우라는 미국 여성의 정서입니다. 약 70만 명의 군인을 사망하게 한 미국내전 후 줄리아는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을 보고 어머니들이 전쟁 중 참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기를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아들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가르친 후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데려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한 나라의 여자인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여자들의 자식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들들을 다치게 하는 훈련은 허락하지 않는다. 폐허된 대지의 심장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올려온다. '군축하라, 군축하라!' 라고 말한다. 살인의 칼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다."

줄리아 워드 하우가 150년 전에 충고한 것처럼, 대륙을 가로질러 여성들과 만나고,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외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라운드테이블

2주제. 여성과 인권, 평화만들기

발제 1 김민문정

발제 2 Alice Nderitu

발제 3 장이정수

발제 4 Mavic Cabrera-Balleza

발제 5 Katherine Ronderos

발제 6 Yifat Susskind

2주제. 여성과 인권, 평화만들기

발제 1) #미투운동, '피해자의 침묵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필요 없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한국전쟁 휴전 65년.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 이를 시작으로 북·미, 한·미, 북·중, 한·중·일정상회담 등 발 빠른 정상들 간의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스페틀라나 아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¹⁾는 말처럼 평화도 또한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음. 남성들만 보이는, 남성중심적 관계만 존재하는 남북정상회담 사진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줌.
- 최근 #미투운동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과정에서 있었던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들로 이어지고 있음. '여성'이 삭제된, '여성의 경험'이 삭제된 세상에서의 여성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현재의 #미투운동임. #미투운동은 성차별·성폭력이 없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침묵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필요 없다.'는 구호가 상징하듯 평화를 여성의 얼굴로 바꾸기 위한 운동임. 여성혐오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의 평화를 잃은 여성들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직접 행동.

1. 2018 #미투운동의 시작

- 2018. 1. 29. JTBC 뉴스룸을 통해 '검사'의 성폭력 피해와 이후 이와 관련한 인신상 불리한 처우 당한 사실 증언함.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인가... '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데 8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함.
- 1) 촛불 혁명 과정에서 대중적 신뢰를 획득한 언론, 2) 한국사회에서 절대 권력자인 '검사'의 경험, 3) 자신을 드러낸 공개적인 말하기, 4)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메시지의 힘 등 복합적 요소 작용으로 엄청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을 만들어냄.
- 이후 온라인, 언론, 오프라인 공간을 통한 #미투 증언들이 이어짐.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의미화하고 말하기 시작함. '미투에 용기 얻었다.' 기존의 성폭력 상담 창구에 상담 증가. 온라인 증언 공간 생겨나고 학교 등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의 말하기 확산.

1)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한 생존 여성 200여 명의 인터뷰를 담은 책

- 이러한 과정에서 고은, 이운택, 김기덕, 조민기, 조재현, 안희정 등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개적인 증언들이 이어짐. 정치계, 문학계, 연극·영화계, 언론계, 체육계,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학교, 일터 등 여성들의 일상의 삶이 구성되는 모든 영역, 공간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남.

2. 2018 #미투 운동을 둘러싼 한국의 성차별 현실

-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분야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8위임. 경제 참여·기회 부문은 121위(유사업무 임금 평등 항목), 교육 성과부문 105위, 정치 권한 부문 90위, 보건 부문 84위. 정치부문은 성과 지수로는 26.5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추정 근로소득 수준은 남성이 연 5,494만원인 반면 여성은 절반도 안 되는 약 2,457만원. 남녀임금격차 OECD회원국 중 15년 동안 최하위 기록. 남성 정규직 100일 때 여성 비정규직은 36 수준. 공공기관 등의 명시적 성차별 문제 만연.

-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간, 성폭력 등 한국의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임.

- 일베, 소라넷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심각한 여성혐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문제. 분단과 군사문화, 군대 문제를 둘러싼 남성들의 불만이 여성혐오형태로 표출. 데이트 폭력, 사이버 폭력 등 여성폭력 심화.

- 2010년 저출산 대책과 맞물리면서 낙태병원 고발 정국, 이후 관계 지속이나 금전적 이유로 전남자친구 등이 여성을 낙태죄로 고발하는 사례 발생. 2016년 정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인공임신중절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위반시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자격 정지 내용 포함. 의사들의 수술 중단 선언과 여성들의 검은 시위.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인구조절 수단으로 삼으려는 국가의 태도 심각.

3. 언제나 #미투는 있었다. 2018년 #미투 운동의 맥락

-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1991년 일본군 성노예제 증언과 이후에 이어진 증언들, 1993년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1994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이후 반성폭력 운동 역사 속 무수한 #미투 존재.

- 2015년 2월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와 이후 메갈리아의 탄생, 2016년 ‘#나는 페미니스트다’ 해시태그 운동,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여성들의 일상 속 성폭력과 성차별 경험에 대한 말하기. #OO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등.

- 2017년 강남역 1주기, 민우회 해시태그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 #변한 것은 ‘나’, ‘여성 자신’ #변하지 않은 것은 ‘사회’

: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2017년 촛불 혁명, 적폐 청산을 통한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 더 확장된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민적 자각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가장 심각한 적폐로 ‘성차별’, ‘성폭력은 성차별의 결과’라는 인식. 여성의 시민적 권리의 관점에서 성폭력과 성차별 인식.

: ‘민주주의를 외치는 현장에서조차 성폭력을 당해야 하는가?’

- 민주주의 확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그에 대한 분노.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적폐,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의 형성.

- 이 과정에서 ‘더러운 잠’, ‘DJ DOC 공연’, ‘평등한 집회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승리의 경험들 축적.

-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 확산.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낙태죄, 성별임금격차 등 페미니즘 이슈의 부상과 대중적 지지 등 변화의 경험을 함.

- 2018 #미투운동은 1) 페미니즘으로 각성한 여성주체, 시민적 주체로서의 여성 존재(주체적 조건), 2) 촛불 혁명 이후 확장된 민주주의, 더 넓고 더 깊은 민주주의, 확장된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민적 개혁 의지 및 인식, 전지구적 #미투 운동의 확산(객관적 조건), 3) 서지현 검사의 공개적 증언에 따른 대중적 파급력(상황적 조건) 등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

- #미투운동은 성폭력 피해 경험은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통념을 공개적인 말하기를 통해 뒤엎는 운동. 성폭력은 개인의 피해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 사회적 정의를 훼손한 범죄임을 확인하는 운동.

- 2018 #미투운동은 개인의 경험과 피해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인적 문제해결을 위한 폭로나 고발을 넘어 더 이상 성차별·성폭력이라는 가부장적 통제와 지배의 굴레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몇몇 ‘괴물’의 격리가 아닌 성차별적 구조를 근본부터 뒤집는 구조개혁운동.

- 여성들 스스로 없는 시스템은 만들고 고장난 시스템은 고쳐서 성차별적인 세상을 바꾸겠다는 대중적인 개혁 운동이자 젠더혁명.

- 그래서 #미투는 개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폭로자’(또는 고발자/피해자)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증언자, 공익적 문제제기자, 공익 신고자임.

- 2018 #미투운동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기 전에는 끝낼 수 없는 젠더혁명임.

4. #MeToo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확장

- 「#MeToo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결성과 활동

- #미투 초기 안태근, 안희정, 이윤택, 조민기 등 사회적 영향력과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증언이 확산되면서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연일 각종 언론을 통해서 우월적 권력관계에서의 다수의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짐.
- 성차별·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사회적 인식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대중적 지지와 공감대 확산.
- 그러나 개별 사건 중심의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가해자들, 그리고 #미투 국면의 전환을 노리는 남성연대에 의해 백래시가 심각하게 발생.
 - :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음모론 등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2차 피해
 - : 김어준의 음모론, 홍준표의 기획설, ‘진짜’/‘가짜’ 성폭력, ‘정봉주의 특종 욕심’ 등
 - :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 책임론, 피해자상 등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편견 이용하여 증언자를 미투 운동과 분리, 개별화, 파편화 시도
 - : ‘권력형’ 성폭력, ‘갑질’ 성폭력 등 성폭력 문제의 본질 왜곡 현상
- #미투 운동의 공익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성차별적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추진 위해 개별 단체 및 여성단체 중심의 대응 수준을 넘어 전 사회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동시에 #미투 운동에 대한 백래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3월 15일, 34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들과 160여 명의 개인이 참여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출범함.

■ 목표 및 방향

-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한다.
-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한다.

자료 출처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2018분 이어말하기2), 4차례의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 등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차별과 성폭력 현실들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1만인 선언을 진행함.

2) 2018년 3월 22-23일 2018분 동안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행사. “2018년 올해에는 반드시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겠다.”는 의미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10대부터 70대까지, 이주민, 청소년, 노동자, 활동가, 조력자, 학생, 기혼, 비혼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194명의 발언자들이 집 학교 동네 직장 여성들의 일상 곳곳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경험 증언. 부대행사인 <대자보광장: 너에게 보내는 경고장>에도 내가 겪어온 성폭력·성희롱 연대기, 아주 오래된 고백, 나의 선언문 등등 #미투#위드유 대자보 등 3백여 개의 대자보 게시됨.

- 1개월 동안 상황실을 설치하여 #미투 사건 및 언론의 보도 태도 등에 대한 입장 표명, 시민행동의 소식,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 공유 등을 일일브리핑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아카이빙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 「#MeToo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각계 조직 및 대응 확산.

- 이운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사건 대책위,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 등 #미투 증언 개별사건 중심으로 한 다수의 대책위 구성 및 대응활동.

- 개인, 시민단체, 학회, 협회, 학생회 등 모든 영역이 망라된 #미투 지지 선언.

- 부산, 대구, 광주, 구미 등 전국 지역단체의 미투 지지선 언 및 연대 조직 구성, 대응 활동.



- 반성폭력운동 단체들의 다양한 #미투운동에 대한 연대와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 진행.

5. #MeToo 운동이 바뀌어야 할 법·제도

- 성폭력 범죄의 낮은 신고율, 처벌율, 강간의 개념, 판단 기준 바뀌야

- 성폭력 피해 여성의 2.2%만이 경찰에 신고. 낮은 신고율은 가해자 처벌의 불확실성, 피해자 비난, 보복의 두려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기인. 1)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2013년 6월 시행), 2) 법정형 상향, 3)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등 보안처분 강화 정책은 실제 처벌가능성을 높이기보다 성폭력범죄의 선별과 피해자 의심, 처벌 기피로 이어지고 있음.³⁾

-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은 분명한 처벌이 되지 않는 현실과 연결. 성폭력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함. 분명한 처벌은 강력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처벌의 상한을 상향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하한을 높이고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여성폭력은 남성에 비해 종속적인 여성의 위치와 그들의 전형적인 역할이 영구화되는 근본적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여성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누리는 데에 폭력이 심각한 장애물”임을 명확히 하며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온전성에의 권리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⁴⁾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의 보장과 이의 침해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성폭력을 정의.

- 한국은 ‘정조’라는 봉건적 낡은 인식의 틀 안에 갇혀 있음. 1953년 만들어진 형법에서 성범죄를 규정한 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 반성폭력운동을 통해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장의 제목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폭력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동반될 때’에만 성폭력범죄로 인정.

- 피해자는 ‘정조’를 잃은, 훼손된 몸을 가진 부끄러운 존재 취급.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 용기 내어 피해를 드러내도 끊임없이 의심받거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었음.

- #미투운동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여성,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이기를 거부. 당연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인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 성적 침해로부터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여성의 관점으로 성폭력범죄를 구성하고 판단되어야 한다고 요구.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가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형법 개정.

: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는 장의 제목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

: 강간의 개념을 ‘명백한 동의 없는 성적침해행위(비동의간음추행)’를 기본으로 설정

: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현행 「형법」 제297조)와 소속된 집단 내부 권력관계로 인한 무형의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형법」 제303조)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처벌

: 위의 변경을 기준으로 현재 형법의 법정형 조정

: 기존의 이성애, 성기 중심의 성폭력 개념 규정도 새롭게 정의

3)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 [대한민국 권리 실태 및 권고사항 UN CEDAW에 제출하는 NGO보고서 제69차 회기]

4) 일반권고 35호 <여성에게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성폭력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 이력 사용 금지

- 무고, 명예훼손 고소 등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대책.

- 2016년 OO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참여자 등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 등 2차 피해 사례 존재.

- 한국에서는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가 가해자의 무죄 주장을 위한 쉬운 선택지가 되고 있음. ‘꽃뱀’ 논리를 이용하여 피해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됨.

- 2018. 3. 9. CEDAW 권고 ‘(c)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와 같이 형사소송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방어를 위한 무료 변호 보장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성 이력에 대한 증거사용을 금지할 것’.

- 무고죄 고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⁵⁾에서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 마련’을 권고했고 대검찰청에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여 내용 반영함.

- 무고죄 기소요건의 국제기준(국제경찰장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2005. p.6)은 ‘1) 완전하고도 철저한 조사/수사의 완료, 2) 어떠한 성폭력도 발생하지 않았고,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는 증거의 제시, 3) 피해자의 행동/태도를 두고 무고 여부를 판단하지 말 것’임⁶⁾.

- 일관되고 신중한 성폭력 무고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와 판단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내부의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필요함.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범죄나 비리행위에 대한 공익적 문제제기의 목소리를 지우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수사와 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형법 310조)를 적극 적용한다.’고 3·8 정부합동대책에 발표됨.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응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 이에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임.

- 직장 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실효적 접근 필요

- 직장 내 성폭력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어렵고 제대로 된 처벌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드러내지 못함.

: ‘잘릴까봐 두려워서’, ‘취직하기 어려운데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라’, ‘경력이 짧아 이직이 어려워’,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말하기 힘들어’, ‘내 나이에 어디 가서 이 월급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남편이 아파 내가 일해야 하는데, 얘기하면 일하기 어려울

5) 서지현 검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 행위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무부장관 산하 대책위원회

6) 허민숙, 2016, 한국여성학 32권,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인용

것이라’ 또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나 ‘오히려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 ‘개인 간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 취급을 하고 ‘쉬쉬 하며 넘어가려’, ‘너를 아껴서 그랬을 것’, ‘작은 일에 예민하다’는 비판,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골칫덩이’ 취급 등(김명숙, 20180226 #미투운동 긴급토론회 토론문 중)

: 3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0건 중 1건에 불과하고,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 0.5%에 불과함. 사업장 내 책임자인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으로 13%에 그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제재가 가해진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됨. 또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해서는 2012~16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함.(손영주, 20180427. ‘바꿀 것은 성희롱 법·제도 너머에 있다 : 일터에서의 젠더정의를 위해’ 포럼 토론문 중)

- 다수의 #미투 사례들이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 이에 대한 실효적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 있음.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를 드러낸 후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은 것이 문제. 이에 대한 정책 대안 필요.

- 징계 해고 등의 명시적 불이익 조치 외에도, 불리한 인사 조치나 계약 갱신 거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불이익 조치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야 하고 근로감독관, 검사가 고평법 14조6항에 열거된 불이익 조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함.

-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3개월, 6개월 등 단위로 후속 관리감독을 하여, 피해자의 회사 내 지위에 불리함이 없는지, 가해자가 오히려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인사 조치를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관리 감독할 필요 있음.

- 수습, 인턴, 계약직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취약한 고용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에도 더 취약하게 노출되는 상황을 보완해야함.

- 불이익조치에 대한 형사 처벌 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 명령이 동반될 수 있게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 성차별·성희롱 사건을 전담하는 고용평등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업무와 연계된 전문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함.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과 지청에 고용평등과를 설치하여 진정한 고평법 집행과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축.

- 근본적으로 일터에서의 성평등 확보가 해법. 여성 관리자 비율 늘리기, 채용 차별 시정,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직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위계가 성별화되는 구조 자체를 흔드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 기반이자 결과로써 사업장 안에서 더 많은 여성이 세력화 되는 것.

- #문화예술계 성폭력 증언자가 ‘배우에게는 배역을, 작가에게는 지면을, 화가에게는

전시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음. 문제가 된 조직의 보조금을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에게서도 일할 공간을 뺏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정부가 증언자들에게 공익제보자로서의 위치에 걸맞은 보상을 해야 함. 자신의 일터에서 더 굳건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6. #MeToo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 성차별적 구조 개혁을 위한 국가적 해결 모색, 거버넌스 통한 내실화.
- 문재인 대통령 미투 지지선언, 범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 진행. 문화계, 교육계 등 #미투 흐름 속에서 관련 부처별 대책위가 꾸려졌고(교육부, 문화부, 법무부, 경찰청 등),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 범정부 협의체 등이 구성되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 정치인, 정당,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도 미투 지지, 구조적 해결방안 모색 표방.
- 범정부 차원의 구조적 해결 노력에 반성폭력운동 단위들도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성차별·성폭력문제를 여성의 문제, 부문, 영역의 문제로 다루려는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함.
- 성평등의 가치를 국가 운영의 비전과 가치로 명확히 하고 분명한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함. 헌법 전문에 '성평등'의 가치를 분명하게 포함해야 하고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조치를 정치·사회·경제·교육·문화·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시해야 함. 국가 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성주류화를 이뤄야 함.
-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기반(성평등추진체계)을 마련하고 모든 영역의 성주류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투입계획도 마련해야 함.
-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교육 안에 성평등교육을 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지금처럼 과외수업 하듯이 성평등교육을 해서는 안 됨.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임. 이 가치를 반드시 공교육 시스템 안에 담아야 함.
- 립서비스에 머물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재정 투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출될 필요가 있음.
- 이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과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의 주체로서의 역할 고민하고 있음.
- 성차별적 구조, 문화, 인식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적 해결 방안 모색.
- 범죄 행위를 한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피해를 드러낸 후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증

언자들의 불이익 과정에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수 연루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남. 몇몇 ‘괴물’에 대한 분명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조직 구성원 모두가 ‘괴물’을 만들었던 구조와 문화를 성찰하고 그 과정에 모두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

-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사건들의 사건 해결방법 유형을 살펴보면, 공동체 내 해결을 고려하는 내담자 비율이 44건(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과를 받거나(26건, 20.0%) 가해자교육(18건, 13.8%)을 선택하는 비율이 뒤를 이었음. 많은 피해자 및 조력자들이 사건이 발생한 공동체 문화의 문제를 감지했으며,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공동체가 나서서 성폭력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성폭력이 용인되는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

구분	건수	비율
가해자교육	18	13.8%
사과	26	20.0%
제명, 해고	9	6.9%
휴학, 휴직	6	4.6%
감봉	0	0.0%
피해보상	7	5.4%
공동체 내 해결 고려	44	33.8%
기타	20	15.4%
계	130	100.0%

〈2017 성폭력 해결방법 - 개인, 공동체〉 (단위: 건/ 중복집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무엇이 문제이고 처벌이 필요한 행동인지 구분하고 분명한 처벌의 과정이 필요함. 그런 과정이 없는 격리는 위험. 가해자의 완전한 격리는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의미를 확인하고 정의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변화해야 할 지점을 찾아야 함.

- 그리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

- 1월 29일 이후 전사회적 관심 속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투지지 선언이 있었고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심은 저조함. #한국사회가 중요한 변화를 이뤄야 할 시기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들의 역할로 고민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 여전히 여성들의 문제, 부문으로서의 여성운동의 과제로 인식함.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미투 국면 이후에 페미니즘에 대한 심각한 백래시 현상 확인됨. #미투와 백래시 문제를 어떻게 연결하고 싸워갈 것인가?

: 대학에서 페미니즘 강연이 취소되거나 장소 대관이 불허되는가 하면 페미니즘 동아리를 못하게 하거나 홍보지를 훼손하는 행위 일어남.

: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수집한 페미니즘 백래시 사례, 총 182건. ‘미투를 지지하는 의견 내거나 여성인권에 대해 말해서(62건)’, ‘카톡프로필을 ‘Girls can do anything’이라고 했거나 이 문구가 들어간 핸드폰케이스나 티셔츠를 입어서(34건)’, ‘SNS에서 페미니즘 글을 RT 또는 마음찍기하거나 여성단체를 팔로우해서(19건)’, ‘페미니즘을 공부하거나 책을 읽었다고(15건)’,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거나 홍보한다(6건)’는 등을 이유로 여성들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하’거나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고 해고되’기도 하고, ‘독서시간에 책을 읽다가 선생님께 책을 뺏기’고, ‘동아리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행사 대관을 취소당하는’가 하면, ‘뺏지를 떼라는 선생님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내봉사와 예정된 전시가 무산되는’ 피해 입음. ‘메갈’이라고 낙인찍히고 온갖 욕설과 혐오의 말,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 표현의 자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 침해당함.⁷⁾

7) 한국여성민우회, 2018.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백래시-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자료

2주제. 여성과 인권, 평화만들기

발제 2) What are the challenges for women working as mediators? What are the lessons learned from their experiences? Are there success stories we can build upon?

Alice Nderitu
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Kenya

2주제. 여성과 인권, 평화만들기

발제 3) 한국의 에코페미니즘 운동과 한반도 평화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대표

성장-소비사회에서 생태-자급사회로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한국 현대사 뿐 아니라 세계사에 서도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회담을 통해 전쟁을 끝 내지 못한 한반도에 종전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회담에 모습을 비친 극소수의 여성참여와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공천 지도를 보면 여전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평화, 안보, 외교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과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인 권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유엔안보리결의문 1325호를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북한이 최근 17년 만에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상국가로서 발돋움하려는 노력을 통해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는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통 해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은 다르지만 박근혜의 ‘대박’과 유사한 경제적 접근만을 강조하고 북한을 통해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으려는 입장을 견제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평화 공존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조 없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 철도를 놓고 관광업이 활성화되는 것, 각종 서비스업 등 시장이 확대되는 것으로 대체되지 않길 바란다. 한국의 기업이 아시아 등으로 진출하여 보여준 기업윤리와 국내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경제, 환경, 사회 분야 등의 지속가 능발전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되돌아볼 때 북한과의 관계는 신중하고 신중하게 돌다리 를 두드리며 가야할 길이다. 성급하게 가선 절대 안 될 것이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는 상식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진보나 보수, 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역시 성장주의를 열망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와 소비는 모두의 꿈이고 정치적 선으로 간주되고 있다. 진보세력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이 평등한 분 배가 가능한 복지국가를 모델로 하고 있다. 어느 쪽이나 다 성장이 고도화된 국가이다. 유럽식 복지국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7개가 되어도 불가능하다는 간디의 말이 너무 구닥다리처럼 들리는 상황이다. 70년대 이후 성장의 한계, 리우환경회의, 지속가능

발전회의 등 인류가 빈곤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기본적인 생존조차 해결되지 않는 그 원인 자체가 선진국들의 화석연료 소비에서 비롯된 기후위기와 생산력의 고도화 성장주의에 있는데 여전히 선진국 따라잡기 모델을 우리는 고집하고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정당화하는 경제모델은 일부 국가의 위기를 다른 나라에 전가하는 방식이다. 수 천 번의 원자력실험으로 인한 지구의 방사성물질 오염,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오염, 미세플라스틱과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과 오염 등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그 원료가 되는 자원이 무한하다는 전제 하의 경제시스템이다. 오일피크와 같이 지금의 문명이 기반한 화석연료 역시 한계가 명확함에도 자연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고체계인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균형과 현재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평등이 필수적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고의 전환도 요구한다. 지금 당대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미래세대와 자연을 선택의 기준으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모델을 세계로 확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류의 20%만이 가능한 모델이다.

어쩌면 우리는 13만 명이 결핵이고 식량 부족과 산림이 황폐화된 가부장제적인 사회체제의 북한보다는 남한의 경제 활로로서 북한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지금 한국사회의 저출생과 성평등, 환경 파괴, 도시 집중과 빈부격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GDP 중심의 양적 성장보다 분배 중심의 질적인 성숙을 우리 사회가 꿈꾸어야 할 때다. 인구절벽이나 저출산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인구의 감소가 아니라 소비인구의 감소이며 소비능력이 없다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노동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소비인구의 감소는 자본의 걱정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화된 삶의 공동체와 삶의 공간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상품화되고 공동체가 부재한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상호부조와 돌봄의 생활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적정의 생산과 소비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는 없는지 말이다. 상품화하고 여성에게 전가했던 돌봄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돌봄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급의 능력을 어떻게 더 키워가야 할 지 고민할 때다. 탈성장만이 지금 우리에게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평화공동체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여성환경운동 역사

에코페미니즘, 생태여성주의 운동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여성과 자연을 같은 논리로 억압하고 착취해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60년대 이후 에콜로지와 페미니즘이 서구에서 주목을 받으며 대안적 세계관으로 시작되면서 70년대 이후 페미니즘과 생태주의가 결합하여 에코페미니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여성이 더 자연에

가깝고 친밀하다는 이유로 여성의 우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이 초역사적이고 초문화적인 현상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통해 돌봄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의 연관성을 필수적인 삶의 조건으로 더 많이 깨우쳐 왔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안운동의 주체로 인식해 왔다.

생태주의는 근대 이후 인류의 생존을 위해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과 함께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적 사고였다. 자본주의적 성장주의가 지속되는 한 생태주의가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고 성장담론 속에서 여성들은 영원히 다수의 남성들과 함께 사회의 비주류가 되고 있다. 극소수의 여성들만이 명예남성이 되어 대다수를 낙오자로 만드는 신자유주의의 승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자연을 존중했던 동양에서 끈질기게 여성차별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생명존중 사상이 곧바로 성평등에 기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생명존중은 여성차별 위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에코페미니즘은 페미니즘과 생태주의를 어느 하나에 귀속하지 않는 운동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성장주의에 기반한 한국사회가 세계자본주의의 편입과정에서 여성들의 환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연구자는 문순홍 선생님이었고, 2001년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의 역사를 4단계로 분류하였다.⁸⁾

여성환경운동의 전사(前史)인 1기는 1964년부터 1986년까지로 구여성단체들이 정부에 협력하여 진행한 환경보호 활동시기였다. 재래식 화장실 및 부뚜막 개량 사업 등의 위생관련 사업, 꽃 심기, 나무에 팻말 달기, 쓰레기 줍기, 합성세제 정량 쓰기, 포장쓰레기 줄이기 등이 주요 활동이었으며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여성이 주체가 되는 운동은 아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 여성환경운동이 등장하고 형성된 2기는 1987년부터 1995년까지로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실시한 주부아카데미와 공해추방시민협의회의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 환경활동가들이 배출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여성이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여 여성단체 내부운동인 생협운동이 시작되고 상봉동 진폐증 사건, 소각장 대책위, 골프장 반대운동, 영광 원전의 무늬아 출산(88), 골프장 캐디들의 기형아 출산, 낙동강 '폐놀 피해 임산부 모임' 등 지역 환경오염과 생활 이슈를 중심으로 주부들의 환경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전시회, 감시고발, 정책대안 제시, 직접적인 캠페인 활동이 전개되는 시기이다. 지역여성운동은 새로운 여성환경조직의 등장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주부모임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소비분야에 제한되기는 했지만 여성단체들이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시기이다.

8) 문순홍, 한국의 여성환경운동, 아르케, 2001

세 번째는 여성 환경운동의 확대재생산 및 변이의 3기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여성환경운동의 주된 유형들 중 소각장 및 골프장 건설 반대 등 지역 개발 반대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생활과제 운동도 성장하였다. 1999년에 여성환경운동가와 여성운동가, 연구자들이 연대하여 여성환경운동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여성환경연대를 만들어내었고 지역여성들은 주인의식 및 권리의식이 형성되고 여성의 힘에 대해 인식하고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대안창출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지방의회 감시 등 지역 정치 세력화에도 일정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 여성들은 가부장제적이고 비민주적인 지역사회를 경험하며 운동의 조직 및 대응방식에서도 남성과 차이가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성의 부족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 관점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 조직 내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한 환경분야의 여성들의 참여와 전문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네 번째는 1999년 이후의 질적 전환의 모색기로 여성의 시각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신자유주의 속에서 어떻게 저항 담론으로 새로운 사회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의 과제 속에 있다. IMF 이후 경제가 위축되면서 사회 대안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가 신자유주의적 열망으로 대체되면서 우리는 두 번의 현대건설 사장과 박정희의 딸을 소환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보수화되고 시장화되는 사회 흐름을 바꾼 것은 첫 번째가 2008년의 촛불소녀들과 소울드레서, 82cook, 유모차부대 등의 평범한 여성들의 등장이었고 두 번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운동과 밀양 송전탑 주민들이었다. 둘 다 훈련되고 조직된 시민단체가 아닌 평범한 소녀들과 여성, 밀양의 할머니들, 방사능을 우려하는 주부들에서 촉발되었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흐름 속에서 운동의 주체와 과정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1999년 이후 여성환경연대의 활동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부터 19년 동안 환경단체 여성활동가, 여성단체 활동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환경운동 안의 가부장제를 극복하고 환경정책의 성인지성을 살피며 여성들의 리더십 강화 등을 위한 네트워크를 목표로 활동했다.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성인지 관점의 환경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의학적으로 인간의 기준은 남성이고 여성은 자궁, 유방 등을 가진 출산이나 양육의 도구로 여겨진다.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의 관점의 도입과 늘어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적 감시,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에서 여성의 참여와 권한, 성별영향분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

의 몸과 특성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개선을 요구하고 개발정책으로 인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감시와 정책적 노력 등을 하고 있다.

둘째. 여성의 몸과 월경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과 정책 제안 활동이다. 여성의 몸을 똑같이 생산성의 기준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의 몸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자연에 가까울수록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장품 사용과 높은 성형과 다이어트 등 몸의 위계화와 상품화가 심하고 유방암과 자궁 관련 질환 증가와 월경과 여성의 몸을 혐오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경제 성장 이후 아토피가 증가한 것처럼 환경 영향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연구와 정책적 노력은 미미하다. 2017년 일회용 생리대의 위해성을 사회에 제기하여 월경을 사회문제로 드러냈으며 일회용생리대 전성분표시제와 역학조사, 여성용품 관리 등으로 확장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전성분제표시와 화장품 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을 이끌었고 굿바이 아토피, 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그린리본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연대 등 여성과 어린이에 집중되는 건강 문제에 관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셋째. 성장과 소비사회에 대한 성찰을 위해 대안사회캠페인을 지속해왔다. 소비를 줄이고 자급의 힘과 관계를 늘려가는 슬로우 라이프운동으로 다양한 운동을 확산했다. 한 달에 한번 전깃불을 끄고 촛불을 끄는 캔들나이트와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내 컵을 들고 다니자는 위더컵 캠페인, 학교와 마을공동체에서 자연과 건강한 먹거리를 배우는 도시텃밭, 도시농부와 요리사가 함께 만드는 도시장터 마르쥬@ 등 지속가능한 도시와 대안적인 문화를 상상하고 배워가는 사회문화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국제연대활동이다. 여성환경연대는 2001년부터 3회에 걸쳐 동북아여성환경회의를 개최하고 2002년 리우+10 요하네스버그에 여성환경활동가를 조직하여 참석하는 등 환경문제의 국제적 연대를 모색했다. 특히 아시아의 여성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환경문제의 특수성을 고민해왔다. 2005년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공정무역을 인큐베이팅하여 네팔 등 아시아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기술인 염색과 제봉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네팔의 여성들에게 면월경대를 지원하는 '나는 달'사업도 진행하였다. 세계의 의류시장은 점점 패스트 패션으로 변하고 아시아의 여성들이 선진국의 돌봄을 대신하고 싼 값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당하며 옷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이 지속되는 한 환경과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여성환경단체인 지구를 위한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 단체와 연대하여 일회용생리대 정책 대응 및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다섯째. 풀뿌리 운동과 네트워크이다. 초록상상, 더초록 등 지역조직과 지역의 풀뿌리

여성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텃밭과 생태교육, 여성건강교육, 에코페미니즘 학교, 젠더거버넌스 등 지역에서 다양한 여성주체를 성장시키고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를 변화시키는 운동방식과 의제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에코페미니즘 운동들

이러한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은 일부분이고 더 많은 운동이 에코페미니즘의 세계관으로 한국사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여성의 몸에 관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민우회의 노성형 노다이어트 운동과 렛미인 폐지 운동은 여성 몸의 상품화에 대한 강렬한 저항운동이다.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학과 시장의 결합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대리모를 비롯해 난자와 생명공학의 시장이 된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연대가 이어졌다. 일회용생리대의 문제점과 면생리대 보급 운동을 펼쳤던 피자매연대가 있었고 2017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일회용생리대 사태 등에도 생리대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형성돼 여러 환경단체와 여성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탈원전운동과 밀양송전탑반대운동의 확대이다.

후쿠시마는 전쟁과 침략의 일본사회의 성찰 없이 중앙을 위해 착취되고 소외되어 도시에 전력을 공급해야 했던 지역의 상징이다. 2011년 원자력사고는 지진의 위협과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예견되었던 사고의 결말이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원자력은 차별과 소외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후쿠시마 이후로 독일과 스위스는 탈원전을 결정했고 시대착오적인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고 확대했다. 동시에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765KV 송전탑을 반대한 밀양 역시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차별과 함께 폭력적으로 진행했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지역이자 사건이다.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밀양의 할머니들과 함께 했고 끝까지 저항했다. 또한 후쿠시마 이후 국가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불신을 품은 방사능피해예방 커뮤니티 ‘차일드 세이프’ 등이 조직되고 방사능감시센터가 생기는 등 원전 반대운동이 확대되었다. 가장 오래된 여성단체인 한국YWCA연합회는 조직적으로 탈핵운동을 표명했고 명동에서 매주 탈핵 캠페인을 이어가고 전국에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고리원전 폐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고 원전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반환경적이고 폭력적이고 차별적인지 알게 된 것이다.

셋째는 GMO와 국제식량시스템에서 우리 먹을거리를 지키는 운동이다.

이미 먹을거리는 세계적인 다국적 종자회사와 식품회사의 먹잇감이 되었고 금융자본의 이윤추구의 장이 되어 버렸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수입하고 소비

하는 나라이며 그 안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험재배를 확대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의 한 끼 식탁은 환경적으로 지구를 몇 바퀴도는 화석연료에 의지하여 생산되고 유통되는 다국적 식탁이 되었다. 이는 지역 내의 생산과 유통, 건강한 우리 먹을거리를 점차 잃어가는 과정이다. 이 가운데 여성민우회 생협과 전여농을 중심으로 한 토종 종자 지키기 운동과 언니네텃밭, 가배울 등의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언니네텃밭과 가배울 등은 농촌의 여성들이 자신의 수확물을 직거래로 보내면서 농촌의 여성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원하며 농촌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함께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농업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가 과소평가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농민의 참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생산자 조직인 농협과 수협 등의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고 정부 식량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담부서 설치, 농업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예산 확보 등 성평등한 식량주권 개념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운동으로서의 생협운동의 확산이다.

민우회, 아이쿱, 한살림 등 협동조합운동에서 녹색소비 운동을 펼치는 대다수는 여성들이다. 녹색소비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환경을 고려하여 탄소배출과 자원사용을 적게 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고민하는 소비이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한 관행농, 공장형 축산, 식품첨가물 증가, 경제성장을 위해 저곡가정책을 유지했던 소비와 생산의 고리가 현재의 낮은 식량자급률과 먹을거리의 위기를 가져왔다. 생협의 여성들은 GMO 완전 표시제 청원단 20만명을 조직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탈핵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먹거리 안전성, FTA 등 ‘두부에서 통일’ 까지 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산자와의 신뢰를 통해 기후 및 시장의 변동에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지역사회 운동의 주체로 여성조합원들을 성장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의 에코페미니스트 운동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 외에도 개인들의 삶의 선택으로서의 에코페미니즘이 확산되고 있다. 귀촌한 여성들이 모여 자연의 삶에 기반한 페미니즘 문화운동을 하는 지리산 산내면의 문화기획단은 농촌의 성문화를 다시 보고 농촌에서의 에코페미니즘을 표방하며 활동하는 그룹이다. 과천에서 에코페미니즘을 표방한 책방 여우책방과 전국에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도시를 떠나거나 혹은 도시에 머물거나 페미니즘과 에콜로지 둘 다 놓을 수 없는 개인적 선택들이 다양한 운동과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은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소유와 더 빠른 성장보다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와 자급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평화의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국가 주도의 성장주의 국가와 시장 주도의 성장주의 속에서 분단을 이어왔다. 우리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여성으로서 억압받아왔고 여성이 국가와 시장의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착취되었고 시장주도의 경제성장 이후 여성은 가장 먼저 해고되고 저임금과 비정규직, 여성혐오에 시달리는 가운데 돌봄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은 재개되고 각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시아에서 해왔던 일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를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 안에서 확대되었던 차별과 편견이 북한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환경이나 DMZ을 철저히 보존하는 방향의 경제협력을 구상해야 한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오염시켰던 물이나 대기, 화학물질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작동될 수 있는 경제협력의 초기 지속가능발전 관점이 중요하다. 둘째는 의료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한방과 양방의 협업을 잘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13만 명의 결핵과 영양실조 등 지원이 시급한 부분과 북한의 자급적 의료시스템 존중을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에 여성들의 교류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황폐화는 일찍이 화학농법과 기계농에 의존한 철저한 근대적 농업의 실패였다는 보고가 있다. 유기농과 지속가능한 농업, 투기와 개발이익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훨씬 가부장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여성의 상품화가 극심한 남한과 북한 중에 무엇이 더 가부장적인가는 우리의 정보가 너무도 불충분하여 단정할 수는 없다. 남북관계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참여를 보장하여 생태적이고 평등한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한국사회가 겪은 양극화의 심화가 국가 간 이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협력의 양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불과 30년 만에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그 짧은 기간에 깨끗한 물과 공기를 잃었다. 거미줄 같은 도로, 더 많은 자동차, 편리한 수송과 상품 배달, 어쩌면 우리가 이루었던 오늘의 우리 자화상을 성찰 없이 북한에 전파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을 느낄지 모른다. 더 많이 지금의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 같다.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2주제. 여성과 인권, 평화만들기

발제 4) Amplifying Women's Voices towards Sustainable Peace

Mavic Cabrera-Balleza.
세계여성평화유지군네트워크, Philippines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유엔이 채택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과 [베이징 행동 강령]을 따라 여성 운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규범적인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조직화되고 동원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1325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결의1325를 조직 및 동원 도구로 사용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2014년 5월, 대한민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자, 1325 네트워크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국가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과 새롭고 훌륭한 통치 체제 구축을 요구하며 정부에게 지속적인 평화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를 요구했습니다.

UNSCR1325의 핵심적인 골자는 다음의 4부분으로 요약됩니다.

- 평화 및 안보 문제, 거버넌스에 대한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라.
- 성폭행 및 성별적 폭력을 예방하라 ; 전쟁을 예방하라.
- 여성과 소녀를 성폭행 및 성별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 ;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라.
- 여성권리 증진, 인권, 남녀평등 증진.

UNSCR1325 의 이행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요약하자면,

- 74개국과 지역에서 국가조치계획(NAP)을 채택하였다는 것. NAP는 1325결의안과 그것을 따르는 지지적인 결의안들의 체계적인 번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NAP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데 실행가능하고 측정가능하며, 시기적절한 조치들로 지키도록 보장하는 도구입니다. NAP를 사용하면 WPS결의에 따라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콜롬비아와 시리아의 경우와 같이, 평화협상과 관련하여 민간사회의 여성과의 협의를 증대함.

- 성별에 따른 조항 - 콜롬비아와 필리핀의 경우와 같이, 일부의 평화협정에는 성별에 따른 조항이 포함됩니다.

- 지역화 증가 - GNWP의 UNSCR1325 지역화 프로그램은 현재 15개국에서 구현

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네팔, 필리핀, 세르비아 및 우간다에서는 55개의 로컬작업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지역 여성들은 선거에 출마하기 시작하였고, UNSCR1325 프로그램의 지역화가 시행된 지역사회에서는 성범죄와 성별적 폭행 범죄에 대한 보도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 UNSCR325에 대한 세계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화 방식과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절차의 구현은 국가 및 국제 평화 노력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 여성 평화 및 인도주의적 기금의 설립 - 이 펀드는 WPS와 인도주의적 행동 사이의 사일로를 깬 최초의 공동출자금융 메커니즘입니다. 기금의 50%는 분쟁에 시달리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할당되고, 시민사회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시민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WPHF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카운티에서는 NAP 시행을 위한 비용을 평가하고 예산을 할당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NWP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NAP에 적절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2282)가 평화유지를 위한 두 가지 결의안(70/262)을 채택함에 따라 갈등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결의안은 여성 지도력과 의미 있는 참여의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만약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지속적인 평화 의제는 고립된 상태를 타개하고 유엔 기구들과 국가정부 부처들의 서로 다른 의무들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여성들은 기구들과 국가 정부 부처들의 범위 내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갈등 방지와 평화 유지 노력이 성공하려면 위기 발생 때의 해결책만으로는 안 되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성차별을 포함한 갈등의 구조적 근본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와 지속적인 도전에 대한 장벽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 중 일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WPS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유엔이 주도하거나 공동으로 주도한 평화과정에 여성대표단의 참여도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추적된 9개의 과정 중에서 시니어 여성 11명의 대표가 포함되었고, 2015년 8개 프로세스와 12개 대표단이 참여했는데 비교적으로 2014년에는 9개의 프로세스와 17개의 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협상 그룹이 고위여성대의원을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들이 대표되는 곳에는 그들이 소수자였고, 이것은 모든 평화과정에서 명백한 추세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이 공동으로 주관하지 않는 평화과정인 2016 미얀마 연합 평화회담에는 75명의 대표단 중 7명의 여성만이 참석했습니다.

같은 사무총장 보고서는 또한 6개의 서명된 협정 중 절반만이 그러한 조항을 포함했

고, 2016년에는 성별에 따른 조항을 포함한 평화협정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2015년에 성별에 따른 조항이 포함된 평화 협정은 70%였던 것과 비교한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강조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유엔이 주도하거나 공동 주도한 2014년과 2015년 평화협상은 100%가 시민사회와 협의를 했는데, 2016년에는 그 비율이 86%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관점이 대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대표단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주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고 유엔 평화위원회 2242에서 요구되는 바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시리아 평화 회담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콜롬비아와 콜롬비아 혁명군-파르크 (FARC) 사이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보듯이 여성이 대표될 경우에는 여성은 소수를 구성하고,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민사회협의 같은 추세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여성인권 옹호자들과 평화 운동가들은 인권을 옹호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며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수록 더 적대적인 환경에서 활동합니다. 정부는 괴롭힘과 협박을 통해 사회운동가들이 인기 없는 견해를 표현하거나 억압적인 법과 정책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시민사회 행동가들이 연합하고 자금을 받는 능력에 엄격하게 제한을 가합니다.

WPS 실행을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2015년에는 공식개발지원(ODA) 부문별 자금의 19.4%가 분쟁 및 분쟁 후 국가들에 할당되었는데, 그 중 40%가 양성평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에 배분된 ODA 자금 중 5%만이 우선순위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분쟁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성평등, 그리고 여성과 소녀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기부자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UNSCR1325 실행을 위한 NAP 이행을 돕는 전용기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FRAGMENT: Out of the 74 NAPS, only 18 have dedicated]

학습된 교훈

WPS에 대한 8개의 보안 위원회 결의안 -1325, 1820, 1888, 1889, 1960, 2106, 2122, 2242- 및 '평화 유지' 에 대한 두 가지 결의와 '분쟁 예방, 충돌 및 분쟁 후 상황에 관한 CEDAW 일반 권고사항 30번', 이 모든 것들은 WPS 의제에 강력한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합니다. 이것들은 평화와 안보에 관한 국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WPS에 관한 국제정책과 기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시행입니다.

평화 협상과 모든 평화 과정 -특히 시민사회 내의 여성의 역할- 에 대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도에서부터 유엔 개발기구 1325의 채택과 전반적인 WPS 의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중추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의미 있는 참여가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화협상의 의사 결정자, 중재자 그리고 조정자로부터 더 많은 약속과 책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의안 1325 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여성들은 평화와 보안 절차를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의사 결정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과 갈등 방지에 대해 전체론적이고 일관된 다중 부문 및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성인권 단체와 다른 시민사회 단체, 정부, UN, 지역 단체, 기증자, 공동체 그리고 개발 파트너들을 하나로 묶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기부자들은 국가와 국가기관을 강화하면서 시민사회도 강화해야 합니다. 평화 개발 및 갈등 방지 작업에서의 출발점은 더 광범위해야 합니다. 갈등 및 분쟁 후 맥락과 더불어서 평화로 이행하는 과정의 맥락, 갈등의 위험이 있는 맥락, 그리고 보안위험이 있는 맥락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일은 단순히 반응적이 아니라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보안 접근법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 전략과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인권과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WPS 해결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구현을 위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적인 자금 후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자금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평화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프로젝트가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세계문화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개발 파트너들은 전력관계에 도전하고 자체적인 권한 부여에 대한 사회, 문화, 제도적 장벽을 깰 수 있는 풀뿌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WPS 의제는 국제 문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분쟁 예방 및 해결과 인도주의적 조치에서 국제적 노력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2030년 지속적인 발전' 의제의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WPS는 유엔의 세 가지 핵심인 안보, 인권 및 개발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합니다. 여성들의 의미 있는 참여는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평화정착 노력을 심화시키며, 더 지속적인 평화를 이끌어 냅니다.

2주제. 여성과 인권, 평화만들기

발제 5) Feminist Peacebuilding, What is Possible, What Can Be Done?

Katherine Ronderos.
LIMPAL COLOMBIA, Colombia

2주제. 여성과 인권, 평화만들기

발제 6) To the Two Koreas from Israel and Palestine,
Lessons Learned

Yifat Susskind
MADRE Executive Director, USA/Israel

라운드테이블

3주제.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발제 1 장미란

발제 2 Wang Xuan

발제 3 이은선

발제 4 Altaa Noogsoi

발제 5 Olga Maltseva

발제 6 Patti Talbot

발제 7 Ann Wright

3주제.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발제 1) 여성평화운동의 근본을 다시 생각한다.

- '평화감수성' 증진과 일상의 재구성 -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1. 불어오는 평화의 봄바람

최근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을 짓눌러 온 전쟁의 걱정들이 봄바람에 날려가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가 위협이나 무력적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대화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갈등의 역사에 획기적인 청신호를 던져준 것이다. 이제 한반도에는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 씨앗을 정성들여 잘 가꾸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의 안착이라는 튼실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변화에 대한 정세분석이나 대응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고 나아가서 한반도에 안정적인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한 마음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과 강화를 위해서는 구체화된 실행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 아무쪼록 성공적이었던 남북 간의 협상에 이어 곧 이루어질 북미간의 협상에서 비핵화와 북한 체제의 보장이라는 문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는 동북아 평화 정착이라는 과제와 맞물려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다. 이에 남과 북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은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상호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한반도의 오랜 시련과 비극의 상처가 오히려 동북아 평화구축에 밑거름 역할을 한 셈이 될 것이다.

2. 소극적 피해자에서 적극적 주체로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은 전쟁과 갈등 상황에서 온 몸으로 폭력과 성적인 지배를 견디며 생명을 낳아 기르고 지켜왔다. 그렇게 살아온 여성들에게는 평화가 더욱 절실하다. 평화는 생명을 지키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축적된 삶의 경험과 인내의 역사는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새겨져있다. 생명을 품고 낳아 키우는 여성들은

정복과 지배의 논리보다는 생명 수호와 보호라는 절대적 원칙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여성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소극적 피해자’와 힘없는 약자의 위치를 뛰어 넘어서 갈등 해결의 ‘지혜로운 중재자’와 ‘적극적 주체’로 나선다면 여성들의 고통스러웠던 삶의 경험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막강한 동력으로 전환될 것이다. 전쟁이 여성들에게 가져다 준 두려움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평화를 만드는 주체로 일어난다면, 가부장제 아래에서 ‘당연하게’ 저질러졌던 수많은 억압과 폭력과 모욕들을 말없이 감당하며 살아왔던 인내와 순응의 삶을 ‘평화를 이루어가는 에너지’로 번역해 낸다면, 그리고 전쟁을 포함한 집단간 갈등, 국가간 갈등, 민족간 갈등, 이념간 갈등, 계급간 갈등, 종교간 갈등, 젠더 갈등으로 빚어지는 모든 폭력에 맞서서 평화세상을 만들겠다고 일어난다면,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빚어진 온갖 불의와 폭력에 맞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일어난다면, 강자가 휘두르는 폭력 앞에 숨죽이고 살아가는 약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힘을 합친다면,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이 겪어온 고통의 힘은 강력한 평화운동의 에너지가 되어 분출할 것이다. 그건 갈등을 힘과 무기와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 협력과 돌봄, 이해와 존중과 양보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일이다. 이런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여성들이 갈등해결 과정과 평화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무기와 힘과 폭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진정한 화해, 지속가능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3. 경험에서 우리나라 여성평화운동

한국의 풀뿌리 여성평화운동은 외국에서 수입된 개념을 우리의 현실에 꿰어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여성들 자신의 고통과 삶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자생적 운동이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여성평화운동을 위한 이론도 나오고 여성평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나올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개된 식민지체제와 분단체제, 전쟁과 이념 갈등 속에서 온갖 개인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한국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남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고통들이 개인의 탓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 즉 식민지 경험과 분단 경험, 전쟁 경험과 이념갈등의 역사와 엮여져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서는 그 고통들이 강대국 중심의 세계체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제 여성들은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성 개인의 문제로 알고 혼자 끙끙하던 고통을 자신 있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깨우치면서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연대할 수 있게 되었다.

4. 끼어들며 새 판 짜기

이제 정부가 남북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게 되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비정부단체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이다. 사회문화예술 차원에서 민간인들 사이의 다양한 남북교류가 시작될 것이다. 이때 시민사회의 여성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성들이 시민의 자격으로 평화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성들이 이제까지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해 오던 일에 끼어들어서 남성들이 하던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걸어가며 만들어 놓은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다른 발자국을 만들어 다른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발자국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길을 내려고 하는 것일까?

1990년대부터 우리 여성운동계에는 ‘끼어들기’와 ‘새 판 짜기’라는 말이 널리 쓰였다. 그 두 개의 대비된 말 속에는 “여성들이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성들이 먼저 간 길을 뒤따라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여성들의 근본적이고 진지한 고민과 질문이 들어 있었다. 여성평화운동 분야에 이 고민을 적용시켜보면 ‘끼어들기’는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던 평화, 군사, 외교 분야에 능력 있는 몇몇 여성들이 끼어들어 남성들이 해오던 역할을 나누어 가지며 관련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새 판 짜기’는 지배와 정복,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합리와 비합리, 이성과 비이성 등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어우러지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름과 차이가 다양성과 풍요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지,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만들어가는 운동을 뜻한다. 일단 ‘끼어들기’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새 판 짜기’가 중요하다. 여성평화운동은 단기적으로는 ‘끼어들기’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새 판을 짜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5. ‘새 판 짜기’ 여성평화운동의 비전

모든 운동에는 이상적인 가치와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그려보는 청사진, 그리고 꿈꾸는 사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힘차게 지속할 수 있다. ‘새 판 짜기’ 여성평화운동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 value와 비전 vision, 새로운 인간관과 철학을 가지고 여성평화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 서로 믿을 수 있

는 세상, 분단의 아픔이 치유된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다.

여성평화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남녀 모두 함께 더 정의롭고 더 평화적이며 모든 인간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가족이기주의를 당연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자기가족의 안전과 평화에 헌신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사회를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여성들이 하려는 평화운동은 지배와 정복과 위계질서 속에서 힘과 능력만으로 진행되고 평가받는 평화운동이 아니다. 여성평화운동은 상생과 연대, 나눔과 보살핌, 이해와 존중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받는 운동이다. 그런 가치를 증진시키는 활동이 여성평화운동이 바라보는 ‘새 판 짜기’의 길이다

6. 내가 꿈꾸는 일상의 평화세상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어떤 태도로 살면서 여성평화운동을 해야 할까? 여성평화운동가들이 꿈꾸는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일까? 물론 대전제는 전쟁이나 분단, 이념갈등, 계급갈등, 종교갈등, 젠더갈등이 없는 세상이다. 그러나 그런 확연한 갈등과 폭력 이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폭력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우리는 큰 평화를 지향하면서 일상의 작은 평화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평화감수성’은 어떤 것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꿈꾼다.

①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선불리 단정지어버린 후, 당신은 나와는 다르고 나와는 같은 편이 되어 협력할 수 없다고, 우린 한 편이 될 수 없다고, 편을 가르고 담을 쌓아버리는 굳어진 마음에서 벗어나 자기와는 다른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잘 알아보려고,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려는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꿈꾼다.

② 상대방의 고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보려고 애쓰며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그 고통에 동참하려고, 그 사람의 고통에 내가 어떤 책임이 있나, 내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꿈꾼다.

③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섬세하고 예민한 평화감수성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타인에게 혹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과 수평적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꿈꾼다.

④ 자신이 가진 특권이나 기득권을 뺏내며 휘두르지 않고 그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꿈꾼다.

⑤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보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배려해 주는 사람들,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겸손하며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꿈꾼다.

⑥ 차이를 위협이나 불편함으로 받아들여 거리를 두지 않고 차이를 오히려 다양성으로 받아들여 그런 차이들이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선을 가지고 차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꿈꾼다.

⑦ 나와 조금 다르다고 십사리 편을 가르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굳어져버린 불화의 관계를 화해시켜 보려고 적극 나서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꿈꾼다.

⑧ 자기 가족의 이익만 챙기는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적인 관심과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성 시민으로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꿈꾼다.

일상을 평화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평화라는 목적을 향해서 쉬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는 길, 그 자체가 평화운동이다.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여성평화운동가로 우뚝 설 때 여성평화운동은 풀뿌리운동의 기반을 든든히 내릴 것이다. 사적인 가정생활과 공적인 여성평화운동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생활과 여성평화운동을 서로 잘 연결시켜서 두 영역 모두에서 서로 좋은 에너지가 소통되어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여성평화운동이 될 것이다. 평화를 몸으로 살아내고 정의로운 평화 가치가 여성들의 일상에 젖어들어 여성들의 삶 자체가 평화운동으로 녹아나올 때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는 평화와 상생과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다.

3주제.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발제 2) Japanese Bacteria Battle Investigation and Lawsuit

Wang Xuan
Research Centre of Biological Warfare in WW II,
China

3주제.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발제 3)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와 4·27 판문점선언
- 여성통합학문연구의 시각에서 -

이은선. 세종대 명예교수

I. 삶은 이야기이고, 분단 고통의 이야기는 온 반도에 널려 있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있는 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 이야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여년이 되어가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체제 국가로서 그동안의 고통과 질곡이 크니 이번 두 남북 정상회담의 만남과 선언에 대한 환호와 기대가 그러한 것은 놀랍지 않다. 더군다나 이러한 역사적인 만남이 있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한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살얼음판과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으니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보통 지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주로 이북에서 피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된다고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올해 팔순을 맞이하는 우리 고모의 경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6·25전쟁 당시 12살 초등학생이었던 고모는 4남매의 막내로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다. 당시 전라도 광주 지역에 살면서 전쟁을 맞은 가족은 인민군을 위해 부역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남편과 큰아들을 숨기면서 그 일을 담당했던 우리 할머니는 오히려 나중에 퇴각하는 인민군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했고 가족들은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고서 그 떠나보내는 의례도 경험하지 못한 고모는 이후 마음 한쪽이 거기서 죽어버린 것 같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지역을 다시 찾았는데 고모는 다른 사람의 묘소를 자기 엄마의 묘소라고 주장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중국도 자기 엄마를 죽인 공산당의 나라이니, 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양파’를 자신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한다. 아직도 대부분의 대화가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것과 함께 살던 시절의 이야기이니 고모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주변 가족들의 고통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동북아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아주 보편적으로 널려있다.

II. 한반도 분단 고통의 구체성과 개별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성주의적 시선들

신경과 의사이자 작가인 올리버 섉스(Oliver Sacks)는 자신의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에서 한 때 명성을 날리던 음악교사였지만 뇌에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장애를 입고서 자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음악가 P선생을 소개한다. 거기서 P선

생의 시력 자체는 바닥에 떨어진 바늘도 쉽게 찾아낼 정도로 아주 좋지만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바늘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바늘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즉 대상들을 자신과 연결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길이가 몇 센티,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등의 추상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뇌 인지는 마치 컴퓨터의 기계가 하듯이 구체적인 시각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 묘사에서 공허하다고 한다. 색스는 그런 P선생을 “생기가 없는 추상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서⁹⁾ 구체성에 대한 감각과 현실감이 떨어져서 일종의 기계와 같이 사물의 실체성과 개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P선생과 유사한 경우가 오늘날 인지신경학이나 인지심리학도 포함해서 현대 과학이 빠져든 모습이 아닌가 지적한다. 즉 오랜 동안 판단이나 구체적인 것, 개별적인 것은 등한시하고 단지 추상적이고 계량적인 수치에만 몰두하면서 빠져드는 장애에 대한 “경고이자 우화”일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유사한 장애가 동북아 평화나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데에서도 있어왔지 않나 생각했다. 특히 그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서구의 큰 나라나 거기서의 남성 지도자들, 그와 유사한 원리로 나라를 이끌어 온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에 대한 최근의 예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책상 위의 핵단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들은,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책상 위의 버튼 하나 누르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파괴할 것인지, 그 이전에 한반도가 겪은 6·25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끔찍한 고통과 질고가 구체적으로 이곳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왔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는지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치 P선생이 비록 음악교사는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성을 알아보는 능력 상실로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발과 신발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지도자들의 판단과 인도에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가 맡겨져 왔고, 오늘의 엄중한 핵사태의 위기도 달려 있다면 그 상황의 비참함과 엄중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반도는 단지 비서구 동아시아의 한 끝에 자리하고 있는 한 작고 힘없는 분단국가만이 아니라 그 안에 무수한 생명의 이야기와 인간의 무늬가 그려지고 있고, 그것을 긴 역사로 장기간 일구어온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III. 상상과 구체적인 판단의 역량을 함께 가진 지도자의 등장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한민족은 정말로 기적처럼 시민과 민중의 촛불혁명을 성공시켰다. 그 덕분에 오늘의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갔던 상황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문제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와 관련해서 스스로가 속 깊은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

9) 올리버 색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조석현 옮김, 파주: 이마고, 2014, 38쪽.

10) 같은 책, 49쪽.

다. 알다시피 6·25동란 이북 피난민의 자녀로 태어났고, 지금도 그의 곁에는 죽기 전에 그 북쪽 고향을 한 번 방문하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 그런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던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자신의 두 발로 트래킹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이고, 특히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친구로서 친구 따라 청와대로 들어가서 바로 오늘의 4·27정상회담과 선언의 모델이 된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루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후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두 정상 간의 대화기록이 불법적으로 공개되고 거기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이 왜곡 날조되며 종북몰이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남북 분단의 질곡과 그 비인간성을 깊이 체험했을 것이다. 이후의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스스로 대통령이 된 그는 그래서 10·4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깊이 기렸으며, 10·4선언의 많은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히며, 그 정신이 진작 실현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번 4·27선언은 그런 풍성한 경험과 분단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경험을 가진 대통령의 꿈과 상상, 결단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온 열매인 것을 말할 수 있겠다.

IV. 한반도에서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드는 역량이 있음을 천명하는 자주의식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룸으로써 동북아 평화를 지향하는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스스로가 그 일을 위한 역량이 있음을 천명하는 자주의식과 자긍심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전자론을 주장해 왔다. 이번 4·27선언에서 제일의 항목으로 밝힌 것도 바로 그것이다. 즉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4·27선언에 앞서 올해 3·1절 99주년 기념식에서도 분명하게 민족 자주와 자긍을 밝혔다. 거기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일본과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 문제’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시초를 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해자인 일본은 결코 먼저 그 문제를 먼저 “끝났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것으로써 나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질곡과 전쟁, 분쟁과 분열이 이웃나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트럼프 정부가 세계 최강의 리더임을 자임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진심으로 아시아의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의 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미국이 지나간 역사의 진실과 실상을 바로 알고서 그 일본으로 하여금 예전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올해 제주 4·3사건의 70주기

가 있었다. 20만 제주도민의 10% 이상이 죽어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도 바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들이 다시 해방정국의 경찰과 공무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일반 민중의 상식과 정의 감각이 크게 손상된 것과 관련이 깊다.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미군정이었고, 그들의 소위 ‘빨갱이’ 색칠이 주요인이었음을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연구가 쑨거(孫歌)에 따르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는 일종의 ‘분단체제’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 한반도에서의 분단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결국 그 분단의 현대판이 오늘 동아시아에서의 서로간의 반목과 냉전이고, 분단의 역사적 뿌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 나라는 여전히 서로를 외면하면서 외재화 되어 있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겪은 중국조차도 결코 ‘서구지향’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¹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은 진작부터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며 서구를 추종하며 자신이 속한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는 제국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는 그러한 서구 미국의 준(準)식민지가 된 형국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반도는 근대 전에 중국과 오랜 동안 조공관계에 있다가 근대 초기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가까스로 해방이 되었지만 곧이어 시작된 남북 분단의 고통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남한은 군사 작전 통제권도 갖지 못한 채 미국 종속의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남한이 미국과 갖는 관계와는 다른 모양이고, 일본 식민지 시대의 보상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온갖 경제적 불이익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주체사상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오늘 경제적으로는 제일 약자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적 주체성과 자수성을 세우는 일에서는 북한이 제일 앞섰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도 무척 컸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데, 결국 동북아 평화의 제일 중요한 관건은 먼저 어떻게 세 나라가 오랜 서구 내지는 외부지향성을 극복하고서 자신의 이웃을 먼저 존중하면서 주체적으로 서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의 두 정상이 제일 먼저 민족자주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V. 평화 그 자체를 남북 관계의 목적으로 삼는 일

4·27 판문점 선언은 그 두 번째 명목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길에서의 평화의 원칙을 밝혔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에서의 방법론으로서 평화 이외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유기체는 매우 특별한 질서, 다시 말해 무질서를 최소화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 “산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다.” 등의 생명학적 언술들은 보통 한 개인 단위에서의 생명원리를 표현하는 것이지만¹²⁾ 한반도의

11) 쑨거, 『사상이 살아가는 법-다문화 공생의 동아시아를 위하여』, 돌베개, 2013, 66쪽. 이은선, “동아시아 역사수정주의와 평화 이슈-‘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재일일본여성신학포럼 발표문, 2017.2.14-17, 제주도 강정.

전체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기체적 몸으로 볼 수 있는바 바로 한반도 안에 지금 분단이라는 무질서를 최소화하는 ‘질서’(평화)를 우리가 찾아내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한반도라는 유기체로서의 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죽어가는 몸을 살리는 질서를 다시 세우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를 진정으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몸”(the body of life)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출발 때부터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위한 남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강조와 더불어서 ‘평화’를 그 가장 대표적인 기조로 내세웠다. 작년 ‘베를린 구상’과 8·15 경축사 등에서도 생존전략과 시대적 소명으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 붕괴를 원치 않고,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었다.¹³⁾ 이에 따라서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남과 북이 그것을 위해서 취해야 할 사항들을 합의하였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일,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가질 것 등을 마련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평화 기조의 통일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주장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 몇 개월 전의 10·4선언 1주년 기념 특별연설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도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날 북진통일론이나 흡수통일론 등이 있었지만 자신은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로 본다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평화통일 아닌 통일은 없습니다.”라고 선언한다.¹⁴⁾ 또한 그냥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통일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평화를 통일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통일과는 별도로 평화를 “별개의 독립적인 가치와 대북정책의 고유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강조했다.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에 따르면, 즉 “분단 상태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북한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분단 고정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라는 수준이라는 것이다.¹⁵⁾

그의 이러한 선언은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시간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용기 있고 선각자적인 통찰이었음을 알 수 있고, 진정으로 상대와 함께 가기 위해서 자신을 한정하고 줄일 줄 아는 큰마음의 통치자였음을 말할 수 있다. ‘평

12) 토마스 하나, 『부드러운 움직임의 길을 찾아-토마스 하나의 생명의 몸』, 김정명 옮김, 고양: 소피아, 2013, 42, 79쪽.

13) 고유환, “베를린 구상과 8·15 경축사의 일관된 기조는 ‘평화’”, <통일 Focus-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14호 2017년 9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1쪽.

14)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특별연설문-대북정책 반세기, 갈등만 있고 성과는 없다”,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토론회 및 기념식-10·4 남북정상선언과 한반도 평화변영>, 2013년 10월 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5쪽.

15) 같은 글, 16쪽.

화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남한과 북한이 스스로의 권력을 축소하거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 극복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자신 존재의 보존과 확장에만 관심하는 보수 그룹의 시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자신의 일면을 내어주면서 가는 길이야말로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는 것이다. 또한 그 길이야말로 유기체로서의 한반도, 유기체로서의 동북아가 살 길이므로 온 힘을 모아 모색하려는 것이고, 생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화 이외의 다른 방식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VI. 평화 통일의 길은 결국은 우리 믿음과 신뢰(信)를 실험하는 또 하나의 장이다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의 길을 함께 가기로 합의한 남북정상은 이번 4·27 회담을 통해서 10·4 선언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안들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서로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고, 단계적인 군축과 함께 특히 “올해”를 평화협정의 해로 전환하는 일, 그 일에서도 구체적으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협정 담당자들을 명시한 일, 가장 주목받는 일로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서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일 등을 말한다. 지난 10여 년간의 남북 단절의 시간 동안에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은 이번 선언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허용하였고, 정상 간의 직통전화,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 초청 등을 단행하였다. 실로 엄청난 “신뢰”의 용기 있는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상의 결과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서 반드시 이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과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특히 오늘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일파만파의 응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 이제 곧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말에 대한 응답과 응전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다루어지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사실 매우 폭력적이고, 남성주의적이며, 생명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는 사실 과연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협상에 응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인지, 다시 어떤 꿈수나 거짓을 숨기기 위한 위장의 말은 아닐지 등 수많은 의심과 의구심 때문에 나온 것일 터인데, 여기서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차후의 비핵화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나는 이와 더불어 또한 끝없는

‘움직임’(易)과 ‘과정’으로서의 생명 현상과 실제 앞에서 이 ‘완전’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물음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의 여러 국제 관계들에서 이와 유사한 말을 써오고, 또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해온 주체들은 주로 힘 있는 강대국의 당사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일본 강점 시기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1965년의 한일회담에서도 당시 보통의 한국 민중의 눈에는 그 회담이 전혀 정당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일본의 요구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단어를 써서 식민지 시절의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한일조약’을 맺어졌다. 이후 다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와 더불어 그들의 주장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발표했었다.¹⁶⁾ 오늘 한반도 평화의 핵심 관건인 북미 정상회담(2018.6.12, 싱가포르)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도 회담 장소와 날짜 등의 발표가 자꾸 미루어진 것 등 “이상기류설”도 나뉜다고 하고, 워싱턴 싱크탱크에 지금까지 대북관계에서 매우 보수적이었던 존 볼턴이 합류하면서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지 않을 것이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라는 말들이 최근 트럼프 핵심 참모들의 언술로 소개되는 것 등은 유사한 의구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킨다.¹⁷⁾

이러한 언술들은 이번 북미협상의 파트너 북한에 대해서 ‘한번에’, ‘완전하게’, ‘불가역적으로’ 핵 폐기를 합의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단어들인데, 이 언어가 두 나라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걱정인 것이다. 이미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한 슈퍼파워 미국의 이와 같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요구에 대해서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제시했다면 두 당사자의 입장들이 기적처럼 잘 조율되기를 바랄뿐이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나고 온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은 조선의 시종 하나같은 명확한 입장”이라고 확인하며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명시한 대로 자신들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적대정책과 안보위협 해소)과 동시에 “등가 교환”의 대상이라는 것과 ‘완전한 핵폐기 이전에 보상은 없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먼저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를 강조하며 앞서 자신들이 취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공개에 이어서 미국인 억류자 석방으로 응답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북미 양국이 흔들리지 않고 상호 신뢰 프로세스를 견지해서 우선은 6·12 정상회담에 이르고, 거기서 상호 합의를 도출해 내고, 그 후 도출해 낸 합의안을 서로 간에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이행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곧 한반도의 비핵화가 하나의 ‘과정’(process)이라는 것과 상대에 대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

16) 나는 2017년 한국여성학자협의회가 주관해서 제주도 강정에서 열었던 <한국제일일본여성신학포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발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용어가 이미 1965년의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의 한일조약에서 쓰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은선, 앞의 글.

17) <한겨레> 2018년 5월10일(목) 4면.

을 가지지 않으면 성취시킬 수 없는 인내의 실험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인 것을 말해 준다. 그 일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상호주의의 자세로 임하는 동시에 고도의 긴장과 용기, 사려와 숙고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인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VII. 약자와 여성의 인식론적 강점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인류 화합의 사회를 위해서 더욱 허락하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 길에서의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과 북미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은 어느 정도의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서 나는 예전부터 인류의 삶에서 믿음과 신뢰, 상상과 용기의 도약은 주로 약자와 여성, 새로 온 자, 가난한 변방의 소수자들의 것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그들은 비록 어려움이 많고 갈 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특유의 직관력과 판단력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아내곤 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렇게 주변인과 약자와 소수자의 믿음에 찬 행위로 다시 새로워지며, 거기서부터 생명과 안정과 번영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곤 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졌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회담이 성사된 것도 당시 소수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금기를 깨는 용기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향한 굳은 믿음과 과감성이 귀중한 토대가 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인식력과 인내력, 실행력은 그러나 결코 허공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은 수천 년의 시간들을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로 견디어 왔고, 그래서 오늘이 있고 동북아의 현실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오늘 이러한 한민족의 과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선부른 판단과 오만한 결정으로 한반도가 다시 큰 위험에 빠지고, 그와 더불어 쏠 동북아, 인류 평화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기는 간절히 바란다. 일찍이 항일 독립운동가 역사학자 민재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 1948년 당시에 동아시아에서의 조선의 역할과 공헌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선이 비록 수천 년에 걸쳐서 약소민족이었다 해도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어떻게 “주변 민족에게 거대한 방파제가 되고 성벽 노릇”을 해 왔는지를 기억하라고 촉구했다. 즉 만약 조선이 없었다면 일본은 예들 들어 거란, 여진에 이어 13세기 몽고 백년의 대침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겠으며, 또한 중국은 16세기의 일본 임진왜란의 대사변에서 대륙 북침군을 어떻게 했겠느냐고 반문한다. 즉 조선이 중간에 위치하여서 온갖 고통과 고난으로 두 나라에 대해서 서로 방파제 역할을 해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이 “결코 열약하고 비굴한 멸시 받을 민족이 아니어서 세계에도 드문 반격 역량이 왕성한 독립 정신”이 강한 나라라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촉구한다,¹⁸⁾ 그래서 만약 이 한

18) 안재홍, 「신민족주의의 과학성과 통일 독립의 과제」, 최원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265쪽.

반도가 독립을 잃어버리면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물론 세계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니 “조선의 독립 문제 또는 조선인의 분노 문제”는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 열국이 알아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조선의 청년들은 모두 이 자부와 긍지를 가져라!”고 일갈했는데,¹⁹⁾ 이 글이 쓰인 시간이 1948년 해방 이후 아직 남북의 동족상잔이 일어나기 전 어떻게든 화합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인데, 지금 그 당시와 유사한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이 글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다.

한반도의 삶이 오늘에 있기까지 그렇게 오랜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어 오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는 지구 인류가 지금까지 실험해 온 핵심적인 종교 전통들이 두루 함께 수행되어져 왔고, 그것들을 통해서 겨레의 믿음과 상상이 엄청난 훈련을 받았다. 그 한민족의 사람들 중에서 약자 중의 약자인 여성들이 주로 그 믿음과 상상과 인내의 담지자들이었고, 수행자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여성들의 시각과 역할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더욱 더 과감하게 수용되고 경청되기를 바란다. 특히 오늘 우리의 일에서 가장 긴요하게 자기헌신과 지속력, 판단의 순발력과 유연성이 요청되고, 특히 여성들은 오늘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도, 또한 무수한 남성들이 하는 것처럼 익명성 속에 빠질까봐 별별 떨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내어주며 삶을 위해서 모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²⁰⁾ 오늘 그런 모습을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도 일면 보고, 그 옆의 김정숙 여사, 가장 약자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등에서도 본다. 우리가 가졌던 과거는 상처와 아픔의 과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과거가 없는 사람과 민족은 깊이가 없고, 온 마음으로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 과거를 풍성히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뜻’이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제하고 신중하게 세상의 모든 존재와 삶에서는 결코 몸과 마음, 개인과 나라, 민족과 세계, 여성과 남성 등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불이적(不二的)으로 함께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절대적으로’라는 언술들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이러한 통합적인 안목과 역량들이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일에서 더욱 쓰이고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

VIII. 마무리하는 말 - 인류의 큰 화합(大同)의 길을 위해서

동아시아의 고전 『역경』은 나라에 천둥과 번개의 큰 진동으로 새로움을 가져오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진’(震)괘에서 밝히기를, ‘계속 몰려오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비록 충분히 강한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에 앉지 않았다 해도(六五) 그 이어지는 진동과 위기 앞에서 깊이 사려하고 숙고하여-中을 잃지 않는다면-하는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六五 震往來厲億 无喪有事)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中이 항상 正보다 중요한데, 中

19) 같은 글, 266쪽.

20) 이은선, 『잃어버린 초월을 찾아서-한국 유교의 종교적 성찰과 여성주의』,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2009, 193쪽; 엘렌 식수, 『메두사의 웃음/출구』, 박혜영 역, 동문선, 1997, 181쪽.

하면 正에서 떠나지 않지만 正은 반드시 中하지는 못하다.”(中常重於正也 蓋中則不違於正 正不必中也)라는 지혜를 알려주었다.²¹⁾ 나는 이 고전의 지혜를 오늘 문재인 대통령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도 잘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긴다. 비록 그들이 약자로서, 약소국의 대통령으로서, 또는 그들 주변에 그렇게 도와주는 나라가 많거나 자국 내에서의 상황도 비판자와 반대자들로 인해서 녹록치 않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깊은 사려와 배려, 숙고를 통해서 급한 마음과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조급함에 끌리지 않고 주변을 살피면서 함께 中을 위해서 나아가간다면 일을 그르치지 않은 것이라는 믿음을 말한다. 남한은 미국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나 작전 통제권의 환수 문제 등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때려야 뺄 수 없이 함께 가야 하고, 중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일본과도 마침내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인도나 이슬람 문명권의 등장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만주와 중앙아시아 등과 함께 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과도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한반도 우리의 자리는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계의 인류 문명이 집결하고 각축하는 장이 될 것인데, 이 때 우리의 역할과 판단과 지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참으로 잘 숙고할 일이다. 참으로 오묘하게도 최근에 신라 시대 고운 최치원(孤雲崔致遠, 857-)의 한 석각이 1천200년 만에 지리산 자락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운 최치원은 통일 신라 말기의 뛰어난 문장과 사상가로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당나라에 대해서 한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묘지도”(玄妙之道)에 대해서 말했고, 유불선(儒佛仙) 삼교를 모두 포괄하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신라 고유의 사상(풍류도)을 주창한 사상가였다.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당시 골품제 신분제도의 부패로 큰 위기 가운데 빠진 신라를 개혁하고자 시무책 10여조 등을 지었지만 당시 보수적인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아름다운 산수를 찾아 마음을 달래면서 폭포를 감상하며 돌에 새겼다는 ‘완폭대’(翫瀑臺, 불일폭포를 즐기면서 감상하는 바위)의 글자가 오늘 다시 발견되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여겨진다. 오늘 인류 사회에서 21세기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이 점점 더 드러나고, 세계의 강국들은 우리 주변에서 패권주의적 다툼을 증가해가면서 우리의 처지는 참으로 긴장된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운전대를 잘 잡고서 자신의 깊은 과거와 역사로부터 배우면서 앞을 잘 내다보고 갈 일이다. 이제 우리가 오늘 국가주의의 모든 경계를 넘는다 해도 오랜 동안 역사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가꾸어 온 문화와 문명의 보고들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것을 우리 공동의 토대로 삼아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좋은 흐름을 확대시켜 간다면 거기서 인류가 크게 하나 되는 길도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21) 『周易傳義』 권18, 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337쪽.

3주제.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발제 4) The Role of Mongolian Nuclear Free Status in Peace Building in North East Asia

Altaa Noogsoi.
Blue Banner NGO, Mongolia

먼저 여성평화 심포지엄을 조직하고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준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 노벨위민즈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 한국의 주최 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한 후,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평화와 협력으로 한반도와 관련된 이슈들이 해결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를 향해 남북 지도자들이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이 지역의 NGO들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몽골은 이 지역에서 유일한 비핵국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런 지역 협력이 가능토록 공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992년 몽골은 유엔총회에서 우리의 “단일국가 비핵지대(Single State Nuclear-Weapons Free Zone. NWFZ)” 지위를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에 이 비핵국가지위(Nuclear Weapon Free Status. NWFS)는 1998년 유엔 총회의 결의안 53/77D로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후 유엔 총회는 2년마다 몽골의 비핵국가지위에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 상 핵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작은 국가임에도 몽골의 이러한 주도적 노력은 우리 지역의 비핵화를 향한 여정의 창조적인 모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몽골의 자체적인 비핵지위 주장은 동북아 지역 전체를 비핵무기금지대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05년 몽골 사람들이 “블루 배너(Blue Banner)”라는 NGO 단체를 설립한 목적이었습니다.

“블루 배너”의 임무는 “어떠한 핵위협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의 대외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평화적이고 다층적인 몽골의 외교정책 목표들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의 목표 중 하나는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를 촉진하고, 역내 국가들의 핵 안보를 확실히 하며,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블루 배너”는 다른 NGO 단체들과 정부 기관들과의 활동으로 얻은 경험들을 축적하고, 일본이나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의 NGO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특이하게도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친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5년 “블루 배너”는 동북아시아 네트워크인 지팩(GPPAC, 동북아 무장갈등예방 글로벌파트너십)과 함께,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주도 대화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시작하였고 연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이 지역 모든 곳의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포괄적인 자세로 솔직하게 이런 민감한 이슈들, 특히 그들의 해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창설과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영구적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는 이런 목표들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몇몇 한국 동료들도 이 프로세스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블루 배너”는 생각이 비슷한 NGO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핵문제가 상상도 할 수 없거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국내/국제 NGO 단체와 연구단체(씽크탱크)들 간의 최적화된 협력은 매우 결정적이며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P. Ochirbat 몽골 전 대통령이 “블루 배너”의 대표를 맡아 임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활동은 여성의 역할과 젠더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단체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3명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계국제센터 대표(Mrs. Н а с а н ж а р г а л),와 몽골 NGO 연합 대표(Mrs. З а н а а), 그리고 몽골 국립대학 교수인 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블루 배너” 활동에서 제 역할은 무엇일까요? 몽골 국립대학 국제관계 및 행정학부의 교수로서, 저는 젊은이들이 이런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이슈들에 개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을 합니다. 나는 대학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이슈에 초점을 둔 “국제 안보이슈들”과 몽골의 비핵국가지위에 초점을 둔 “몽골 외교정책”과 같은 서로 다른 주제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저는 학생들이 9월 21일 “국제 평화의 날” 연례행사를 기념할 수 있도록 조직하며, 블루 배너 회원들을 초대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강의를 조직하고, “블루 배너”가 동의하는 동북아 안보 이슈들에 대한 리서치를 다루며, 비핵지대에 대한 글을 쓰고 책을 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의 주요 역할은 블루 배너 회원들과 협력하여 몽골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평화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블루 배너가 북한 단체를 포함하여 지역적, 지구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들과 몽골이 비핵국가 지위를 구축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향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동북아 비핵지대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과 번영을 촉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주제.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발제 5) Women's Soft Power in Preventive Diplomacy for
the Preservation of Sustainable Peace

Olga Maltseva
Dialogue of Culture/FEFU, Russia

3주제.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발제 6) Faith and Fierce Patience, Seeking Peace in Korea

Patti Talbot
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nada

3주제.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발제 7) Women and Peace in North East Asia

Ann Wright.
Veterans for Peace, USA

나는 29년 동안 미군에 재직했고 대령으로 퇴직하였다. 또한 니카라과, 그라나다,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시에라리온, 미크로네시아, 아프가니스탄과, 몽골에 재직할 전 미국 외교관이였다. 그러나 2003년 3월, 나는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대로 사직하였다. 미국의 이라크전 반대가 나의 사직의 주 원인이었으나, 사직서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 이슈 해결을 위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수행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정부의 북한 체제 안정 보장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확장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해결책은 미군을 중동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회귀였다. 남중국해 섬에 군사 예산 증가, 군사 관련된 건축이 있었고 아시아 회귀는 이것의 대응책이기도 하다. 이 회귀는 또한 거대한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에 새로운 미군 공항 및 활주로 건축 시도와 [대한민국] 제주도에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포함했다. 이 회귀는 [일본의 군대 보유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 않는다는] 일본 헌법 조항 9조 폐기와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 행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포함되었다.

부시, 오바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진 미국의 [외교정책의 군사화] 미사여구와 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미국 내 여성들은 대화와 외교를 희생시킨 미국의 군사주의 외교 정책에 도전하기 위해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를 도모하여 왔다. 미국 내 우리들의 임무는 중대하고 위험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수만, 수천만 명의 민간인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군사 행동 협박이나 군사 행위 대신, 비폭력 전략을 미국 정부가 채택하게끔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결집, 동원하는 것이다.

WOMEN CROSS DMZ,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연맹, 코드핑크, 평화를 위한 여성, 군사주의 반대하는 국제여성네트워크, 나토에 반대하는 여성, 평화재향군인회는 여성 평화 운동가들을 분쟁 지역으로 파견하고, 그 곳 현지에서 여성들과 남성들, 정책수행자들, 평범한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돌아와서 친구들, 이웃들, 미의회 의원들과 방

문한 나라와 지역들의 상황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나는 2015년 WOMEN CROSS DMZ와 북한을 방문한 국제 여성 평화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북한 방문을 위한 강도 높은 준비는 극소수의 미국인들만이 방문해 온 북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북한 방문 여성 평화 운동가들에게 제공해 주었고, 돌아온 후 라디오와 TV 인터뷰를 통해 방문 결과를 보고할 기회를 가지게 만들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 파견 여행으로부터 얻은 미국의 끔찍한 암살 드론 정보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가 암살 드론의 상세한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대한 캠페인으로 귀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고한 민간인 살해하는 드론 공격을 아직도 5개국에서 자행하고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도 여행은 이 섬들의 군사화 반대를 위한 풀뿌리 운동가들의 강력한 국제 지지를 도모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란에 파견된 여성들이 주체가 된 사실 파악 임무는, 언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직접교류가 드문 이란과 [중동] 지역에 대한 해안을 얻게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미국의 포괄적인 핵 협정 반대 결정으로, 그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위험한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전 세계 분쟁] 지역들에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 평화 운동가들은 미 의회의 보좌관들과 미의원들, 의회의 비공식 브리핑에 직접 참가하고, 유엔의 여러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 모임에서 통찰력을 제공하여 왔고, 외교와 국제 관계에 중요한 힘을 만들고자 하는 여성들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왔다.

여성과 시민사회가 분쟁지역의 중재 역할에 참여해야 한다는 유엔 결의안 1325을 각국이 실천하게끔 하는 것 또한 우리 여성들의 군사주의와 전쟁 반대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다.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국 전쟁 참전국들의 외무장관들의 회의에서 WOMEN CROSS DMZ와 노벨 여성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접근을 위한 토론에 여성이 주체가 된 시민 사회 단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구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여성들이 국제 위기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전 세계 인구의 50%인 여성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개별 국가들이 인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다. 여성들의 사고와 관심사들, 특히 시민사회 여성들이 그러한 중요한 토론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각국 대표단에 여성 대표들의 수를 증가시킬 것을 촉구한다.

폐 회 식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 선언문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 선언문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8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여성들은 남과 북,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2. 한반도 비핵화 뿐만 아니라 전세계 비핵화를 실현하라.
3. 유엔안보리결의 1325에 의거하여 한반도 평화협상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라.
4.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라.
5. 민간인 교류 전면 자유화와 이산가족 재결합 즉각 실시하라.
6. 모든 국가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전시폭력을 금지하라.
7. 군비를 축소하여 여성의 복지와 환경보호에 사용하라.

평화는 오직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길에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남과 북의 모든 시민들, 전 세계의 정의로운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2018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Women Cross DMZ, Nobel Women's Initiative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 국내외 참가자 약력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 국내외 참가자 약력

1. 2018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및 심포지엄 사회자, 발제자

김성은(공동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최순영(공동대표, 경기여성네트워크 대표)

한영수(공동대표, 한국YWCA연합회 회장)

현재 한국YWCA연합회 회장으로 대학시절부터 YWCA 활동을 시작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YWCA연합회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에 한국YWCA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평화운동, 탈핵운동, 성평등운동 등을 전국 52개 회원 YWCA와 함께 전개하는 한국YWCA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생물학과 유전학을 전공한 뇌과학 공학박사로 현재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강의하고 있다.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대표)

1970년대 사회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시절 군사독재정권에서 제적, 구속 후 한의사가 되었다. 또한 여태아낙태 실태를 알고 난 이후 여성차별의 근원이 되었던 호주제폐지운동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이후 시골로 내려가 살다가 '여성동학 다큐소설'을 쓰면서 평화운동, 무기 공장 없애는 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이며,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이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집행위원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김정수(평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2004년 국방과제팀장으로 군인권보장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활동을 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실미도사건, 삼청교육대사건, 산청함양민간인집단학살사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였다. 「세계화와 여성안보」 「6·25: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에서 한반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 그리고 군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에 남북여성들이 독립적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은선(세종대 명예교수, 한국신연구소 대표)

이화여대에서 불문학과 스위스 바젤대에서 신학(Dr. Theol), 성균관대에서 동양철학(Ph.D.)을 공부했다.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기독교교수협의회 회장과 한나 아렌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최근 저서로 <생물권 정치학시대에서의 정치와 교육-한나 아렌트와 유교와의 대화 속 에서, 2013>, <다른 유교, 다른 기독교, 2016>, <21세기 보편영성으로서의 誠과 孝, 공저 206>, <Korean Religions in Relation, ed. Anselm Min, SUNY series in Korean Studies, 2016>, <세월호와 한국여성신학, 2018> 등이 있다. 현재 한국교회협의회(KNCC) 화해와통일위원회 위원, 민주평통 여성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신연구소> 대표로 ‘聖·性·誠 여성통합학문’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장미란(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장미란은 사회심리학자이며 여성운동가이자 작가다. 돌봄과 배려라는 가치를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북한 어린이돕기운동을 하고 있다. 프랑스 리옹 II 대학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과 프랑스에서 많은 여성들과 여성주의 상담을 실천했다. 2000년대에는 ‘여성신문’의 파리특파원으로 일하면서 프랑스 여성운동과 여성학에 대한 기사를 보냈다. 귀국 이후에는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 감수성' 증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전국 YWCA활동가들과 함께 ‘길 위의 평화포럼’을 조직했다. 작가로서 여성들이 겪는 삶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며 운명처럼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최근 프랑스 여성들의 내면을 파고드는 『파리의 여자들』(문학동네, 2018)을 출간했다.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대표)

최성희(강정국제팀장)

최인숙(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표)

여성문화운동단체 문화세상이프토피아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젠더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활동하고 있다. 글로리아스타이닝, 앨리스워커, 헬레나노르베지호지와 함께하는 국제행사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여성축제, 한독여성작가교류전, 연극 굿바디, 살림이스트 콘서트, 결혼 이주여성들의 ‘꿈’ 사진전, 패러다임 쉬프트 필름 페스티벌 등을 기획했다.

한미미(세계YWCA 부회장)

한정숙(서울대학교 교수)

함희경(한국YWCA연합회 국제협력위원장)

2. 2018 WCD 국제대표단 소개 (p. 262 참고)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

“평화의 땅 한반도 /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기원하며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어리드 맥과이어와
세계13개국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함께하는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과
시인 누구나 참여하는 국제여성평화 걷기에 초대합니다.

1. 국제여성평화걷기

일 시 및 장 소 : 2018년 5월 26일(토) 오전9시 30분 / 통일대교
프 로 그 램 : 09:30~10:00 등록 및 접수(통일대교 입구)
10:00~10:30 평화의 열림(출정식), 길놀이
10:30~12:00 평화걷기(통일대교 ~ 도라산역 평화공원 5.5km)
12:00~13:00 평화의 어울림(여성평화걷기선언 등 문화제)
참 가 신 청 : www.wpwalk.kr, 참가비 무료, 선착순 1000명
신 청 마 감 : 2018년 5월15일(화) 오후22:00 / 민간인 출입통제위해 사전신청 필수
문 의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46-2095 / gpmminwoo@hanmail.net

2.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일 시 및 장 소 : 2018년 5월24일(목) 오전9시 30분~오후5시 /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제 목 : 세계여성들, 평화를 말하다
형 식 :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1.여성과 군사주의 2.여성고민권, 평화만들기 3.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참 가 신 청 : www.wpwalk.kr, 선착순 100명(참가비 무료)
문 의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2) 929-4847 / adminwmp@gmail.com

- * 세부프로그램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wpwalk.kr | facebook.com/womenpeacewalk
- * 참가신청자를 위한 특별공지사항은 추후 안내문자로 알려드립니다.

3. 여성평화 촛불행진

일 시 및 장 소 : 2018년 5월23일(수) 오후7시부터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내 용 :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위한 평화발언 및 퍼포먼스, 행진 등

주최

2018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문화세상이프토피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여성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우리판공서로듬기운동, 아람이아깨동무, 너머서, 평화통일연대, 평화어머니회, 경기여성네트워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현대정치연구소 어·세·연, 새로운100년을어는동일의방, 한국여성사회학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장신대문제대책협의회, 늘애함인성교육공동체, 예규에너겟 청년네트워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우리누리평화운동,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천주교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민족화해센터, 한국여성사건기법회

결기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실무단체: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심포지엄주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연대, 평화어머니회, 문화세상이프토피아, WOMENCROSSDMZ



2018 WOMENCROSSDMZ

2018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International Women's Peace Symposium

Program Book (English Version)



PROGRAM

Registration and Welcoming (09:00–9:30)	
Session 1 Opening Ceremony and Keynote Speech (9:30–10:30) Moderator: Ahn Kim, JeongAe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9:30–10:00	Opening Declaration Co-Representatives of 2018 WCD South Korea Committee Han, Young Soo(President, National YWCA of Korea), Choi, Soon Young(Representative, Gyeonggi Women's Network)
	Congratulatory Speech Chung, Hyun-back (Minist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am, In-soon (Chairperson, National Assembly Committee on Gender)
	Words of Support Ji, Eun hee (Forme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erstory Intro video clip to Women Peace Walk
10:00–10:30	<p>Keynote Address 1.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ed by Women after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Suggestions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Entire World – Kim, Sung Eun (Chairperson, Women Making Peace)</p> <p>Keynote Address 2. ‘Ushering in a New Era of Peace and Feminist Future’ – Mairead Maguire(Nobel Peace Laureate,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p>
Session 2 Plenary Sessions (10:30–12:20) Moderator: Hahn, Jeong-Soo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0–12:20	<p>Presenter 1. Choi, Sung-hee(Gangjeong village international team, Jeju, Korea): April 3rd, Gangjeong, and Women’s voice</p> <p>Presenter 2. Mary-Wynne Ashford(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anada)</p> <p>Presenter 3. Ko Eun Kwang-soon (Representative, Peace Mothers of Korea): Current Status of Anti-Personnel Mine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ed by Women</p> <p>Presenter 4. Rebecca Johnson(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K) : Climbing down from the Nuclear Monster – a Challenging Necessity for Peace and Security</p>

	<p>Presenter 5. Kim, Jeongsoo (Director, Korea Women's Peace Institute of Women Making Peace): A Northeast Asian Peace Created by Women</p> <p>Presentation 6. Kozue Akibayashi (President,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Japan) : Feminist must support Korean Peace Process for a Decolonized and Demilitarized Korean Peninsula</p> <p>Presentation 7. Kin Chi Lau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 The Korean Peace Treaty as a major step to reverse the arms race in North East Asia</p>
--	--

Lunch Break (12:30–14:00)

Session 3 Round Table (14:00–16:30)

14:00–16:30	<p>Topic 1. Women and Militarism</p> <p style="text-align: right;">Moderator: Kim, Young Soon (Co-Representative of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lama Niheu(Ohana Koa-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Hawaii/USA) : Korea Alliance for Justice - Cindy Wiesner(Grassroots Global Justice, USA) : Unresolved Korea War, Militarism in Asia and Pacific and Women's Resistance Roundtable - Lisa Natividad(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Guam/USA) : Message from Guahan-the Trip of Spear of US Military Might - Medea Benjamin(CODEPINK, USA): Women Say, "Disarm, Disarm" <hr/> <p>Topic 2. Women and Human Rights, Peace Making</p> <p style="text-align: right;">Moderator: Park Hyun-sun(Professor, Ehwa Women's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m Min, Mun-jeong(Representative, Women Link): The #MeToo Movement: There Is No Peace to be Maintained through the Silence of Victims - Alice Nderitu(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Kenya) - Jang Lee, Jung-soo(Representative of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Eco-Feminism Movement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Mavic Cabrera-Balleza(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Philippines): Amplifying Women's Voices towards Sustainable Peace - Katherine Ronderos(LIMPAL COLOMBIA, Colombia) : Feminist Peacebuilding, What is Possible, What Can Be D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ifat Susskind(MADRE Executive Director, USA/Israel) : To the Two Koreas from Israel and Palestine, Lessons Learned : Feminist Peacebuilding, What is Possible, What Can Be Done? - Yifat Susskind(MADRE Executive Director, USA/Israel) : To the Two Koreas from Israel and Palestine, Lessons Learned <p>Topic 3 Women, Making Peace in North East Asia</p> <p>Moderator: Ham, Hee Kyung (Chairpers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 Cooperation Committee, National YWCA of Ko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g, Mi Ran (Chairperson of Peace & Reunification, National YWCA of Korea): Rethinking the Foundation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Raising Peace Sensitivity and Restructuring Daily Life - Wang Xuan(Research Centre of Biological Warfare in WW II, China) : Japanese Bacteria Battle Investigation and Lawsuit - Yi Eun-seon (Professor Emeritus Sejong University) : The Northeast Asian Peace Process and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Interdisciplinary Studies - Altaa Noogsoi(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 The Role of Mongolian Nuclear Free Status in Peace Building in North East Asia - Olga Maltseva(Dialogue of Culture/FEFU, Russia) : Women's Soft Power in Preventive Diplomacy for the Preservation of Sustainable Peace - Patti Talbot(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nada) : Faith and Fierce Patience, Seeking Peace in Korea -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USA) : Women and Peace in North East Asia
<p>Session 4 Sharing Round Table Discussions (16:30-17:00) Moderator: Han, Jeong-Soo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p>	
16:30-17:00	Sharing Round Table Discussions
<p>Session 5 Closing (17:00-17:10) Moderator: Choi, In Sook(Representative, Iftopia)/ Han, Mimi (Vice President, World YWCA)</p>	
17:00-17:10	<p style="text-align: center;">Declaration of 2018 International Women Peace Walk Reading</p> <hr/> <p style="text-align: center;">Closing Ceremony Peace Performance: Echo of Peace Flute Performance by Song Sol Namu</p>

CONTENTS

Opening

- Congratulatory Speech 1: Chung, Hyun-back(Minist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153
- Congratulatory Speech 2: Nam, In-soon(Chairperson, National Assembly Committee on Gender) 154
- Words of Support: Ji, Eun hee(Forme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155
-

Keynote Address

- Keynote Address 1.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ed by Women after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Suggestions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Entire World – Kim, Sung Eun (Chairperson, Women Making Peace) 159
- Keynote Address 2. ‘Ushering in a New Era of Peace and Feminist Future’ – Mairead Maguire (Nobel Peace Laureate,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 161
-

Plenary

- Presenter 1. Choi, Sung-hee(Gangjeong village international team, Jeju, Korea) 167
- Presenter 2. Mary-Wynne Ashford(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anada): Role of Women for Peacebuilding 169
- Presenter 3. Ko Eun Kwang-soon (Representative, Peace Mothers of Korea): Current Status of Anti-Personnel Mine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ed by Women 174
- Presenter 4. Rebecca Johnson(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K) 176
- : Climbing down from the Nuclear Monster – a Challenging Necessity for Peace and Security

Presenter 5. Kim, Jeongsoo (Director, Korea Women's Peace Institute of Women Making Peace): A Northeast Asian Peace Created by Women	184
Presenter 6. Kozue Akibayashi(President,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Japan) : Feminist must support Korean Peace Process for a Decolonized and Demilitarized Korean Peninsula	185
Presenter 7. Kin Chi Lau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 The Korean Peace Treaty as a major step to reverse the arms race in North East Asia	189

Round Table

Topic 1. Women and Militarism

- Kalama Niheu(Ohana Koa–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Hawaii/USA) : Korea Alliance for Justice	195
- Cindy Wiesner(Grassroots Global Justice, USA): Unresolved Korea War, Militarism in Asia and Pacific and Women's Resistance Roundtable	200
- Lisa Natividad(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Guam/USA) : Message from Guahan–the Trip of Spear of US Military Might	204
- Medea Benjamin(CODEPINK, USA): Women Say, "Disarm, Disarm"	207

Topic 2. Women and Human Rights, Peace Making

- Kim Min, Mun-jeong(Representative, Women Link): The #MeToo Movement: There Is No Peace to be Maintained through the Silence of Victims	213
- Alice Nderitu(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Kenya)	215
- Jang Lee, Jung-soo(Representative of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Eco-Feminism Movement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18
- Mavic Cabrera-Balleza(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USA) : Amplifying Women's Voices towards Sustainable Peace	220
- Katherine Ronderos(LIMPAL COLOMBIA, Colombia) : Feminist Peacebuilding, What is Possible, What Can Be Done?	226
- Yifat Susskind(MADRE Executive Director, USA/Israel) : To the Two Koreas from Israel and Palestine, Lessons Learned	230

Topic 3 Women, Making Peace in North East Asia

- Chang, Mi Ran (Chairperson of Peace & Reunification, National YWCA of Korea): Rethinking the Foundation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Raising Peace Sensitivity and Restructuring Daily Life 237
- Wang Xuan(Research Centre of Biological Warfare in WW II, China) : Japanese Bacteria Battle Investigation and Lawsuit 238
- Yi Eun-seon (Professor Emeritus Sejong University) : The Northeast Asian Peace Process and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Interdisciplinary Studies 239
- Altaa Noogsoi(Blue Banner NGO, Mongolia): The Role of Mongolian Nuclear Free Status in Peace Building in North East Asia 240
- Olga Maltseva(Dialogue of Culture/FEFU, Russia): Women's Soft Power in Preventive Diplomacy for the Preservation of Sustainable Peace 244
- Patti Talbot(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nada) : Faith and Fierce Patience, Seeking Peace in Korea 250
-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USA): Women and Peace in North East Asia 255

Closing

Declaration of 2018 International Women Peace Walk 261

Biographies of 2018 Women Cross DMZ Delegation 262

Opening Ceremony

- 1) Congratulatory Speech**
- 2) Words of Support**

Congratulatory Speech 1

Chung, Hyun-back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ngratulatory Speech 2

Nam, In-soon (Chairperson, National Assembly Committee on Gender)

Words of Support

Ji, Eun hee (Forme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eynote Address

- 1) **Sung Eun Kim**
- 2) **Mairead Maguire**

Keynote Address 1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ed by
Women after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Suggestions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Entire World**

Sung Eun Kim

(Chairperson, Women Making Peace)

April 27, 2018 was a historic day for us all. It was the day when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ointly proclaimed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Peace House at Panmunjom, a site that symbolizes 65 years of division. The two leaders solemnly declared to the world that there would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a new era of peace would begin, helping to bring to fruition the poignant wishes of 80 million Korean people on both sides of the DMZ. It is people—especially women who place the greatest value on life, mutual respect, and coexistence—who can most thoroughly verify and monitor matters such as the level and scope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requested by the US, Washington's incentives for disarmament, the process as well as pace of denuclearization, and the broader issue of global disarmament. Moving forward, women from the South and North must work in solidarity as well as join forces with women from China, Japan, and Russia so that a peace community can be established on the Korea peninsula. In this regard, in the spirit of the May 24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and of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we women who have gathered here today suggest that a declaration encouraging "global nuclear disarmament for world peace" must be proclaimed. At the same time, we strongly believe that social justice and the culture of peace led by women must proliferate.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not a mere declaration for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a declaration for lasting peace in East Asia and throughout the entire world, a declaration that purges the last remnants of

Keynote Speeches

the Cold War regime created by world powers. Here, we should note that what initiated the Panmunjom Declaration was the completely non-violent and peaceful civil revolution in 2016 that began with orderly marches of demonstrators with warm candlelight throughout the wint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was a true example of the UN's Culture of Peace.

Keynote Address 2

Ushering in a New Era of Peace and Feminist Future

Mairead Maguire

**(Nobel Peace Laureate,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

Dear Friends, Good Morning – Jo-eun-achim-immnida,

I am very happy to be back in Korea and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for their kind invitation. I have very happy memories when, three years ago (2015) I participated in the visit of Women Cross the DMZ. We visited Pyongyang, and Kaesong and then crossed the DMZ to participate in peace events in Seoul. I was very moved by the great kindness shown to us all by our North Korean hosts and by all the women when we marched in Pyongyang and Kaesong with 7,000 of our Korean Sisters. They had a passion for peace and Korean reunification and called for a Peace Treaty, reunification of divided families and women's leadership in Peacebuilding. Three years later we are now on the verge of a Peace Treaty!

Today, I am deeply moved to be here in Seoul and to stand in solidarity with you all, at this Conference as you gather to discuss how to support the Peace Process and ensure that a peace agreement is signed that reflects your interests in a postwar Korean Peninsula. As we participate in this Symposium we celebrate that it is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and as we participate in a DMZ peace walk on Saturday 26th of May,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demonstrate International women's solidarity with Koreans and in support for the peace process and to join our voices with our Korean brothers and Sisters proclaiming to the World 'the War in the Korean Peninsular is over.' This vision of peace is not wishful thinking, it is do-able – Peace is possible! However, I believe, to get peace, we must reject violence and war in all its forms, and believe passionately that Peace is possible. Peace also is not only a vision and a right for the people of Korea, it is a vision and a right for people wherever they live to be able to live in peace in their homes, in their societies.

Keynote Speeches

However, in order to have Peace, we are each challenged to take up our responsibility, be brave and courageous, and work with all, men and women, boys and girls, to build peace, and to reject fear and violence.

When people get caught up in the cycle of fear and violence, it takes courageous leadership to take risks for peace and break the cycle of violence. When such courageous leadership occurs, the world rejoices and the sun comes out from behind the dark clouds of fear, despair and growing pessimism that things will never change. Such bravery pushes us all into a new space, a place of new possibilities for peace. It renews our hope and waters our souls with belief in ourselves and others that, 'yes' things can change, we can each be brave, be leaders, and do something for peace! Many of us around the world who watched the Inter-Korean Summit on April 27th, 2018 in Panmunjom, were deeply moved, by the inspirational scenes when President Moon Jae-in, and Chairman Kim, shook hands and stepped together across the DMZ thus taking brave steps into a new future full of great new personal, political and economic possibilities for the Korean people. This was truly an emotional and magnificent moment, and it will go down in history as a great unifying act of peace and reconciliation of Korean brothers and sisters in the Korean Peninsula.

To listen to their speeches, and hear North/South Korean Leaders tell the world that War in the Korean Peninsula is over, and it is over on the Korean peoples terms as it has been done by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Also to give Korean leadership on a programme for a Peace Settlement, denuclearism, disarmament and building the peace was truly inspirational for many of us. As Political Leaders they have lead by example and put their differences aside for the good of Korea and its people. They have both put a lot on the line and need all our support for their peace efforts. But the Korean people, must be vigilant as I am sure they are well aware, as we all are, there are those geo-political forces, who do not want peace and as they have done in the past and will continue to do, and keep the Korean people divided and separated, for their own selfish and greedy geo-political interests.

In 1976 in our own situation in Northern Ireland, we were trapped in a cycle of violence and it seems we were spiraling into all out ethnic/political civil war. However, when three young Maguire children,

died as a result of the violence, thousands of people, mostly women, took to the streets demanding an end to violence, by state and non-state actors, and a nonviolent peaceful settlement to the problems with which we were faced. Their message was clear and they said ,there will not be a paramilitary, or a military solution to our problems, we have to solve these differences, through dialogue, negotiation, compromise, and reaching a win/win solution for all the Northern Irish people. We started at the grassroots encouraging people to start listening to each other, respecting the other person and not, demonizing the other, or using rhetoric which was disrespectful of others, simply because they had different religious/ political/ cultural/ sexual/ etc and beliefs. Accepting diversity and plurality and learning to live with each other in a multi-cultural/ multi-ethnic world is the challenge before us all wherever we live. Forgiveness too is an important element in peacemaking and is a key to peace. We have all hurt each other,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but saying, sorry will help the healing process for both people and countries, and its a small price to pay to lay the foundations of friendship and harmony so necessary for our own and our families mental and spiritual wellbeing.

In moving from a culture of violence to a culture of peace, we need to study the Science of Peace, both in theory and practise and teach non-killing, nonviolence and conflict resolution at every level of our societies. We join with others in working for a demilitarized disarmed world, as we believe it is only by abolishing militarism, weapons, nuclear weapons and wars we can truly all together build a healthy environment and a safe future for our children. In our peace movement, we are working with many others to change government policies to policies which enrich and safeguard human security, i.e. education, health, environment and etc. during our Peace process women played a critical and decision making role at the negotiating table insisting on all inclusive, unconditional talks, and respect for all across the genders. We have been blessed to see an end to Northern Ireland's violent conflict but acknowledge too that post conflict peacebuilding is a work in progress.

In conclusion, I wish the Korean people every success as they build a unified peaceful Korean Peninsular. I encou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note Speeches

of peacemakers to support the Korean Leaders and people in their long hard struggle for peace. Peace does not come easily but with dedication, hard work and courage, which the Korean people have in abundance! It will come! I believe that each and every Korean has a duty and the power to guarantee the success of this momentous moment in history of ending war in the Korean Peninsular.

Thank you, Peace and happiness to you all!

Plenary Sessions

- 1) Choi, Sung hee**
- 2) Mary-Wynne Ashford**
- 3) Ko Eun Kwang-soon**
- 4) Rebecca Johnson**
- 5) Kim, Jeongsoo**
- 6) Kozue Akibayashi**
- 7) Kin Chi Lau**

Presentation 1)

April 3rd, Gangjeong, and Women' s voice

Choi, Sung-hee

**(Gangjeong village international
team, Jeju, Korea)**

In the writing, there are three questions: (1) Why do we need feminism view on the Jeju April 3rd upon the 70th year of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2) Gangjeong is Jeju April 3rd. But at the same time, it is not. Why? (3) Why do we need denuclearization and demilitarization of Jeju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Northeast Asia?

Firstly, one of the sorry things in President Moon Jae-in's 70th year memorial address is 'absence of women.' To realize 'Our future for peace and human rights' which he emphasized as a conclusion in memorial writing, we need a view of feminism.

Secondly, why Gangjeong is April 3rd? Gangjeong and April 3rd is essentially same with each other in the senses of resistance and historic background –the cause of resistance. Unless Gangjeong is recognized as another April 3rd, 'complete' solution of 4·3 is distant. The violent nature of Jeju navy base should be widely and deeply perceived. It should be certainly closed. Both struggle of 4·3 and Gangjeong is on the continuous line of history: Jeju Islanders' endless struggle toward 'life and peace community.'

Thirdly, why do we need denuclearization and demilitarization of Jeju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Northeast Asia? the concept of Peace Island of Jeju started to be discussed in 1991. From the beginning, it was based on neutralization or denuclearization of Jeju. However, advocates of 'Demilitarized Peace Island' in the early period 'began to gradually retrograde to the security logic of cold era, 'peace by military force' and finally arrived to 'sophistry that it is possible that Peace Island and military

2 Session

base can coexist.’ As such, the discussion on the Island of Peace which started ‘from the up’ was concluded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completion of Jeju navy base. As if it is not enough, the 2nd Jeju airport project is being processed despite the opposition by local people. Militarization is underway throughout the whole Jeju Island. It is the time that we earnestly consider discussion on the demilitarized Peace Island again. ‘from the bottom,’ joined especially by women. One of those steps is ‘denuclearization campaign.’ We should also watch the move of UN Command and NATO. On March 30, Gangjeong villagers expressed by vote their opposition to the navy’s invitation plan of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the Jeju navy base. Finally, we need solidarity by women for anti-base, anti-war and life & peace across regions.

Presentation 2]

Role of Women for Peacebuilding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Charles Dickens wrote about Paris and London in the French Revolution, but his words echo today for North and South Korea. It is the best of times because there is finally hop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ope for an end to sixty-five years of war.

It is the worst of times because the threat of nuclear war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s real and terrifying. War has separated North and South Korea, divided families and kept North Koreans under embargoes for 65 years.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s under the current sanctions is a humanitarian disaster. Sanctions are described by their supporters as diplomatic tools to be used instead of military strikes. Sanctions are not tools of diplomacy. They are tools of war – cruel, barbaric tools of war. They are tools of war that disproportionately strike women, children, the sick, and the elderly – the weakest and most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hen I was in North Korea in 1999 and again in 2000, I led a delegation of leaders of the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meeting with North Korean doctors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nuclear war.

Doctors know that in case of nuclear war, medicine has nothing meaningful to offer.

Because the DPRK was still recovering from floods and famine, we took with us humanitarian aid in the form of \$50,000 USD of an antibiotic called Ciprofloxacin, donated by an American Pharmaceutical company.

2 Session

We visited the hospital in Pyongyang and saw the consequences of the severe shortage of electricity on hospital care. Modern Western medicine requires electricity for almost every procedure from the pumps for IV solutions to the CT scanners, X-Ray and ultrasound machines and diagnostic laboratory tests. Surgery requires electricity for lights, anaesthetic machines, monitors, laser equipment, laparoscopes and so on.

We were taken by van to the paediatric hospital in Kaesong City. We were literally the only vehicle on a six lane divided highway. In Pyongyang, most of the vehicles were for the humanitarian agencies like UNICEF, and the Red Cross. At night the city was in total darkness.

Because the doctors could no longer practice Western Medicine, they were us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order to offer whatever they could to their patients. They were using the hospital corridor to dry ginseng in the absence of the medicines previously available. The diagnostic lab was not in operation because of the lack of reagents. Diabetes and other chronic diseases could not be treated.

Today the situation is much worse. Rubber gloves, sterile operating room gowns, scalpel blades, suture materials, spare parts and medications are not available because of the sanctions. Disposable items are saved and re-used with risk to patients. Scalpel blades are rusty, dull and dangerous. Current medical journals and texts are not available. How will children be immunized against the common childhood diseases like measles, whooping cough, diphtheria and polio? Pneumonia and measles become deadly diseases in malnourished children.

The lack of oil affects food production because pumps cannot be used in the rice paddies, produce cannot be transported by trucks into the city, fertilizers are not available, and food cannot be processed. People must be on foot instead of in buses. The resulting food shortages affect women and children disproportionately because pregnant women require extra prenatal nutrition to susta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fetus, and, after delivery, sufficient calories to be able to nurse and care for the baby.

Sanctions were not supposed to have severe effects on the civilian population. Paragraph 26 of the recent Resolution 2375, passed in September 2017, explicitly states that UN sanctions against the DPRK:

“...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or to affect negatively or restrict those activities, including economic activities and cooperation, food aid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are not prohibited (.....) and the work of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rrying out assistance and relief activities in the DPRK for the benefi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This statement disregards the lessons of history. The effects of sanctions are well known because they were used against Iraq, where they caused th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children.

In North Korea in winter, the lack of electricity makes cooking and heating very difficult. In rural areas, wood is cut for heating and cooking, resulting in deforestation in mountainous areas at risk of floods. Infrastructure repairs require oil for equipment and rebuilding after flood damage. When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order medical equipment, blankets and supplies, distributors are reluctant to fill the orders lest the shipments be turned back. Sometimes they substitute lower quality items for the materials ordered.

UNICEF reports that under the current sanctions on the DPRK, some 60,000 children will die. Children who survive will be malnourished and suffer stunting. Stunting causes permanent consequences, including brain damage. The 2017 UNICEF report states that 28 per cent of all children aged five and under already suffer from moderate to severe stun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demand an end to this humanitarian crisis. The UN agreement, "Responsibility to Protect" states that when a country is unwilling or unable to protect its citizen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fall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must take this responsibility seriously and ensure that humanitarian aid and workers are

2 Session

able to get into North Korea urgently, and that international banking and money transfer systems be restored. North Koreans must be allowed to work abroad and transfer their earnings to their families.

Ending sanctions must not wait for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and plans for a Peace Treaty and reunification. Humanitarian work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exchange visits for training and education, and family reunification can begin as part of the peacebuilding process.

Women must be involved in all stages of resolution of this conflict and the peacebuilding process. Adherence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 transition toward peace is inclusive and stable. The global Study reviewing fifteen years of 1325 UNSCR implementation provides comprehensive evidence that women's equa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peace and security efforts is vital to sustainable peace.

The role of women in reducing armed conflict is well known today and the importance of including women's rights in post conflict peacebuilding is very clear. The status of women in a society affects the likelihood that a state will choose military options in foreign policy.

The longer women have had the vote, the less likely the state will go to war. (Caprioli)

Here are a series of conditions that each lead to a fivefold decrease in the likelihood of the use of military violence.

- increasing the number of years of women having the vote

- increasing the number of women in parliament by 5%.

- decreasing the fertility rate by one-third (fertility encompasses level of education, economic opportunities, political rights, and overall social status)

-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labor force by 5%,

When men and women work together on peacebuilding, the men have been observed to focus on more on pragmatic details, and the women on

relationship building. Both genders are necessary, and the outcome is stronger when both perspectives are brought into the discussions.

Canada's Foreign Minister, Chrystia Freeland stated: "The path to peace needs empowered women. Where women are included in peace processes, peace is more enduring; where women are included in the economy, economic growth is consistently higher; and where women are included in governance, states are more inclusive and more stable."

As the peace process evolves we know there will be obstacles and resistanc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This is a time when North Korea must be brought into the world community again and South Korea must be supported in this re-integration. Education and employ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even cultural differences may prove difficult, but commitment to build trust and cooperation can lead to positive outcomes and stability. This is the time for professional and cultural exchanges, tourism, shared economic ventures and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 This is the time for women to step forward to lead and inspire the world.

Caprioli, Mary, 2000. 'Gendere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37(1): 51-68

Presentation 3)

Current status of Anti-Personnel Mine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ed by Women

Ko Eun Kwang-soon

(Representative, Peace Mothers of Korea)

1. Landmine — a thunderbolt on the ground! The cheapest and meanest killing weapon! Landmines began to be widely used in 1939 during World War II.

2. The types of landmines found in Korea and the most problematic anti-personnel landmine: the M14.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ver 2.5 million landmines were installed by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ese landmines are not confined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There are over 75,000 landmines installed in 39 locations across South Korea (including Seoul and Busan). As South Korea's Ministry of Defense removes about 500 landmines annually, the complete removal process is expected to take 489 years. There have been a total of over 1,000 landmine victims since the armistice in 1953, and 80 percent of these victims are civilians. Here are some of the challenges in removing landmines: The M14 is made out of plastic, so it does not decompose and is difficult to detect. It's also small and lightweight, so it can easily be swept away by floodwater. April 4 is the "International Day of Mine Awareness and Assistance in Mine Action" designated by the United Nations. So far, the U.S. and both Koreas have yet to ratify the UN's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Washington's official position is that anti-personnel landmines are necessary on the Korean Peninsula. More than 110 million landmines are currently installed around the world, claiming over 15,000 new victims annually. (Source: ICBL/KCBL) The movement against anti-personnel landmines is both a humanitarian movement and a disarmament movement (the reduction and closing of U.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wholesale removal of landmines, etc.). We need to find eco-friendly ways to remove landmines in the DMZ that can preserve its ecological purity. Women of all nations! Unite until the last weapons

2018 International Women's Peace Symposium

factory on Earth closes its doors! Love and peace are needed for life and living!

Presentation 4)

Climbing down from the Nuclear Monster

– a challenging necessity for peace and security

Rebecca Johnso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UK)**

Can you imagine if nuclear weapons were used anywhere in North or South Korea? It's possible, we know. But the actual impacts and feelings are too terrible for most people to really think about.

What if it's your home city that has been blown up in a gigantic fireball? Or, if nuclear bombs destroyed another city, other families and the perpetrators said they did this in your name, on behalf of your security?

Nuclear war, radioactive poisoning, nuclear winter, billions dying of starvation... are unthinkable; and yet we have to think about them.

Now I want you to imagine that we have stopped these weapons of mass annihilation being used, anywhere in the world. Imagine that we have banned and eliminated nuclear weapons.

We're half way there.

Last year, 122 UN member states adopted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after intense negotiations chaired by Ambassador Elayne Whyte Gomez of Costa Rica.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for our collective efforts to build a diverse network of over 400 NGOs in a hundred countries to persuade so many governments to face down the bullying of the nine nuclear-armed states. Together we enacted a powerful new treaty that clearly bans nuclear weapons for everyone.

This Treaty is now part of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regime and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t can be a powerful tool to help us get rid of nuclear weapons.

Before I go on to discuss the Korean context, where nuclear weapons have played a dangerous role since the 1950s, I want to describe this ground-breaking Treaty in more detail, as its adoption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misinformation and misunderstanding.

The 2017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he new UN Treaty derives its moral force from 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nuclear weapons. Recognising the suffering caused to the Hibakusha of Hiroshima and Nagasaki and indigenous people affected by nuclear testing, the Treaty makes clear that there are no legitimate uses of these abhorrent weapons. It enshrines victims' rights and, for the first time, acknowledges the gendered impacts of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ation. And, indeed, women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imagining, organising and achieving this Nuclear Prohibition Treaty.

Under the Treaty it is prohibited to use, threaten to use, develop, test, produce, manufacture, otherwise acquire, possess or stockpile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There are further prohibitions on transferring and receiving nuclear weapons and technologies, allowing anyone to deploy or station nuclear weapons, and encouraging or assisting any others to commit acts that are prohibited by the Treaty.

The Treaty provides two basic legal mechanisms by which nuclear-armed and nuclear-dependent (umbrella) states can comply and join the Treaty. The end result –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nuclear disarmament – is the same, but the two different options provide alternative ways to achieve it, which can be adapted to the particular security and political conditions and sensitivities of the relevant nuclear-armed states and their allies.

The Treaty does not create different classes of states parties, and offers

2 Session

constructive avenues that might work better for North Korea – and also India, Pakistan and Israel – than the failed calls to joi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s non-nuclear weapon states. On the basis of non-discriminatory, universally-applicable prohibitions and obligations, it puts all the nuclear armed states under more practical and political pressures to disarm than they have previously faced. Some tried to derail the process, fortunately without success. As the TPNW enters into force and its provisions become law for the majority of states, it will diminish the status and incentives that drive nuclear ambitions.

The Treaty will enter into legal force when 50 states have acceded. Already 58 states have signed and 9 have ratified, so it is well on its way. Once it enters into force, our moral recognition that any use of nuclear weapons is a crime against humanity will become a legal reality, as it is for the use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If it is properly understood and used, this Treaty can be a strong and effective tool for denuclearising the Korean Peninsula. It is consistent with the long-standing goal of establishing a zone free of nuclear weapons in North-East Asia, and provides the legal and normative underpinning for enhancing global security and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Nuclear Weapons and Korea

Due to recent high profile testing of nuclear warheads and missile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is famous, but that doesn't mean there is reliable information on what weapons have actually been made or could be used.

A bit of historical background is needed to provide context, as we resume the difficult delicate diplomatic dance for disarmament and peace.

It is horrifying to recall that in 1950 senior US policymakers wanted to use nuclear bombs in the Korean War. Wiser heads prevented such an atrocity, but from 1958 it was decided to deploy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The South also pursued its own nuclear programme, even

after signing the NPT in 1968. US and diplomatic pressure helped to end this, formalised by Seoul's ratification of the NPT in 1975.

Land-based nuclear weapons were officially withdrawn in 1991, but over 25,000 US military personnel continue to serve in some 15 bases, and nuclear-armed submarines and ships continue to patrol.

For several years, concerted local and international protests tried to halt the construction of a large naval base at Gangjeong, Jeju Island. The so-called "Jeju Civilian-Military Complex Port" was driven by military desires, notably for US sea-based missiles able to threaten China and North Korea. This base is a tragic mistake that has cost the Jeju people far too much in human, environmental and security terms, bringing greater risks for the future.

From 2002, when George W. Bush named North Korea, Iran and Iraq as an "Axis of Evil" before invading Iraq, it should have come as no surprise to deterrence advocates that North Korea and Iran both accelerated their nuclear programmes and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s.

To build security without nuclear weapons we have to tackle the problematic role of nuclear deterrence. A mad dash to acquire – or appear to acquire – nuclear weapons fits classical deterrence theory as a rational response to the threats inherent in the Bush regime's policies and rhetoric. But nuclear deterrence beliefs and policies are major drivers of proliferation.

With the 1994 Agreed Framework dead, Six Party Talks were tried, but these ceased in 2009. North Korea announced its withdrawal from the NPT in 2003. Its ensuing high profile testing of missiles and warheads increased the threats and insecurity felt by South Korea and Japan. This in turn bound them closer to US nuclear and missile defence interests and dependence on so-called extended deterrence and US military policies, creating an offence-defence spiral of threats and counter threats that brought North-East Asia – and the world – closer to nuclear war.

2 Session

Looking Forward

Labelling North Korea, Iran and Iraq "evil" in 2002 was rhetoric in a presidential speech meant to psych Americans up for launching war on Iraq. Yet its dangerous consequences are still blighting our global security today.

We cannot allow this to happen again. The recent nuclear threats bandied around by Donald Trump, Vladimir Putin and Kim Jong-un have reminded the world that there are no safe hands for these unsafe weapons.

That's why they are being outlawed at last, and through the Nuclear Prohibition Treaty we will be able to hold individual leaders and others along the decision-making chain accounta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f nuclear weapons are threatened or used again.

We have a new chance to bring about peace and disarmament. Presidents Moon Jae-in and Kim Jong-un have set the ball rolling, and we have to hope that Donald Trump will move it in a peace-enhancing direction as well.

After six nuclear tests, the recent announcement that North Korea would halt all nuclear warhead and missile testing and close down its nuclear test site is welcomed. Even if Kim Jong-un is making a virtue of necessity because the Punggye-ri test site has become dangerously damaged, all sides should seize this opportunity to lock the offers and promises into law and action.

An obvious first step is to persuade North Korea to join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and enable the CTBT Organisation's inspectors to verify the process of closing and cleaning up the test site. To underpin these calls it's time fo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show leadership and ratify the CTBT as well, having both signed it in 1996. No more delays or excuses.

Diplomacy works best when it takes into account the psychologies of the

protagonists and helps to shape positive interests and ambitions. Instead of setting up barriers by endlessly stigmatising North Korea as a violator, we need to think how to make comprehensiv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into a cooperative undertaking for all states in the region.

One barrier is that North Korea now declares itself to be a "nuclear weapon state", a status that cannot be recognised under the NPT even if the purpose is complete disarmament.

We have to understand why North Korea jumped onto the back of the nuclear monster, and also that Kim Jong-un is clinging on for dear life, proud of riding this monster but desperate to find a way to jump down without losing face or getting devoured. So what can South Korea, the US and the rest of us do to help him deal with his fears and climb down safely?

In my view, two approaches offer a way to do this. One is the new UN Nuclear Prohibition Treaty; and the other is a process to establish a nuclear free zone covering the Korean Peninsula or perhaps North-East Asia as a whole. Both can be pursued simultaneously, as they are mutually reinforcing legal instruments, not rivals.

Pyongyang has long called for a nuclear weapon free zone covering the Korean Peninsula, and in 1992 both Koreas agreed to some basic principles, including that neither side would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All of these activities are now clearly prohibited in the TPNW.

By signing the Treaty, the relevant states could build mutual confidence and benefit from the international framework being put in place to legally embed and enforce its prohibitions. The Treaty is likely to develop monitoring and oversight mechanisms, incorporating roles for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CTBT Organisation.

The 1992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so decided that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2 Session

facilities would be forbidden to both sides. This too would build confidence, and could be negotiated bilaterally or as part of nuclear-free zone talks.

More recently, in 2016 Kim Jong-un set five conditions for denuclearisation that apply more specifically to the United States. These are: that Washington publicly disclose it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remove and verify that US weapons are not present on US bases in South Korea; guarantee not to re-deploy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as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threaten or conduct a nuclear strike on North Korea; and withdraw US troops authorized to use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No doubt some or all of these will be raised during the Summit with Donald Trump, and we have to hope that open minds will look for ways to reassure all sides that such steps towards disarmament and confidence-building will be worth discussing.

Conclusion

The stakes are high. We can now see that nuclear weapons are a problem and not an asset. The fundamental obstacle to disarmament is the value attached to nuclear weapons, including deterrence.

When the launch of a nuclear weapon is just one tantrum away, deterrence is meaningless.

Disarmament is most likely to be achieved as progress is also made towards demilitarisation, mutual security, peace and human rights. Preconditions, however, should not be set in the negotiations as they tend to create barriers, as they have done in the past.

When President Moon invited North Korean athletes to participate in a joint Korean team for the winter Olympics he created a bridge.

When North Korea voted in favour of the 2016 UN resolution establishing nuclear ban negotiations and Kim Jong-un spoke recently about economic needs, they were sending important signals.

2018 International Women's Peace Symposium

When women imagined banning the bomb, we organised an unstoppable movement that paved the way for the 2017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Our challenge now is to make it work for regional as well as global security.

We have a choice. Will we eliminate nuclear weapons or let nuclear weapons eliminate us?

Presentation 5]

A Northeast Asian Peace Created by Women

Kim Jeong-su

**(Korea Women's Peace Institute of
Women Making Peac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linked to peace in Northeast Asia. While the Korean Peninsula is moving toward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its Northeast Asian neighbors (China, Japan, Russia, and the U.S.) will seek to maximize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and to intervene as stakeholders. As such, efforts must be made to build peace in Northeast Asia, and in this regard,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and a Northeast Asian Common House can serve as one model.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omen in Northeast Asia have reached beyond national borders and national interests to work in solidarity and cooperation. The Korean Peninsula is now witnessing the final chapter of the Cold War regime while facing a great transformative era in global history. It is our hope that women in Northeast Asia will make a wide range of efforts to promote peace at this historic moment.

Presentation 6)

Feminists must support the Korean Peace Process for a Decolonized

Kozue Akibayashi Ed.D

(International President,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I am sure everyone here is thrilled to be at the historic moment for the hope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a long over-due moment for the Korean people, also for all of us in the world. Th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has always been cited as the source of insecurity and threat, justifying many military build-up plans and increasing militarization in this region and beyond. This is the time for feminists to suppor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call for solidarity around the world. To do so, I hope to share my thoughts on the meaning for us, feminist peace activists to be actively engaged in the process by identifying key concepts that should guide the Korean Peace Process: decolonization, demilitarization and gender equality.

The Korean War is a result of interlocking of colonialism, militarism and sexism. The 70-year-long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its origin in the colonial rule of the Peninsula by Japan that started officially in 1910 by the “annexation,” if not much earlier in the expansion of Japan in its modern nation building process from the late 19th century onwar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Koreans were the colonial subject of the Japanese Emperor, placed at the bottom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the empire. They were deprived of their cultural and ethnic identity, their language, or their own name. Under the colonial rule, many Koreans came to Japan seeking for better life. Many other Koreans were forced to come to Japan for cheap labor if they were ever paid. In Japan, they were a subject of discrimination and various forms of violence, including the massacre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when thousands of Koreans were killed by the Japanese because of the baseless

2 Session

rumor that Koreans had poisoned a well to retaliate against the Japanese. This is only one example of the numerous cases of violence against the Koreans by the Japanese.

Fast forward the history to 1945, the Korean Peninsula was supposed to be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s Japan was defeated by the Allied Forces in the Asia-Pacific War. It was only an illusion. The power and opportunity for self-determination of the Korean people was taken away. Now they were under the direct US military occupation, the main actor in the Allied Forces. The US occupation of Japan spared Japan from being held accountable for the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ther areas that Japan had colonized, creating the persistent source of contention in the region for the following decades.

This is an evident part of the history of the region to the Koreans. But this history is not a shared knowledge in Japan. The accounts of this aspect of our history are not included in the history text books, thus not inscribed in the national memory. For that, the gravest responsibility lies in Japan, but it was also the political decision of the United States, the primary designer of the post Asia-Pacific War policies towards the North East Asia that prioritized stabilizing Japan to bringing justice to the colonialism in the wake of the "Cold War". Continuing militarism prevailed, and it was this militarism that had led to the actual warfare of the Korean War.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in the Japanese context,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experiences of the two ethnic groups in Japan who have been most affected by the Korean War. One is Zainichi Koreans/Korean Diaspora in Japan and the Okinawan people. Both groups of people were colonized by Japan as I described earlier around the 19th century, and remained the target of racism and discrimination even to this day.

Zainichi Koreans include the first generations and their descendants living in Japan. As all the colonial subjects lost their Japanese nationality at the conclusion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2 when Japan regained its sovereignty, among Zainichi Koreans there are those who maintained their

Choseon nationality, which is the temporary naming of the status of those who have their or ancestral roots in the Korean Peninsula, those who have been naturalized into South Korea, and those who naturalized into Japan.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direct impacts on the Zainichi community that are also deeply divided within. The Japanese people have always discriminated Zainichi, socially, politically and culturally. More recently they are the target of open hostilities and violence. Hate crimes have increased. The ethnic school in Kyoto where Zainichi children can learn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of their own was literally attacked by the racist group in 2009. This violence has been tolerated in Japan in a post-colonial situation. It has been tolerated because of the demonization of North Korea, an essential element of the almost 70-year conflict. As many of you know that women endure more burden in such situations in an oppressed community, and Zainichi Korean community is not an exception. It is only recently that Zainichi women started to raise their voice.

The Korean War has always been used as a justification of the military build-ups and militarization in Japan. Those who were most affected is the people of Okinawa, the southernmost archipelago that was also colonized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of Japan. They have always been identified as the key military strategic location by Japan during the Asia-Pacific War and then by the US military after the defeat of Japan. The US military directly occupied Okinawa from 1945 to 1972 even after Japan went independent in 1952, and the US military has been stationed in Okinawa since then. The US military has occupied a large portion of their island, has destroyed the environment, and violated the basic human rights. The well-being, livelihood or even survival of the people of Okinawa have been compromised as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claimed that US military preparedness has the priority because there is still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ome feminist peace movements in the region have called out about the problem of the militarism, colonialism and sexism by addressing the issue of sexual violence by the military.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efforts to bring justice to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military during the Asia-Pacific

2 Session

War, "Comfort Women" problem or "Comfort Station System". Thousands of women and girls, the majority of whom are from the Korean Peninsula, were made sexual slavery in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Japanese imperial military. This is a clear case of manifestation of militarism, colonialism and sexism. Under the US military presence, the "comfort station" system was again created around the US military bases. They are called "US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system have been in operation since the Korean War period to the present day. Both problems have also used as a political bargain chip to solidify the military alliance of the US, SK and Japan.

In Okinawa where direct combat was waged between the US military and the Japanese imperial military during the Asia-Pacific War, Comfort Stations were established at over 100 locations. It was both women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local Okinawan women in licensed prostitution who were taken to the "comfort stations." Since the US military has landed on their island during the war, sexual assaults by the US military against the people of Okinawa has never stopped. Not a single year passed by in Okinawa without sexual assault by US military since then.

It is clear to us in feminist peace movements in the region that militarism and colonialism have continued to reign in the region, reinforced by sexism. The feminist perspective has offered to analyze the interlocking structure of multiple oppression in which women, the marginalized, have suffered more.

Unfortunately, international feminist peace movements have not been very active in calling for the end of the Korean War explicitly,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call for women's ful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conflict resolution or preventio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have advocated for realization of feminist peace. Now is the time for a global feminist peace movement to support the Korean Peace Process. We will make our voice, the voice of the global feminist peace movement heard to end the Korean War, that is to ensure the liberation of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n diaspora, and to create a demilitarized and decolonized Korean Peninsula and world.

Presentation 7)

The Korean Peace Treaty as a major step to reverse the arms race in Northeast Asia

Kin Chi Lau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Any person with common sense would be aware that the current arms race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will possibly lead to the destruction not only of humanity, but of all life on earth, and even the earth itself. We are the 99% common people, we know that the fuse of nuclear war could be lighted by the 1% elite with vested interest. Instead of peaceful relations of cohabitation, which is the soil for the proliferation of trust and cooperation, those who are supposed to be, and themselves claim to be, our guardians seek to create and perpetuate conflicts, tensions and wars, that is,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increasing investment in the research of techniques and technologies of inevitable destruction. Instead of trust, they breed mistrust; instead of love, hatred; instead of cooperation, conspiracy and destructive competition. Instead of promoting the health of society and humanity, they poison not only the earth, but also the minds and social relations, instituting insecurity as the ground of all relations, tearing societies apart by the continual production of all forms of separation and polarization.

For over seven decades since the use of atomic bombs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so-called balance of terror strategy, which justifies the continuous investment of exorbitant resources into the produc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based on the logic of MAD –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The arms race – with its research, production and usage of weapons – is not only a gigantic wastage of resources on earth, but also a speeding towards death. Since the late 1940s, humanity has narrowly escaped a nuclear war or the Third World War, though regional and local wars have never cease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Common wealth which could, and should, have been used for improving people's livelihood and well-being has been deployed for destruction. Today, the world is ruled by financial capital hand in hand with the military-industrial

2 Session

complex with its base in the major powers, especially USA. The arms race protects not the security of the common people, but the interest of a privileged minority. This privileged minority, composed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leadership of powerful nations, deploys, or threatens to deploy, military force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ir scramble for natural resources, control over territories, and domination in the globalized finance. The 1% minority prevails over the 99% majority not only by force, but also by lies, and blackmails. We the 99% are told to rally behind the war-mongering elite which professes to give us security through preventive or combative measures against the “enemy”. We are told to give up our judgement and give in to the security needs of our nation-states, accepting austerity measures, accepting the devastation of our environment, accepting to be sacrificed.

However, we, the many women’s peace organizations and networks present here today, along with numerous peace movements across the globe, declare our lucid position: we want life, not death; need, not greed; good, not evil; reciprocity, not violence; peace, not war. We reject the blackmails that attempt to coerce us to support the arms race and the MAD. We are committed to prevent wars at all costs, and to eliminate the conditions that fuel wars. We salute the efforts of peace activists, especially those in South Korea, for the decades of work in the struggle for lasting peace and good governance, culminating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current advanc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27 July 1953 by USA, North Korea and China has not been followed up by a Peace Treaty. For 65 years since the Agreement, the Korean Peninsula has remained a sit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There are reportedly 15 United State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alone, and many more in Japan and the Asia-Pacific region. This is the primary factor of instability in the region. The deployment of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system beginning in March 2017 spurred high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It is a great relief when, on 27 April 2018,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signed by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and Chairman Kim Jong-un of North Korea. Hopes are now high fo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move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formalization of a full peace treaty, with unification in prospect.

The wish of the 99% has never been so explicit: we do not permit war-mongering aggressions leading to catastrophic regional and global wars to be launched with any kind of excus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hopeful first step, which must be followed by denuclearization globally. The current encouraging step moves towards reversing the logic of the arms race that institutes a state of exception as the everyday reality in which the question of “national security” overrides questions of law, rights of the people, and democracy. Such a logic turns the question of security as a collective concern into a privatized concern, determined by a few selected elites through secretive decision making mechanisms; the people are expected to passively accept a fate thrust upon us.

Therefore, the move is encouraging because it is a sign of a changing of minds of ruling elites. However, to reverse the race to death, the race to plunder the 99% and to plunder nature, it falls upon all, not only those claiming to be our guardians, to say No to arms race, No to the race to death. The system pursuing arms race diverts gifts and talents of humanity from devoting to the well-being of humanity as a whole, not just the 1%, while the monopoly of financial capital with its systemic crises creates an increasingly harsh and hostile environment against commitment to long-term efforts working for the common good. Gifts and talents are trapped in the whirlwind of short term private gains. The two together not only aggravates our situation of being dragged deeper and deeper into systemic crises, such a path of so-called Development and Progress is not sustainable for its energy dependence, addicted to fossil fuel and nuclear energy, while all it serves is the short-sightedness of private gains, and the destruction of nature's cycle for regeneration. This means that the concern for the arms race today must also take seriously the ecological crisis confronting us now, for it complicates our struggle for peace by confronting us with the question whether we can survive the man-made ecological crises.

Thus, for us the 99%, the question of security is a collective concern, with the well-being and agency of the people placed in the centre. The basis of both socio-economic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follows a logic of

2 Session

justice, wherein communities organize their interdependence in productive and creative cooperation, defending their commons for livelihood and bonding. This is not the logic of so-called Development and Progress which inevitably privileges a minority against the majority, with an inherent aggression fueling war and destruction.

For humanity to have a future, for life on earth to sustain, we need the powerful intervention of the 99%. In this articulation of peace movements and ecological and livelihood movements for another world which is possible, we can learn a lot from women's struggles for peace, that is, struggle for peaceful cohabitation among persons and peoples, as well as for forms of life at peace with nature.

In the name of our children, let us work together to build a world free from nuclear weapons, free from fear, greed and hatred, a world of justice, peace and love.

**Round Table 1
Women and Militarism**

- 1) Kalama Niheu
- 2) Cindy Wiesner
- 3) Lisa Natividad
- 4) Medea Benjamin

Round Table 1–Presentation 1)

A Kanaka Maoli/Korea Alliance for Justice

Kalamaoka'aina Niheu, MD

**(Ohana Koa–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Hawaii)**

Aloha 'aina. Kalamaoka'aina Kil Soon Niheu keia.

My name is Kalamaoka'aina Niheu. I was named in the tradition of our Kanaka Maoli people to honor my ancestors and mark a significant time in for our people. Kil Soon is the name gifted to me in honor of my mother's Korean ancestors. Our family was amongst the first to come to Hawaii during a brief period between 1903 and 1905. Kalamaoka'aina, my first name means The Fire that Feeds Us, a name in honor of my Kanaka Maoli father and the Kalama Valley Struggle, a struggle that brought my parents together. A struggle that is now recognized as the birthplace of the Hawaiian Renaissance, the rebirth of Kanaka Maoli culture and people. The struggle inspired our fight to illuminate the dark places where our people were left to die after the overthrow of our Kingdom in 1893. The overthrow I refer to is the 1893 act of war by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peaceful, neutral,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Kingdom of Hawaii at the behest of a small number of white businessmen. One hundred years later, on November 23, 1993, Congress recognized that the overthrow was indeed an illegal act and apologized to the Native Hawaiian community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Tragically Kalama Valley was destroyed, but that struggle paved the way for other struggles against U.S. occupation in Hawaii including Wai'ahole, Waikane, Kahana Valley, and Kaho'olawe, and many more. All were ahupua'a earmarked for destruction and clearance in the 1970's, but were instead preserved through people's struggle, occupation, and community education.

Climate Change and the Military

Kanaka Maoli are intimately familiar with the intensity of militarization

and the normalization of U.S. imperial violence. The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US PACOM), located on O'ahu,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US troops over more than 50 percent of the earth's surface. The area stretches from the west coast of the US to the western border of India, and from Antarctica to the North Pole, encompassing 36 countries as well as 20 territories and possessions.

According to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n 2009, the combined services in Hawaii had 113 military installations for a total of 231,560 acres. In my home of O'ahu, the military controls 22 percent of the island. Tanks and military convoys line our highways; lands filled with unexploded ordnance from military exercises impede our traditional gathering rights; water is diverted from its natural course to feed military bases; the booming of war games disturb our fishing on a regular basis; lands are stolen. We are an occupied nation living in one of the most heavily militarized places on the planet.

This military might goes hand in hand with protecting American economic interests abroad. Hawai'i is often the host for gatherings that marry the two, most notably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nd the Rim of the Pacific Exercise (RIMPAC). RIMPAC is the world's largest international maritime warfare exercise where military might is displayed, trained, and traded. One of the most horrific exercises under RIMPAC is the training of the Indonesian military that is currently engaged in the active genocide of the peoples of West Papua.

In our home, military aggression is a never-ending adversary that fuels the dangerous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s the single-largest consumer of fuel in the world. Despite rising fuel costs and a limited supply of oil, the military's fuel consumption has been growing in recent years. In World War II, the armed forces used about one gallon of fuel per soldier every day. In Desert Storm, fuel usage was about four gallons. By 2007, with operations in Iraq and Afghanistan, usage was up to 16 gallons, or \$3 million worth of fuel a day." We se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the way the hungry tides are slowly eating at the edges of our islands. If the trend continues, we know that our fate will be like

that of our cousins in Kiribati and Tokelau. These Pacific Islands are much lower lying atolls that are disappearing under the sea, the first victims of sea level rise. Lower socioeconomic status is the single largest predictor of enlisting in the military. The ranks of military aggression are filled with youth who, due to poverty, have no other option but to join the military in return for some means of upward mobility. The military allows for their personal advancement by participating in the oppression of other peoples with whom they have more in common than with the ruling classes.

I find it a great tragedy that my home has become a jumping off point for US oppression and extraction throughout the world by its role as PACOM. For me, it is not simply that I wish to be free from oppression; I also wish to be free from participating in the oppression of others. It hurts my heart to know that when the Iraq War started, the military built a Muslim village complete with a small mosque and trained American soldiers how to invade civilian territory. Now, with tensions rising with Asia, a similar village, this time Korean in design, has been erected to do the same.

1. Systems of Sustainabilit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scientific community is in overwhelming agreement that climate change is an imminent threat to the entire planet. Yet, the United States, our occupier, has actively denied the existence of climate change and in fact has taken aggressive steps toward increasing fossil fuel dependence.

As an Indigenous scientist, I see a time of critical intervention. What we must demand is a return to systems of sustainability. Kanaka maoli systems of sustainability are based upon ohana, or extended families. Each ohana was responsible for the stewardship of ahupua'a, or traditional pie-shaped land divisions from the highest mountain peaks extending down to the ocean depths. Every ahupua'a was self-sustaining in its own right, comprised of everything that was needed to clothe, feed, house, and nurture a community coordinated via a complex set of laws and cultural norms called Kanewai. This system nurtured approximately 700,000 people with no need for imports. This stands in sharp contrast to present day Hawai'i, where 90 percent of foods are imported.

Part of my journey during the past 22 years has focused on revitalizing our food sovereignty by supporting traditional, kalo (taro) farming. I belong to an alliance of kalo farmers who have maintained the secrets of this science in spite of great persecution and hardship. In the early 1900s, land and water stolen from us starved us of our traditional systems of sustainability. What once was a flourishing food base was severely curtailed and replaced with plantation sugar and pineapple for export. Kalo, revered by our people as Haloa, the elder sibling to Kanaka Maoli, dried up in most places, as water was diverted away from the fields.

It is here we see most starkly why our systems of sustainability needed to be dismantled by colonization. Our people, empowered by the knowledge of the interconnectedness of our lands, peoples, and resources, would always find conflict with a system that seeks land and resources for profit and without regard for the future. Reinvigorating our ancestral pathways is not enough. We must also make global alliances. After the nuclear testing in Tahiti and the Marshall Islands my family was a part of the a powerful Pacific wide alliance called 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My father and other Kanaka Maoli were instrumental in that leadership since the 1970's. We understood that the horrors of nuclear annihilation went hand in hand with the horrors of militarization and colonization. More recently many of us in Hawai'i joined in the struggle at Standing Rock beginning in 2016. Standing Rock was an Indigenous-led struggle that connecte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sacred waters and standing against an oppressive and destructive fossil fuel industry. I was among 30 other healers who helped create the Standing Rock Medic Healer's Council. Global alliances are the same reason that I am here, with our relatives in Korea, to resurrect Hawaii's role in the Pacific as a neutral peaceful nation. Regardless of our occupied status. We still believe in this kuleana, or responsibility, as a sacred duty. Although I am Kanaka Maoli, I am also Korean! And my ancestral blood calls out in unity with the people of this great land.

It is an honor to be here, to join with you, to bear witness to your struggle here and your recent great triumph towards re-unification. To stand in unity with your deep and abiding quest for peace. We stand with you in the belief that it is unacceptable to have our villages invaded,

2018 International Women's Peace Symposium

bombed, and besieged. To see our homes rendered dangerous, dry, and uninhabitable. The only path forward is one of unity, power, and peace. Malama pono kakou.

Round Table 1–Presentation 2)
Unresolved Korea War, Militarism in Asia and Pacific and Women's Resistance Roundtable

Cindy Wiesner
(Grassroots Global Justice, USA)

Greetings: I am the National Coordinator of Grassroots Global Justice Alliance (GGJ) in the United States, GGJ is a multi-racial, multi-sectoral alliance of more than 60 affiliates of the grassroots organizing sector building a popular movement for peace, democracy and a sustainable world. Our work is intergenerational, mixed gendered and visibilizing the leadership of women, gender non-confirming people, LGBTQ and historically marginalized people in the US: Black, Latina/o, Asian Pacific Islanders, Arab, and white working class. We support each other in each other's local struggles and have been collaborating with international allies that share our vision and commitment to building a transformative social justice movement beyond borders. We describe our work as grassroots internationalism (which means cross racial solidarity here in the US and in joint struggle/solidarity with social movements around the world)

I am very honored to be invited by Seoul International Women's Peace Symposium organizers and to be on this incredible International Women's Peace delegation. But most importantly to be able to have this amazing opportunity to come to South Korea at this political juncture in History. Special recognition to the Korean social movements and in the diaspora, especially Korean and Korean American women who are really the architects of Peace here.

I am going to raise some strategic questions not only for us, our organizations and movements to continue to delve into, but are really bigger movement questions/debates for us in the US, and globally as well. I still am trying to formulate all my ideas.

Context since the election in the US:

There is no mandate— almost 3 million votes, and many more people that could not vote: youth, undocumented, residents, or those that abstained. The election being hacked, plus voter suppression. 80% percent of people of US did not support Trump, which is the majority of people in this country, and we have to remember to make assessments and devise our strategies based on that fact and not only from an electoral lens. That is important but not the only factor.

But despite that, we are in unordinary times: Trump, Pence, this version of the Republican party poses a grave danger to me and people who are like me (who are queer, women, working class, Latina) people I care about, to you and millions of other people in this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Global right wing shift: from what is happening Europe, the infamous Brexit vote, to right wing led coups from Honduras to Brazil. The resurgence of right-wing populism—globally—is a manifestation of the combined crises of neo-liberal capitalism, the crises of the environment and questioning of state legitimacy. For this reason, opposition to right-wing populism, in its various expression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fight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 at least in the strategic sense.

According to Bill Fletcher, Jr: “Right-wing populism arises in the context of a global wealth polarization; limited resources (due to both the environmental crisis and the reduction of resources for the masses due to reactionary economic policies); and global demographic changes. In the wake of the on-going crisis of democracy, right-wing populism has provided: irrationalism: fake news, conspiracy theories, fear based agitation and responses, isolationism, not based on facts/reality.”

Speaking explicitly about the US, the Left and progressive forces have been unable to construct a coherent strategy for winning and holding governmental power. The demise of the democratic party the “Wall Street with connections to the civil rights establishment – Clinton faction vs. The New Deal, Elizabeth Warren vs. Democratic Socialist, Political Revolution–

who was economic determinant who was correct in his fight against the billionaire class., and in the early phases did not get the centrality of race and gender.

Not taking Trump and rebirth of right wing populism seriously was the biggest error that the democratic party, factions of republican and the left made. In the most perverted way, Trump became the voice of anti-globalization, he took on NAFTA, TPP, jobs and disdain for politics as usual. But he never attacked the billionaire class, or global capitalist class, or more in particular the principles of neo-liberalism: privatization, deregulations and austerity.

Let's be clear, he represents white nationalist, populist movement that has fascists involved in it. He is an authoritarian and sole purpose is to dismantle and destabilize the state apparatus as we know it. Don't know how to fully understand the full impact of this, but we need to know he represents a small and powerful faction of the right wing.

The Far right is growing and it is volatile- there are convergences that are happening: alt-right, Neo-Nazis, and Republican party. We a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deadly incidents of domestic terrorism like we did in Oregon and Charlottesville. The police and border patrol are getting infiltrated by white nationalists, which is then a loyal domestic force to Trump.

Our movements need strategic adjustments and constant evaluation of what is happening. We cannot continue to be doing work in the same way. We are not ready- intellectually, politically, infrastructure to monitor and respond. Right now, our focus is on policy, litigation and defense, but that is not enough. We will see the administrative damage first on health care, education, housing. We are just beginning to see the impacts of organized Trumpism.

Over the past year and half and throughout the presidential campaign we understood this threat of Trumpism not only to the people in the US, but to what it would mean to the rest of the world, we have been explor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ovement moment of Opposition... While our

2018 International Women's Peace Symposium

alliances and our communities are preparing for a period of strong resistance, we are also identifying some opportunities for our work. I want to share three strategic orientations that we have been talking about at Grassroots Global Justice and It Takes Roots.

1- Alignment: Align who wants to be aligned: strategic and tactical alliances and joint practice

2- Visionary Opposition: build the left/resistance, prepare our defensive, but get on the offensive.

3- Take Bold Risks, Lay Groundwork for the Long Term, Dare to Hope.

End with a chant!

Round Table 1–Presentation 3)**Message from Guahan – the Tip of the Spear
of US Military Might**

Lisa Natividad**(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Guam)**

For people living on Guahan (Guam), this past August was one of the scariest periods of threat from the DPRK. The island in Micronesia– my indigenous home– has historically been caught in the crosshairs of geopolitical tensions as in the case of World War II, when the Japanese Imperial Army invaded it. This past summer, a media frenzy descended upon the island waiting on an attack and hoping to capture the vulnerability of the Chamoru people once again. Guahan is a non–self–governing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akin to a modern–day colony. Nearly 29% of the island is occupi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where it has numerous military bases including Andersen Air Force Base on the northern tip of the island. This base houses an arsenal of bombers to include B52s, B1 and B2 Stealth bombers. These aircraft will be used only if the U.S. decides to pre–emptively strike the DPRK. It is for this reason that Guahan has been identified by the DPRK as a target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Obama administration’s 2011 Pacific Pivot Strategy aimed to shift the U.S. Department of Defense’s focus to the Asia–Pacific region in an effort to contain the rise of China economically and militaril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currently has nearly 800 military bases in more than 70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As a result of the Pacific–Pivot strategy, massive plans to increase its total number of U.S. bases in Asian and Pacific countries and territories went into effect. Some of the countries and territories impacted by this plan include: Okinawa in the south of Japan with the development of a base in Henoko; the Republic of Korea with bases in Pyongteak, Jeju, and Gangjeong; Hawai’i with the expansion of

Pohakuloa; the Philippines with the signing of the EDCA Agreement; and my homeland of Guahan, with expansion plans to include a THAAD, the relocation of Marines, and the stationing of additional nuclear submarines. The hypermilitarization of the Asia-Pacific region brings many problems to surrounding communities, such a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degradation from military operations and war preparation. Toxins in the environment often result in poor health outcomes— especially in the case of cancer. Toxins often include PCBs, agent-orange and purple, dioxins, and radiation exposure. Further, the safety of women and children becomes compromised in surrounding base communitie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young men trained to carry out military violence. Local economies suffer, with the military contributing very little to the tax base and the majority of spending occurring behind base fences. Lastly, land dispossession is the result of the U.S. obtaining land for its bases— oftentimes without th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the indigenous peoples or traditional landowners on which the bases are erected.

The DPRK has threatened Guahan in the past, with alerts for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attack set off, as well as homeland security advisories of how to keep oneself safe in the event of an attack. These advisories suggest bunkering down in standing structures, sealing any airflow from the outside with tape and plastic, and taking a shower— but not using any hair conditioner— to wash away radiation exposure. Having visited Hiroshima and Nagasaki as a peace activist, I was very disappointed to hear the naivety of such alerts. The nuclear attacks on Hiroshima and Nagasaki evidence for us the reality that our biggest challenge following a nuclear bomb detonation will be tongues of fire falling continuously from the sky. In Hiroshima; very, very few structures remained standing— one being the fire station that is now called the A-Bomb Dome, which is a reminder to humanity of the devastating effects of nuclear weapons. In addition, as with the peoples of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it reminds us that our technology is insufficient to clean-up the presence of radiation and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illnesses such as cancer. Nonetheless, we are told that we are safe; that the U.S. will defend us and that its technology is the best the world has to offer and we have nothing to worry about. Nothing can be further from the truth.

In 2015, I visited the DPRK with Women Cross DMZ, a collective of global women experts in peacemaking— to include two Nobel Peace Prize laureates and Ms. Gloria Steinem. The visit allowed me to develop a number of insights into the DPRK. First, the sanctions employed by the U.S. and its allies are not working. These sanctions merely led to massive human suffering for the people of the DPRK and are equivalent to an act of war. In our humanity, we cannot consent to such human suffering occurring. Second, creation of a militarized state in the DPRK is in response to the high level threats by the U.S. and its allies on the DPRK's border. This includes routine exercises to invade the DPRK, resulting in a state of constant high-level alert. Hence, the threats to Guahan are a result of provocative acts against the DPRK that tends to go unreported by Western media.

The goal of Women Cross DMZ is primarily to build bridges for peace and to advocate for a peace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Olympic truce and recent summit between the two Koreas is a step in the direction of peace. Women Cross DMZ advocates for the continuation of bilateral talks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with the goal of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The U.S.'s recent stockpiling of B2 Stealth bombers on Andersen Air Force Base only serves to further antagonize the DPRK. The amassing of firepower on Guahan is counterproductive to the goal of de-escala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e call on world leaders to rethink its strategies of engagement with the DPRK and employ diplomacy and peace talks. This is the only true pathway to a peaceful resolution to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My people and Koreans throughout the peninsula deserve this.

Round Table 1–Presentation 4)
Women Say, Disarm, Disarm”

Medea Benjamin
(Co-Founder, CODE PINK WOMEN FOR PEACE)

It is so important that we have these international gatherings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inspire each other. I remember coming to Korea during the presidency of Park Geun-hye. People were complaining bitterly about her, and they had great admiration for our leader, President Obama. Just two years later, Park Geun-hye had been swept out of power by a massive, grassroots movement and now sits in jail, convicted of abuse of power, bribery and coercion. Best of all, you brought in a new leader, President Moon Jae-in, who has been a master of diplomacy, carrying out your determination to mak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w the tables have turned. We complain bitterly about OUR president, who is racist, sexist, an egomaniac, immoral, reckless and dangerous. We are anxious to see him end up like Park Geun-hye—impeached and convicted of abuse of power, bribery and coercion. While we would like it to be our grassroots resistance movement that sweeps him out of power, ironically, in the wild TV soap opera that characterizes American politics today, it might just be a porn star that brings him down.

Donald Trump reflects how rotten and dysfunctional our system is, but our nation was and continues to be built on violence and militarism, from the slaughter of Native Americans and the enslavement of the black population to the creation of an empire with over 800 military bases scattered around the world. The U.S. military is presently engaged in seven active conflicts, and last year, U.S. special forces conducted military operations in 138 countries—roughly 70 percent of the nations on the planet. The United States is also the world's number one weapons dealer. Between 2002 and 2016, U.S. weapons were delivered to 167 countries—

more than 85 percent of the nations on the planet—fueling conflict, death and destruction. Donald Trump is further increasing US weapons sales by lifting restrictions on sales to countries known for their human rights abuses.

Koreans have been among the most active people in the world fighting back against US militarism. On several occasions,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join some of these efforts. In 2006, I was on a delegation to Pyongtaek, where the villagers had been fighting day in and day out stop the expansion of the US base. The U.S. base expansion, which included creating a golf course for the American officers, was going to destroy this lovely rural village. The South Korean military was working hand in glove with the U.S. Army, including putting up barbed wire to keep the villagers from their fields so they would be deprived of income and forced to leave. To meet the farmers and see firsthand how my government was stealing their land, destroying their livelihoods and bulldozing their homes was very distressing.

But it was also beautiful to witness a resistance movement so determined and persistent, organized by local people with the support of Koreans around the country. Even though the campaign did not win, the struggle inspired people for beyond the borders of Pyongtaek.

The same is true of Seongju, where I traveled in 2017 to show solidarity with the community opposing the US-produced THAAD anti-missile system. We discussed how the “anti-missile system” was really part of the vicious cycle of militarism that put this tranquil community into the crosshairs of a possible military confrontation not only with North Korea but also with China.

We were amazed by the 24/7 encampment the villagers had set up, the candlelight vigils every night, and the weekly protests that attracted people from around the country. The leadership was mostly women, some in their 80s, and we couldn't believe their energy and ability to keep protesting month after month, year after year. In the US, we're lucky to have the stamina to pull off a protest for two days, much less two years.

Speaking of persistence, I also visited Jeju Island, where the residents of Gangjeong have been opposing the building of a naval base since 2007, a base designed to accommodate US Aegis destroyers to intimidate both North Korea and China, and to protect U.S. economic interests. Again, we were in awe of the resistance movement, a movement infused with ritual, prayer, art, dance, poetry, puppets, music — and lots of joy and laughter. No wonder it has drawn support from all over the world.

As our group of visitors stood by this ugly base looking out at the stunning ocean, we saw the haenyeos, the island's women divers renowned for spending hours in the chilly waters harvesting conches, abalones, and other marine wildlife, as well as for their history of fierce resistance to Japanese occupation. For decades, they have been swimming along side schools of dolphins and maintaining a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the ocean and coral reefs. The contrast with the ugly concrete walls of the base, topped with concertina wire, moved us to tears.

All these years of resistance to militarism has the potential of coming to fruition now, with the peace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and between the North and the United States. While President Trump wants to take credit for this historic opening, we know that people like you have been working on this for decades. It is something we dreamed about in 2015, when 30 of us joined together to cross the DMZ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In our meetings with women's groups on both sides, we talked about the need for family reunions, a peace treaty, trade relations, and eventual reunification. To think that some of these dreams might actually come true is beyond thrilling.

But as excited—and cautious—as we are about the peace process, we also know that the struggle against militarism is a life-long struggle. We in the United States are also victims of a militarized system that keeps us in an endless state of war and takes billions of our taxdollars away from vital human needs. The powerful sector that benefits from conflict is the weapons industry, and we at CODEPINK have a campaign to push our cities, universities and pension funds to stop investing in companies that profit from war.

When we were in Seongju, we asked several women to videotape a message to Marilyn Hewson, the CEO of Lockheed Martin, the massive weapons company that makes the THAAD system. Ms. Hewson is one of the few women to ever run a weapons company. She also makes a hefty profit from selling weapons, with a salary of over \$20 million a year.

The messages from the villagers were beautiful. One young mother said: “I don’t make nearly the kind of money you make, but my life is much richer than yours. You know why? Because I don’t produce anything that could harm another mother’s child.”

This is precisely the sentiment of an American woman named Julia Ward Howe, who wrote a “Mother’s Day proclamation” in 1870, just after the devastating US Civil War that left about 700,000 soldiers dead. Julia challenged the notion that mothers should sit idly by while their sons were sent off to war. “Our sons shall not be taken from us to unlearn all that we have been able to teach them of charity, mercy and patience,” she proclaimed. “We, women of one country, will be too tender of those of another country, to allow our sons to be trained to injure theirs. From the bosom of the devastated earth a voice goes up with our own. It says: Disarm, disarm! The sword of murder is not the balance of justice.”

Just as Julia Ward Howe advised 150 years ago, it is wonderful to be meeting together, women across continents, to strategize about how best to reject war and violence, and embrace diplomacy.

Round Table 2
Women and Human Rights,
Peace Making

- 1) Kim Min, Mun-jeong
- 2) Alice Wairimu Nderitu
- 3) Jang Yi Jeong-su
- 4) Mavic Cabrera-Belleza
- 5) Katherine Ronderos
- 6) Yifat Susskind

Round Table 2–Presentation 1)

The #MeToo Movement: There Is No Peace to be Maintained through the Silence of Victims

Kim Min Mun–jeong
(Women Link)

Sixty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War ended in an armistice, and the Korean Peninsula is finally witnessing the opening of a new era of peace. However, women have never been provided with a guarantee for peace in daily living as they have been exploited through gender discrimination and violence. #MeToo testimony by a female prosecutor in January 2018 kindled the Korean #MeToo movement that is sending shock waves through society. Most recently, the movement has brought forth testimonies from survivors who fell victim to sexual violence committed by the army under martial law during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The #MeToo movement affirms that sexual violence is not a solitary experience of an individual victim but a crime against social justice. The movement is part of a gender revolution to reform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with the power of women enlightened by feminism under Korea's skewed gender-biased social reality. #MeToo is also a movement to create the "womanly face of peace." Although there are countermovements aiming to weaken and taint the meaning of the #MeToo movement, supporting movements such as "People's Action for the #MeToo Movement" are steadily gaining ground as people work in solidarity and support courageous testimonies by women.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MeToo movement, systematic and regulatory challenges must be tackled, which include amendment of the concept and judgment standards associated with sexual violence; preven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such as false accus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At the

same time, a national strategy to fundamentally reform gender-discriminatory social structures must be put in place. Likewise, community solutions must be sought, based on reflection and examination of gender-discriminatory structures, culture, and consciousness.

Round Table 2–Presentation 2)

Alice Wairimu Nderitu
(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In November 2017, the Global Centre for Pluralism (GPC) named Alice Wairimu Nderitu (from Kenya) a **Global Pluralism Awardee** for Pluralism in Ottawa, Canada. She is now working to set up a pool of women community mediators from Africa, *Wamama Wapatanishi*.

What are the challenges for women working as mediators? What are the lessons learned from their experiences? Are there success stories we can build upon?

Challenges :

1. There is a tension between the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those who believe that mediating of armed conflict is traditionally men's business just as war has traditionally been seen to b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omen are already doing a good job in decision making roles such as judges and can therefore be mediators.
2. There are fears too. In many political realities, peace is political. There is therefore always a likelihood of spoilers and beneficiaries of the violence undermining the mediation efforts and using the leadership of a woman as one of the excuses for not accepting the result – usually a peace agreement.
3. Religious and gender wars also always play out during the dialogue itself.
4. Being the only woman mediator of armed conflict that most people in my part of the world have ever seen, managing expectations is incredibly difficult. If I fail, a woman has failed. If I do not fail, a mediator made it.
5. It is difficult as a woman mediator to mediate armed conflict and prevent deaths while at the same time addressing the need to constructively

challenge the dialogue participants to redefine identity and the values we attach to it as both as a fluid and social construct in relation to seeing a woman in a decision making role as a mediator.

Success Stories: Working for the 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we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ree peace process, in Jos, Plateau State, Kafachan, Kaduna State and Shendam, Southern Plateau, Plateau State. I was gender advisor for the first process (Jos) and lead mediator, a first for a woman, for the second (Kaduna) and third (Southern Plateau)

Women not only participated, but also directly influenced the agenda, recommendations, and the Peace Declaration. The presence of women in decision-making roles has contributed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peace process with women at the forefront of safeguarding its gains.

The women have been involved, for the first time as members of the **negotiating teams** and a **women's steering committee that was specially trained in :**

- a) Coalition building to contribute to the peace process in areas such as conflict analysis, gender, negotiation and mediation skills and addressing the specific needs of women affected by armed conflict.
- b) Promotion of dialogue to lessen the gulf between the women themselves, the women and their fellow negotiators, the women and policy makers.
- c) Provision of research on why women's participation matters and guidance on how they can be most useful including peace making models from other contexts.
- d) Creation and development of partnerships with male allies.
- e) Strategies women can use to combat the polarization of their communities or religious groups and create the space for moderate and /or interfaith and inter-ethnic dialogue.
- f) Undertake consultations with political, ethnic and religious leaders.

What does the way forward look like? How can we overcome the remaining obstacles to women's participation in mediation?

We need to;

- Encourage male allies already working as mediators or leaders to know that they are the most crucial component in supporting women in mediation roles.
- Ensure that women's roles as mediators of armed conflict are included in laws, policies and curriculum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country level.
- Ensure that practical application of subjects such as negotiation,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with women playing key decision making roles as mediators are taught and examined in schools.
- Undertake capacity building for curriculum developers to equip them with skills to inculcate knowledge and skills on roles played by women mediators.

Round Table 2–Presentation 3)

Korea’ s Ecofeminism Movement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Jang Yi Jeong–su

(Executive Director, MADRE)

Korea’s economic growth since the 1960s, which was driven by the government and market forces, has been achieved at the expense of the environment, social equality, and the right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However, the economy has lost momentum over the years and is facing increased headwind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ow the right time to build social consensus on the type of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society must pursue.

Ecofeminism began with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In the 1960s, the movement was initiated by women in the form of daily lifestyle modifications, and since the 1980s, it has steadily expanded as an autonomous and organized movement led by women. In particular, Korea’s ecofeminism focuses on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which has been sacrificed for the sake of economic growth, the health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ir right to life, and communities. Tackling these issues, the movement has grown into diverse areas, including sustainable agriculture, the disarmament movement, the alternative community movement, the women’s health movement, green consumption, and the cooperative movement.

As the principle of degrowth has come to be understood by all, it has allowed women to imagine an alternative society. And more than at any time in history, this moment in time requires an ecologically oriented, self–sustaining society coupled with an equal and just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is regard, women must expand their roles and participation in the areas of peace, the economy, and diplomacy to promote peaceful economic cooperation and civil exchanges, while spreading the

ethics of care, which have previously been the sole domain of women, into society as a whole. Against this backdrop, before engaging in economic exchanges with North Korea, South Korean society first needs to further advance its own democracy and boost gender equality while developing an ecologically-oriented national consciousness.

Round Table 2–Presentation 4)**Amplifying Women’ s Voices towards Sustainable Peace– A presentation at the Roundtable Discussion on Feminist Peacebuilding: What Is Possible, What Can Be Done?**

Mavic Cabrera–Balleza
(CEO of the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adopted by the UN. I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normative framework for the women’s movement–alongside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nd the Beijing Platform of Action. It is an organizing and mobilizing instrument for women’s rights and women peace activists around the world. The 1325 Civil Society Network of Korea is one example of civil society groups that used Resolution 1325 as an organizing and mobilizing tool. When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its National Action Plan in May 2014, the 1325 network called for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and the building of a new and good governance in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It called on the government to promote sustainable peace and gender equality.

The key pillars of UNSCR 1325 are summarized into its 4 Ps:

- **Participation:** Participation of women in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on peace and security issues and governance
- **Prevention:** Prevention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of war
- **Protection:** Protection of women and girls from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Protection of women and girls
- **Promotion:** Promotion of women’s rights,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There have been some important achieve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These include:

- The adoption of National Action Plans (NAPs) in 74 countries and areas. NAP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are the systematic translation of Resolution 1325 and its supporting resolutions. They outline government commitments into executable, measurable and time-bound actions. They are an important tool by which we can hold governments accountable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WPS resolutions;
- Increased consultation with women civil society in relation to peace negotiations as in the case of Colombia and Syria;
- Gender-specific provisions peace agreements – Some peace agreements contain gender-specific provisions as in the case of Colombia, the Philippines;
- Increasing localization – GNWP's Localization of UNSCR 1325 program is now implemented in 15 countries and has led to the adoption of 55 Local Action Plans in Colombia, Liberia, Nepal, the Philippines, Serbia and Uganda; and has inspired local women to run for elections and strengthened reporting on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communities where the Localization of UNSCR 1325 program is implemented. As the 2015 Global Study on UNSCR 1325 emphasized, the “[L]ocalization of approaches and inclusive and participatory processes are crucial to the succes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efforts.
- Establishment of the Women's Peace and Humanitarian Fund – The first pooled financing mechanism that breaks the silos between WPS and humanitarian action. 50% of the fund is allocated to civil society groups who work in conflict-affected communities. Moreover, civil society sits on the Board of the WPHF which allows it to influence decision-making and ensure the benefit to civil society. In addition, there is now serious effort in some countries to cost and allocate budge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APs. GNWP provides technical support to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properly cost and develop budget for their NAPs.
- Increased and stronger international commitment to conflict prevention and sustaining peace as evidenced by the adoption of the twin resolutions on sustaining peace by the UN General Assembly (70/262)

and the UN Security Council (2282). Both of these resolution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women's leadership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If effectively implemented, the Sustaining Peace agenda will break down silos and will establish synergy among the different mandates of UN bodies and national government ministries. This is critical because after all, women do not live their lives in mandates and silos. For all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efforts to be successful, we need to go beyond addressing the imminence of crisis but rather, focus on the structural and root causes of conflict including gender inequality.

Barriers to women's meaningful participation and persistent challenges

There are also regressions in some of the areas where there have been advancements. The 2017 UN Secretary-General's report on WPS to the Security Council indicates that "In 2016 there was a slight decrease in women's overall participation among delegations to peace processes led or co-led by the UN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Of the 9 processes tracked, senior women were represented in 11 delegations, compared with in 8 processes and 12 delegations in 2015 and 9 processes and 17 delegations in 2014. Similar to previous years, not every negotiating party included senior women delegates. Where women were represented, they were in the minority, a trend that is evident in all peace processes. For instance, at the 2016 Myanmar Union peace conference, a peace process not co-led by the United Nations, only 7 women were included in a 75-member delegation.

The same Secretary-General's report also highlighted that following consistent increases between 2010 and 2015, the percentage of signed peace agreements containing gender-specific provisions declined in 2016, when only half of the six signed agreements¹¹ contained such provisions, as compared with 70 per cent in 2015.

Another important point highlighted by the 2017 UN Secretary-General's report is that consultations with civil society in peace negotiations led or co-led by the UN dropped from 100 per cent of peace negotiations in 2014 and 2015, to 86 per cent in 2016. Moreover, while consultations are

important for ensuring that women's perspectives are represented at the official peace negotiations, they do not guarantee direct participation and meaningful inclusion of women in negotiating parties' delegations to peace talks, as called for in UNSCR 2242. This is the case with the peace talks on Syria. When women are represented, they make up a minority as seen in the Colombian peace process with the FARC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This trend in civil society consultation without real influence in decisions must end.

Around the worl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and peace activists are threatened, arrested, jailed and in some instances murdered for defending human rights and promoting peace. They operate in an increasingly hostile climate. Governments are restricting the ability of activists to voice unpopular views or challenge repressive laws and policies. They create constraints through harassment, intimidation, and by imposing stringent legal restrictions on the ability of civil society actors to form associations and receive funding

There is still a gap in predictable and sustainable fun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PS resolutions. In 2015, 19.4 per cent of all sector-allocabl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as allocated to conflict and post-conflict countries; of which 40 per cent targeted gender equality. However, only five percent of the gender-focused sector-allocable ODA allocated to those countries was marked as having a principal focus. In other words, gender equality and women and girls' empowerment in conflict-affected situations is still not a priority for donors. This is also apparent in the lack of dedicated fun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NAPs on UNSCR 1325. Out of the 74 NAPs, only 18 have dedicated

Lessons learned

The eigh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WPS—1325, 1820, 1888, 1889, 1960, 2106, 2122 & 2242—and the twin resolutions on Sustaining Peace as well as the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o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all form a robust normative framework on the WPS agenda. Together, they have shifted the paradigm in

international policies on peace and security. There is no longer a shortage in international policies and instruments on WPS. The shortage is in implementation.

A lot more needs to be done to guarantee women's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peace negotiations and all peace processes – particularly women civil society. With their pivotal role from the drafting to adoption to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and the overall WPS agenda, it is a deep concern that women's civil society's representation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is not institutionalized. We need to solicit greater commitment and accountability from decision-makers, mediators and facilitators of peace negotiations. More importantly, women have to take on decision-making positions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peace and security processes as called for in Resolution 1325.

A holistic, coherent, multi-sectoral and long-term strategy on peacebuilding and conflict prevention that brings together women's rights organizations and other civil society groups, governments, UN, regional organizations, donor community, and development partners. Donors should strengthen civil society while they are strengthening states, and state institutions. In the work on peacebuilding and conflict-prevention, the starting point should be broader – meaning not only conflict and post-conflict contexts but also context in transition to peace; and context where there is no conflict, where there is a risk of conflict, and where there are security risks. This means being proactive instead of just reactive. We need to combine peace and security approaches with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and central to such strategies are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Adequate, predictable and sustained funding for implementation is needed to realize the promise of the WPS resolutions. Funding for women civil society is integral to. This support should not be project-based because sustainable peace is not a project. It is a way of life and it should be part of our global culture. Development partners need to enhance the capacities of grassroots organizations to challenge power relations and break social, cultur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against their own empowerment.

The WPS agenda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global affairs and a tool for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efforts in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and humanitarian action. It is a prerequisite for the fulfillmen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PS contributes to transformative change across the three pillars of the UN: security,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women's meaningful participation strengthens protection efforts, accelerates economic recovery, deepens peacebuilding efforts and leads to more sustainable peace.

S/2017/86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16 October 2017.

Round Table 2–Presentation 5)

Feminist Peacebuilding: What Is Possible, What Can Be Done?

Katherine Ronderos

(Director, Women' 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LIMPAL))

The agreement reached and signed in November 2016 to end the nearly 60-year-long armed conflict between the Colombian government and the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 People's Army (FARC–EP),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 Ejercito del Pueblo*”, the largest rebel group in the Americas, marked an historic moment worldwide. Not only for stopping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Colombia and the suffering of many people, mainly women and children, but for including new elements into peace negotiations that will be closed analyzed in the days to come.

Colombia has a long history of peace negotiations, some of them failures and some of them successful, that allowed us as a country to incorporate lessons learned, good practices and the realities on the ground.

Main characteristics are:

- It was a direct negotiation; no mediation from external sources was used.
- The negotiation took place outside Colombia. The official peace dialogues kick off happened on 18th October 2012 in Oslo, Norway, and then continue in Havana, Cuba, from 19th November 2012 to 24th August 2016.
- The final official signing of the agreement was done on 24th November 2016, in Bogota, Colombia.
- Four countries offer their support to guarantee the process and make sure the dialogues weren't broken: Norway, Cuba, Venezuela and Chile.

- The agenda for discussing the “General Agreement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nflict and the Construction of a Stable and Lasting Peace” was agreed before the dialogues started and contained six points: Rural reform, political participation, illicit drugs, victims, end of conflict, implementation.
- The six points of the agenda intended to cover both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conflict.
- For the first time, the victims were seen as an important part of the negotiation.

Currently, the Colombian signed agreement is seen as a successful effort to end a bloody armed conflict and set the bases for building a sustainable and long-lasting peace. For Colombians, this is not a peace agreement. It is an agreement to end the conflict between two parties. Peace needs to be built after silencing weapons/arms and needs to include all actors of society. It requires efforts from all of us; it needs inclusion, strategies the end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security from a human perspective, not from a military perspective. For us, to say that this agreement was successful, we need possibly 20 years or mor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There were many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inclusion of women's rights and a gender perspective in the final text of the agreement to end the armed conflict in Colombia. Which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marily, having a strong women's movement in Colombia that has been working for more than 30 years on peace and resisting all forms of war, was pivotal to this achievement. Women's organizations have been working on different areas, making sure our voices are taken into account at all policy levels. Women have been requesting to end the conflict by peaceful and negotiated means for years and most importantly, we have made visible the violations and crimes against women that have been remained in the shadow. Around 500 women from all over the country came together in

October 2013 for the 1st National Summit of Women and Peace, requesting the Havana table to include women as negotiators in their teams, to include women's rights and the gender perspective through out the agreement in all its six points, to make sure that sexual violence and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were addressed in the negotiation and recognized as part of the justice discussions. The 2nd National Summit of Women and Peace took place in September 2016, just two weeks before there referendum, to express women's total suppor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the ways in which women would like to engage in the post-agreement peace-building process. The 3rd National Summit of Women and Peace will take place in the second half of 2018, positioning women's demands at the highest level in the implementation agenda to prevent the resurgence of the armed conflict.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International Agenda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the UNSCR 1325, 1820 and all the Resolutions that followed, the CEDAW Committee General Recommendation 30,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etc., facilitated the work of women's organizations to make sure women's voices were louder in the Havana table. Without them, it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onors to put pressure on Colombia to incorporate women's rights and a gender perspective in the negotiation and final agreement also used these instruments.

In the end, after hard work, there were important winnings that need to be recognized:

- Women were included as negotiators in both parties
- A Gender Sub-commission was created to guarantee the inclusion of women's rights in the process as well as to make sure that gender mainstreaming was part of the negotiation.
- Sexual violence was recognized as human rights violation occurred in the context of the armed conflict in Colombia.
- The creation of a High-level women's working group from civil society as part of the Commission for Monitoring, Promoting, and Verify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l Agreement (CSIVI).

2018 International Women's Peace Symposium

As a final note, despite of these advancements, we face many challenges ahead, the growth of the right wing conservative party that opposes the peace agreement, the increase of death threats and killings of human rights defenders (men and women) since the peace agreement was signed, the increase of other armed groups in the areas were FARC-EP used to operate, the illicit drug trafficking cartels operating in those regions, the increase of militarization and investment in military security rather than human security and development, weak arms control legislation and finally, fragile and low funded institutions for women, let alone funding for women's independent peacebuilding organizations. This is why, more than ever, we need international women's support and solidarity.

Round Table 2–Presentation 6)

To the Two Koreas, from Israel and Palestine: Lessons Learned

Yifat Susskind
(Executive Director, MADRE)

To live in a state of perpetual war and division: this has been the fate that Koreans, Palestinians and Israelis have shared since 1948, when the state of Israel was founded and Korea was split into two. From periods of active violence to militarized standoff, generations of people have grown up under a pervasive shadow of conflict that colors reality and restricts the imagination. How can we imagine peace when conflict is all we have ever known?

The work of women peacebuilders is to assert that peace is possible and to bring that assertion to life. We push back at the notion that certain places exist in a permanent state of conflict. That notion normalizes crisis. It obscures the reality that the Korean War never truly ended and that the dispossession of Palestinians that began in 1948 is on-going: Israel still rejects the rights of the refugees and their descendants, occupies Palestinian lands and violently retaliates against unarmed demonstrators, as we've just witnessed in Gaza.

As an Israeli peace activist and the executive director of MADRE, an international women's human rights organization that partners with Palestinian grassroots activists,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e connections between women's attempts at peacebuilding in the two Koreas and in Israel and Palestine. Here are three parallels to explore, with a focus on the crucial roles of local women peacebuilders.

First is the need to maintain a constituency for peace when people are atomized one from the other by militarized borders and policies of

separation. As in the Korean peninsula,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for Palestinians have been imposed as a measure of control, with arbitrary checkpoints and military zones dividing families. Over time, this kind of separation eats away at the ties that bind people to each other and to their histories. The work of Palestinian women to make their communities viable and safe, to meet people's basic needs for health care, water, or schooling helps to build back the person-to-person connections that create resilient, strong communities able to do the hard work to foster peace.

Secondly, peace is not possible without forgiveness and trust, as people who were once opponents build community together. From Ireland to Colombia to Sri Lanka and beyond, we've seen how peace agreements can help create a policy framework and political leaders can push it forward, but ultimately, real peace can't be imposed from above. Peace must be cultivated from the ground up. Local women's groups are vital to this process, moving their communities through healing, creating space for dialogue and mutuality across lines of conflict, and laying the foundation upon which a future peace will be built.

In 1989, Israeli and Palestinian women, propelled by the needs of their communities, met in Brussels and resolved to work together for peace, years before their respective political leaders entered into any official negotiations. In the years since, women have worked to organize exchanges, dialogues and joint protests.

But those two crucial ingredients for lasting peace—forgiveness and trust—have been difficult to achieve and hard to sustain. That's because forgiveness depends on justice and trust requires a reckoning of the power differentials that war and occupation produce. With violence still raging, trust between Israeli and Palestinian women peace activists is only possible when Israeli women recognize and risk the privilege afforded to them as Israelis.

Despite the valuable perspectives of Palestinian and Israeli women who had engaged in joint activism, women were largely excluded from the Oslo peace process, bringing up a third key parallel. The Palestinian/Israeli experience reveals starkly the consequences of official peace processes that block civil society participation, namely women's. The Oslo accords were negotiated behind closed doors, without civil society input and with no accountability to the people most impacted by the war of 1948 or by the military occupation of 1967. Without this tie to communities, the peace process became seen as the purview of isolated, political elites with little resonance to the people who would need to absorb and implement its outcomes.

Indeed, during the years of negotiations, Israel only intensified its attacks on Palestinian lands and people, and the Oslo process eventually collapsed. In comparison, the recent mobilizations known as the Candlelight Struggle in South Korea speak both to the power of popular pressure to achieve political change and to the existence of a widespread constituency that can now be mobilized to press for peace.

Recognition is growing that peace processes that exclude civil society are fragile and prone to failure. Furthermore, research has shown that when women participate meaningfully in peace processes, the agreement is 35% more likely to last at least 15 years. In particular, women contribute to that success by creating channels between the peace negotiating table and on-the-ground communities. Women peacebuilders can also ensure that the process prioritizes the lived experiences of those most directly affected: such as families separated by militarized borders or people still grieving lost loved ones. As such, the active involv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and women peacebuilders to this point is encouraging and essential.

Currently in Palestine and Israel, where there is no viable peace process to speak of, the community level work of women peacebuilders remains essential. From Palestinian women who mobilize care for vulnerable people in their communities, to Israeli women who endure backlash to act in

solidarity across conflict lines, these actions plant the seeds of peace. Not only does it help sustain people from day to day, physically and emotionally, it keeps alive the possibility of peace in people's minds. That way, when the political opportunity for peace arises, grassroots activists will have maintained the community networks necessary to channel their priorities into the peace process and to implement its outcomes at the local level. That moment of opportunity is not always predictable: consider that, even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could we have anticipated the peace overtur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have occurred in just the past few weeks?

When that moment of opportunity for peace arises, as we see now in the two Koreas, it can feel sudden, but don't be fooled. Any momentum for peace depends on the work that women peacebuilders do over years to lay the groundwork. That's why women peacebuilders in Korea are now an inspiration to all those across the world who are today trapped in a seemingly intractable conflict – like the people of Palestine and Israel.

**Round Table 3
Women and Human Rights, Peace
Making in North East Asia**

- 1) Chang, Mi Ran
- 2) Wang Xuan
- 3) Lee, Un-Sunn
- 4) Altaa Noogsoi
- 5) Olga Maltseva
- 6) Patti Talbot
- 7) Ann Wright

Round Table 3–Presentation 1)

Rethinking the Foundation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Raising Peace Sensitivity and Restructuring Daily Life

Chang, Mi Ran

(Chairperson Peace & Reunification
Committee, National YWCA of Korea)

Jang's work explores diverse topics, including why women must transform themselves from passive victims of war and violence into active human agents of the peace movement; why the women's peace movement in Korea must begin from the collective historical experience of Korean women throughout modern history and why the movement must seek to "intervene" as well as to "break new ground"; the value and vision of "breaking new ground"; how our daily lives must change to bring about a peaceful world that women dream of. At the same time, the author makes a case that the women's peace movement must continue as a sustainable movement by linking our private daily lives with the public peace movement rather than separating the two.

Round Table 3–Presentation 2]

Japanese Bacteria Battle Investigation and Lawsuit

Wang Xuan

(Research Centre of Biological Warfare
in WWII, China)

Round Table 3–Presentation 3)

**The Northeast Asian Peace Process and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Interdisciplinary Studies**

Yi Eun-seon

(Professor Emeritus Sejo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Northeast Asian Peace in relation to the question of unific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the paper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by analyzing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which resulted from the 2018 Inter-Korean summi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feminist interdisciplinary studies, the author investigates lif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unification, and the question of world peace—through the lens of Korean feminism from a comprehensive point of view encompassing all areas of religion, politics, and culture. This is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that closely connects tradition and modernity, women and men, body and mind, people and nation, individuals and society,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neighbors. And this approach, in particular, emphasizes the strength of the epistemic advantage of women and the marginalized. Furthermore, stressing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uthor emphasizes the role of faith and continuity in the process toward Northeast Asian and world peace, harmony, and integration.

- 1) Recounting the pain of division
- 2) The androcentric perspective of Western powers and a critical examination of CVID
- 3) The emergence of a capable leader
- 4) A sense of autonomy
- 5) Peace as the goal of the South–North relationship
- 6) The path to peaceful unification is another testing venue for our faith and trust
- 7) Taking advantage of the epistemic advantage of women and the weak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global harmony!
- 8) The role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ath toward greater harmony for humanity as a whole

Round Table 3–Presentation 4)**The Role of Mongolian Nuclear Free Status in
Peace Building in North–East Asia**

Altaa Noogsoi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Women Cross DMZ and the Nobel Women’s Initiative, as well as the local hosts here in Korea, for organizing this women’s peace symposium and giving me an opportunity to make this statement.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April 27, 2018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d at the Inter–Korean Summit, we have come together to share our thoughts on the future of not only issues facing the Korean Peninsula, but of Northeast Asia (NEA) in general.

I believe that issues relating to the Korean Peninsula have the chance to be addressed in peace and cooperation. Not only do we need the leaders from both Koreas to cooperate towards a nuclear–weapon–free NEA, it is essential that other nations and NGOs in the region work together to achieve this. Mongolia is a unique country in this region, and can therefore play a significant role in creating space for such regional cooperation.

In 1992, Mongolia declared our “Single State Nuclear–Weapons Free Zone (NWFZ)” status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t has been 26 years since. During that time, this Nuclear Weapon Free Status (NWFS) was recogniz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77D in 1998. Since then, every two years, the UN General Assembly has been expressing support for Mongolia’s NWFS. In a region still facing a very real nuclear threat, this initiative of Mongolia, as one small country, can serve as one creative example of how to work towards the denuclearization of our region.

Promotion of Mongolia's own nuclear-free status also aims to contribute to making the entire NEA region a nuclear-weapon-free zone. It was for that purpose that Mongolians established the NGO "Blue Banner" in 2005.

The Mission of "Blue Banner" is to "promote the objectives of peaceful, multi-pillar foreign policy of Mongolia that would be conducive to creating the country's external environment free from any nuclear threat." One of its objectives focuses on "promoting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nsuring nuclear security of States and developing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peoples."

To fulfill this mission, "Blue Banner" has accumulated much experience in working with other NGOs and government authorities, and cooperates regularly with NGOs from Japan, the Republic of Korea, Russia, China and the DPRK. Mongolia is unusual in that both its civil society and also its government maintains friendly relations with each of these actors, and can therefore play a unique role in promoting dialogue and trust building within the region.

As one concrete example of this, in 2015 "Blue Banner", together with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network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launched the Ulaanbaatar Process, a civil society-led dialogue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which meets annually. This is perhaps the only platform whereby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from all the region, in an inclusive manner, can gather and frankly discuss these sensitive issues, and particularly,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ir resolution.

The regular meetings of the Ulaanbaatar Process has enabled constructive debate on issues of concern to the entire region, including the creation of a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the replacement of the Korean War Armistice with a permanent Peace Treaty, and the role that civil society can continue to play in helping achieve these goals. Several of our Korean friends present here today are also involved in this process.

Close cooperation of “Blue Banner” with like-minded NGOs has demonstrated that nuclear issues are not something unthinkable or beyond us all. Transparency and constant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stakeholders are important for effective cooperation. It also shows that optimum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 international NGOs and think-tanks is vital and can be productive.

“Blue Banner” is blessed that Mr. P. Ochirbat, former President of Mongolia, agreed to discharge the functions as President of “Blue Banner”. We also place great importance on gender and the role of women in our work; demonstrating this is the fact that three of the seven Board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re women. We have the President of Globe International Center (Mrs. Н а с а н ж а р г а л), the President of the NGO Federation of Mongolia (Mrs. З а н а а), and myself, a professor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Altantsetseg Noosgoi).

What is my role in the activities of “Blue Banner”? As professor at th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I work to ensure that youth can also be involved in these activities,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m to engage in issues relating to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At the university, I teach different subjects such as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focusing on NEA security issue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Mongolian Foreign Policy” focusing on Mongolia’s NWFS.

Also, I organize observance of the annual “International Day of Peace” on September 21 among students, organize lectures on “Peace and Security” in NEA, inviting members of Blue Banner, manage research on NEA-n security issues as agreed by “Blue Banner”, and publish books and articles on NWFZs.

To put it briefly, my main role is to shed light and more attention on peace education of Mongolian youth in cooperation with the members of Blue Banner.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Blue Banner” has been

2018 International Women's Peace Symposium

working with NGO organizations, including those from the DPRK, on both a regional and global level to share the experience of Mongolia in developing its Mongolian NWFS, and exchanging idea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EA. I sincerely hope that we can establish a NEA NWFZ, and based on that promot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nd prosperity for all people of the region.

Round Table 3–Presentation 5)**“Women's soft power in preventive diplomacy for the preservation of sustainable peace in Northeast Asia. Basic ideas and principles.”**

Olga Maltseva**(Dialogue of Culture /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of Vladivostok (FEFU) Russia)**

My good dear sisters! With these very words, I would like to appeal to all the participants of our women's symposium in Seoul. Common and universal concerns (and desire) for peace make us soul mates with shared interests and aspirations. All the textbooks of international law consider preventive diplomacy as a way of preventing conflict. Any conflict is an extreme form of aggravated contradiction. The spiritual and moral potential of women is actively implemented in difficult situations when wisdom and women's soft power are required.

Path of the man and path of the woman are essentially different. Different, but not opposite! This very difference gives rise to unity and harmony. And even to life itself! The flag of South Korea depicts an ancient symbol, where this harmony is displayed in its full form: The circle in the middle is derived from the philosophy of masculine and feminine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 of duality and complementarity.

In this figure, the two opposing energies "yin" and "yang" unite and interact, giving birth to the harmony of the universe. Such properties inherent in men, as straight forwardness and firmness in achieving their goal— these are wonderful qualities. These qualities are wonderful if the path chosen is correct. But this is a road to nowhere, if the direction is wrong.

In order to turn away from a false path, you need not straight forwardness and firmness, but flexibility and softness are needed. It is these

feminine qualities that give birth to wisdom and kindness. It is these feminine qualities It is these feminine properties that allow you to correct mistakes and turn from the fatal path to the right one. These crest of female soft power lies in the realization of the historic mission of women. The Women's Symposium in Seoul is a catalyst that can accelerate the peace processes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is the only territory in the world where lives the divided and separated nation. The pain of the tragedy of the Korean nation is shared by many people. And many are ready to contribute to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In 2002 there was published in Russia my book "A waltz with Kim Jong Il" It is a story about the visit of President Kim to the Russian Far East and my interview with him.

Thanks to the support of Park Jae Guy, Rector of Kennam University, the Minister of Reunification in the government of Kim Dae-jung, the book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published in 2004 in Seoul.

The book attracted such a significant interest among the public that all edition was sold out in a few days. The book was interesting to the people of Korea by the look of by the Russian journalist on the North Korean people lifestyle. After several visits both to the North and to the South, I was surprised to discover: Korea has one face!

I again remembered the flag of Korea and the symbols of Yin-yang! Two different Koreas represent a unity that gives birth to the harmony of the world!

Here in Vladivostok I met adherents and like-minded people: One of them-Valentin Pak, the head of Korean organizations, provided an opportunity in 2006 to publish a photo album "Good Morning, Korea".

I was fascinated by another idea. In scientific research, in literature and cinema, it is customary to consider how far both Koreas have gone, how far they have moved away from each other. I am interested to consider what the two Koreas have in common in their mentality? What are traditions and cultural heritage that is still being shared by both nations?

Once in ancient times, Korea was called "Paektu Hulla Nara" – a country between two mountains – Paektu and Hallasan Mountains. I definitely wanted to visit Paektu Mountain. I had to overcome many difficulties, but still, I got there! When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a historic meeting expressed his interest in visiting North Korea's holy mountain Paektu, I did understand his feelings – many, many people dream of visiting the top of the mountain that has been considered sacred by Koreans throughout history.

In Panmunjom, I looked out at the South landscapes, and after then – I looked from the South – to the North lands. Here and there I heard the Korean song "Ariran", saw the monuments – symbols of Reunification, talked with students, teachers, ordinary people.

Sketches, how Koreans live on both sides of the 38th parallel, is the basis of the book "Korea from North to South. Travel notes". It was published in Vladivostok in 2011. The book contains more than a thousand photographs – it is a photo-record, a document of the time. Today, more than ever, the book is relevant in the light of the May meeting of the heads of the two Korean states. I'm sure it should be published both in Korean and in English.

Korean Spring – the meeting of two Korean leaders – is the key that opens the door to a new day of the Korean peninsula. What can we do to help in bringing the Korean peace day closer? There are many ideas and projects. Organizing, for example, international traveling photo exhibitions about the lifestyle of Koreans in both Koreas.

We can schedule the next symposium in the Kumgang Mountains. There have already been several meetings of historians and artists. Once there was arranged a pilot tourist route: 500 Korean tourists – from South Korea, Singapore, Japan, China – started from Seoul, crossed by buses the border between two Koreas and traveled for three days in the mountains of Kumgang. By chance, I happened to be on that tour. We all, once again, need to go to Kumgang Mountains! These mountains give a charge of energy, vivacity, a positive attitude and a desire to work even more so that

we all can live in peace.

In conclusion, I'd like to point out that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women's movement for peace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Popular support and suscept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he will of women will be important factors of significant changes in the world.

[Russian Version]

Принципы мягкой женской силы в превентивной дипломатии для сохранения устойчивого мир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орогие сестры! Именно так хочется обратиться ко всем, кто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симпозиуме женщин в Сеуле!

Общие заботы и желание мира делают нас родственными душами и похожими в своих устремлениях.

Все учебник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ревентивную дипломатию как способ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конфликта. Конфликт – крайняя форма обострения противоречия.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ый потенциал женщины активно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ложных ситуациях, когда требуются мудрость и женская мягкая сила.

Путь мужчины и путь женщины – разные по своей сути пути. Разные, но не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Эта разность рождает единство и гармонию. И даже сама жизнь!

На флаге Кореи развивается древний символ, где эта гармония отображена в своем полном виде: круг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двух фигур – мужского и женского начала. В этой фигуре две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энергии «инь» и «ян» объединяются и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рождая гармонию вселенной.

Такие свойства, присущие мужчинам, как прямолинейность и твердость достигаются в своей цели –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е качества.

Замечательные, если путь выбран правильно.

Но это дорога в никуда, если направление ошибочно.

Чтобы свернуть с гибельного пути, нужна непрямолинейность и упорство, агибкость и мягкость.

Именно эти женские качества рождают мудрость и доброту. Позволяют исправить ошибки и свернуть с гибельного пути на правильный.

В реализации исторической миссии женщин заключается секрет женской мягкой силы. Женский симпозиум в Сеуле – катализатор, способный ускорить многие процессы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 единственная в мире территория разделенного народа. Большие трагеди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разделяют многие и готов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ближению двух Корей своим участием. В 2002 году в России вышла моя книга «Вальс Ким Чен Иром» – рассказ о визите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ма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и интервью с ним.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Пак Чже Гю, ректора Кеннам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инистра объединени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им Дэ Джунга, книга была переведена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издана в 2004 году в Сеуле.

Интересней было то, что тираж был раскуплен в считанные дни. Книга оказалась интересна людям Кореи в глазах российской журналистки на стиль жизни в КНДР.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бывав на Севере и на Юге, я была поражена: у Кореи однолицо! Мне снова вспомнился флаг Кореи и символы Инь-ян! Разные Коре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единство, рождающее гармонию мир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у меня нашлись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и. Один из них – Валентин Пак,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оставил возможность в 2006 году издать фотоальбом «Доброе утро, Корея».

Меня увлекала уже другая идея. В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в литературе и кинематографе принят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насколько далеко ушли обе Кореи, насколько они удалились друг от друга.

Мне было интересно рассмотреть, что общего осталось у двух Корей – в менталитете? Какие сохранились общие черты традиций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Когда-то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Корею называли «Пэкту Халланара» – страна между двух гор – Пэктусаном и Халласаном. И надо было непременно попасть на Пэктусан. Много пришлось одолеть трудностей, но все-таки там побывала!

Когда,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встрече,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е Инска

зал, что ему бы хотелось побывать на Пэктусане, я понимала – на вершине этой с вощенной для корейцев горы хотелось бы оказаться многим.

В Пханмунджоме я смотрела на территорию Юга, а потом – со стороны Юга – на Север. И там, и там я слушала корейскую песню «Ариран», видела памятники – символы воссоединения, беседовала со студента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простыми жителями.

Зарисовки, как живут корейцы по обе стороны от 38-ой параллели, – основа книги «Корея с севера на юг. Путевые заметки».

Она была издан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2011 году. В ней более тысячи фотографий – это фото летопись, документ времени.

Сегодня, более чем никогда, книга актуальна в свете майской встречи глав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Я уверена, она должна увидеть свет на корей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Корейская весна – встреча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лидеров – как ключиком открывает дверь в новый день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Чем мы можем помочь приблизить мирный день Кореи? Идеи и проектов множество.

Проводить, например,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ередвижные фотовыставки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в обеих Кореях.

Можно запланировать проведение следующего симпозиума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Там уже несколько раз проходили встречи историков, художников. Однажды состоялся пилот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маршрут – 500 туристов-корейцев –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ингапура, Японии, Китая – пересекли из Сеула на автобусах границу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и три дня путешествовали в горах Кымгана.

Волею случая оказалась в том туре. Нам нужно туда, в Кымгансан!

Эти горы дают заряд энергии, бодрости, позитивно настраивают и желают трудиться еще больше, чтобы все мы жили в мире.

Завершая, конечно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что рол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же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мир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ет возрастать.

Важными факторами существенных изменений в мире станут народная поддержка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осприимчивост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 воле женщин.

Round Table 3–Presentation 6)

Faith and Fierce Patience: Seeking Peace in Korea

Patty Talbot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he United Church has been in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of Korea for over 120 years, responding to the desire of Koreans for education and health, for independence from colonial rul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United Church's history with the people of Korea began in a formal way when the "Canadian Mission" was established in 1898 in Wonsan, on the northeast coast, in what is now the DPRK. The United Church – Canadian Mission was known for a blended commitment to Christian mission *and* the well-being of Korean people, particularly the underprivileged. The priorities were health (clinics, hospitals), education (especially for girls, and impoverished women), and leadership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Today, the United Church stands with partners in Korea, in churches and civil society, in their efforts to overcome the 70 year period of separation. The United Church stands with partners in their goal to achieve a just,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spired by their faith that reconciliation in Korea *will* come, and by their fierce patience in seeking peace.

Since 1986, the United Church has been part of a network of church bodies facilitating meetings between Christians from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is ecumenical channel – although limited – enabled visits, people-to-people encounter, dialogue and cooperation. It remained open through even the periods of greatest tension in the region when almost all other such channels were closed. A minority of South Korean churches and church people were willing to take the risks involved in such initiatives, and they suffered because of it. During the years of dictatorship in South Korea, and more recent conservative governments, they were harassed and

closely monitored by South Korean authorities. They were stigmatized in South Korean society as communist sympathizers, and followers of North Korea.

While headlines are claimed by politicians, there is less awareness that such communications and low profile meetings have happened between Christians from North and South Korea for some 40 years. Many learnings could be named. One is that it takes **courage** and a **willingness to hang in together for the long term** to build relationships of trust and respect across significant difference. Another is that **people to people connections** are essential for authentic dialogue.

While I have been part of numerous meetings between Christians from North and South, opportunities for Korean Christian *women* to gather have been few.

In 1991 at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based *“Forum on Peace in Asia and the Role of Women”* held in Seoul, women of North and South Korea gathered on Korean soil itself for the first time after liberation. I am told that it was evident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aps in mutual understanding due to the decades of separation. That was no surprise. Women know – we all know – that relationship and trust building takes time. Despite the challenges, this 1991 Forum included in-depth discussions among women on “patriarchal culture and women”, “women’s role in reunification”, “women and peacemaking.”

The United Church of Canada has worked with North and South Korean women and global partners to host gatherings of women from North and South: in 2001, 2004 and last year, 2017. Only ONE time were plans successful, in 2001 when a consultation was held in Toronto, under the theme “Women in Solidarity for Peace and the Reunification of Korea”. In 2004, at the last moment, North Korean women were not able to travel, and a second consultation was held without their presence, also in Toronto. Last year, our efforts ultimately foundered in the increasing tension betwee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s far as I know, since 2001, there have been NO gatherings or exchanges involving

Christian women from North and South Korea.

I stand in solidarity with sisters in Korea and in the Korean diaspora who believe that in order to achieve a true peace in this divided country, women from North and South Korea must have their own space for relationship building. We know that when women's voices are involved, peace agreements are more likely to be reached, and be more stable and enduring. We know that when women participate in peace processes, they think beyond "who wins". Women think about the implications of violence, the effects on families, communities, soci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the economy. Once an agreement is reached, women will be effective at community,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o promote and model reconciliation.

So - what ca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do?

We have an historic commitment to the well-being of the Korean people and a legacy of trust. We want our government to assist in "preparing the table" for a diplomatic peace process, move away from war and increased militarization and towards dialogue with North Korea for authentic human peace and security. In Canada, we have a government that has adopted a "feminist foreign policy" and a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In November 2017, it passed its 2nd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Our Foreign Minister Chrystia Freeland said, *"The path to peace needs empowered women. Where women are included in peace processes, peace is more enduring..."*

And *yet*, although Canada co-hosted the January 2018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date our government has been in lock-step with the American "maximum security" strategy. To the extreme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of Canadians engaged in efforts to promote peace and reconciliation in Korea, there is little daylight between the American and Canadian approaches to North Korea. Canada continues to implement maximum sanctions, with little flexibility even for the handful of humanitarian groups attempting to continue efforts in North Korea. At the request of the Americans, we have

even sent jet fighters to assist in patrolling the DPRK coast to prevent 'sanctions busting'. This is the *opposite* of the strategy we pressed upon our government! We want Canada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American bluster, and seek every opportunity to reduce tension, and promote maximum encounter with North Koreans and between north and south.

We are pressing our government to ease up on restrictions for Canadian humanitarian groups working in North Korea. And whether it is North Korean farmers visiting the Canadian prairies, or North Korean students studying at Canadian universities, Canadians coaching and playing hockey in North Korea, or gatherings of Christian women from North and South Korea hosted in Canada ... we will encourage and enable people-to-people contact and interaction.

The January Vancouver summit on North Korea that Canada co-hosted gave significant support to the Trump administration. We want Canada to demonstrate its commitment to South Korea as well by supporting President Moon's efforts to end the state of war in the peninsula, and begin the process towards a comprehensive peace treaty to replace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e want Canada to assist in preparing the table for global peace talks, and in ensuring women's voices and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We want Canada to live up to its "feminist foreign policy" agenda and make a particular contribution of facilitating the involvement of women's networks and broader civil society in the process towards peace. And that means women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are present at the negotiating table.

I believe that people of faith can make a particular contribution towards peace too. We have perhaps even a particular responsibility. And that's to keep **hope alive** - especially when injustice seems intractable. I'd like to end with a brief story, attributed to Jesus, and recorded in the Bible's "newer Testament", and retold in the book of Luke.

Then Jesus told them a parable about their need to pray always and not lose heart.

He said, "In a certain city there was a judge who neither feared God nor had respect for people. In that city there was a certain widow who kept coming to

him and saying ‘Grant me justice against my opponent.’ For a while he refused; but later he said to himself, “Though I have no fear of God and no respect for anyone, yet because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grant her justice, so that she may not wear me out by continually coming.”

This is a well known story for Christians: about the *persistent* widow and the *unjust* judge. The parable makes clear it was the steadfast determination of widow, not the goodwill or benevolence of the judge that resulted in justice. Jesus’ point is that *persistence* – the unwillingness to give up – can bring forth transformation. Like the widow and the unjust judge. Persistence brings forth transformation.

May our hands be strengthened for the work to come,
May our hearts be fiercely patient,
May our eyes see the promise of justice,
our ears hear the invitation of rest and renewal,
And may our feet dance in the light of God.

Keri Wehlander, *Joy is our Banquet* (1999, United Church of Canada Publishing House)

Round Table 3–Presentation 7)

**Women' s Actions Contributing to Building Sustainable Peace
in North East Asia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Level–The
Militaryization of U.S. Foreign Policies and its “Pivot” to Asia**

Ann Wright
(Veterans for Peace, USA)

I was in the U.S. military for 29 years and retired as a Colonel. I was also a former U.S. diplomat and served in U.S. Embassies in Nicaragua, Grenada, Somalia, Uzbekistan, Kyrgyzstan, Sierra Leone, Micronesia, Afghanistan and Mongolia. However, in March 2003 I resigned from the U.S. government in opposition to the American war on Iraq. Although I resigned primarily over the U.S. war on Iraq, in my letter of resignation, I also wrote of my deep concern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was making no attempt to follow-on with the Clinton administration's efforts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e lack of serious efforts by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to provide a guarantee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the U.S. would not attempt to overthr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led to the expansion of the North Korean program to provide a nuclear deterrent to any U.S. attempt at overthrow. The Obama administration's solution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as to “pivot” much of its military forces from the Middle East to Asia and the Pacific. This “pivot” would address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China's modest increase in its military budget and its construction on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he “pivot” also included attempted construction of a new U.S. military airport and runway on Okinawa and support for a new naval base on Jeju Island, South Korea despite massive grassroots opposition in both places. The “pivot” also included support for the Japanese administration's attempt to do away with the “no war”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to offensive actions.

To counter the rhetoric and actions of successive U.S. administrations, the

Bush, the Obama, and now the Trump administration, women in the United States have joined with women around the world to challenge the militarization of foreign policy at the expense of dialogue and diplomacy. Our challenge in the United States is mobilizing a large enough force to put sufficient pressure on these administrations to use nonviolent strategies to address critical and dangerous situations instead of using the threat of military action, or the conduct of military action, which would result in the deaths of tens of thousand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Organizations such as Women Cross DMZ,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CODEPINK: Women for Peace,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Against Militarism, Women Say NO to NATO and Veterans For Peace provide opportunities for women to travel to conflict areas to see for themselves what is happening, to talk with women and men, policy makers as well as ordinary citizens, in those areas and return to their homes to discuss with their friends, neighbors and Congressional officials about the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region.

Being on a delegation to North Korea in 2015 with Women Cross DMZ, and the intensive preparation for the trip provided me with sufficient knowledge of a place few U.S. citizens have visited to be able to conduct report-backs to groups and to be interviewed on radio and television.

Information gained from trips to Afghanistan, Pakistan and Yemen to talk with families of victims of the horrific U.S. assassin drone strategy resulted in a large campaign that forced the Obama administration to acknowledge details of the use of these drones. Howev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ontinued to kill innocent civilians with assassin drones in five countries.

Trips to Okinawa and Jeju Island have resulted in strong worldwide campaigns to support grassroots activists who oppose further militarization of their lands.

Women-led fact-finding missions to Iran likewise provided us with insights into a country and region that most Americans have little direct contact other than through the media.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recent decision to abrogate the U.S. role in the Joint Comprehensive Nuclear Agreement the role of women to speak out with experience in the region against this dangerous mov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becomes critical.

Providing these insights to U.S. Congressional staffers and directly to members of the U.S. Congress in informal briefings for the Congress and to various United Nations officials during the weeks of discussions during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at the United Nations demonstrate our women's commitment to being forces in the fields of foreig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affairs.

Holding countries to their implementation plan for U.N. resolution 1325 to have women and civil society groups as a part of the negotiations for resolution of conflict is a major aspect of our work to counter militarism and war. The initiative of Women Cross DMZ and the Nobel Women's at the Vancouver, Canada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of the Korean War countries provided high-level access for women-led civil society groups to discussions on the international approach to North Korea.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our planet, women must have a greater role in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risis and we aim to force our individual countries into recognizing the importance and value of over 5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In the North-South Korean summit and the U.S.-North Korean summit, we urge the countries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on its delegations so that the ideas and concerns of women, and particularly women from civil society, are addressed during these critical discussions.

Index

- 1) 2018 Declaration of
International Women Peace
Walk
- 2) Biographies of 2018 Women
Cross DMZ Delegation

2018 Declaration of International Women Peace Walk

We are here today, as Korean women and 30 women security experts, peace activists an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from around the world, to support the Korean Peace Process and to call for women's full inclusion.

Reaffirming the Panmunjeom Declaration of April 27, 2018, we are here at this critical moment in hope that upcoming talks will be successful in leading to peace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For this purpose, we call for the restart of the inter-Korean talks, and for the successful convening of the upcoming US-DPRK Summit.

Towards this goal; we demand the following:

1. No new Korean War, Peace Treaty Now: We call for the official end of the Korean War by replac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This should be the clear goal of the upcoming US-DPRK Summit, and is a necessary first step to move forward.
2. Nuclear-free Korea for a Nuclear-free world: We call for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nd for this to be extended globally to all states, including the nuclear weapon states of the United States, Russia,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China.
3. Women's inclusion for lasting peace: Guarantee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Korean peace process, as stated i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4. Convert the Demilitarized Zone (DMZ) into a truly de-militarized zone of peace, by removing the 1.2 million landmines and the barbed wire fences that separate the Korean people.
5. Expedite civilian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immediat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6. Enforce prohibitions against wartim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all countries and bring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who survived sexual slavery during WWII.
7. Reduce military budgets and redirect funds devoted to the arms race towards improving women's human secur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eace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means that reject violence. We who gathered here today will continue our movement for peace until the threat of war disappears from the earth. We hope that all citizen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all the peace-loving citizens around the world, will join us on the path to create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s a step to building peace and genuine security for Korea and for the world.

May 24, 2018

2018 Women Peace Walk, Women Cross DMZ, and Nobel Women's Initiative

Biographies of 2018 Women Cross DMZ Delegation



#WomenPeaceKorea: A New Era International Women's Delegation to Korea Seoul, May 23-26 2018

DELEGATE BIOS

Mairead Maguire
Nobel Peace Laureate,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

Mairead Maguire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in 1976, with Betty Williams, for her actions to end the political conflict in her native Northern Ireland. Together with journalist Ciaran McKeown they founded Peace People, a movement committed to building a just and peaceful society through nonviolent social action. She travels regularly to Israel and Palestine to work with peace activists in the region, as well as other conflict areas.



Elizabeth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Canada

Liz Bernstein is the founding Director of the Nobel Women's Initiative. Previously, Liz served as Coordinator of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BL) from 1998 through 2004. Liz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since it began in the early 1990s. She lived in Thailand and Cambodia for 10 years (1986-1996), where she worked with local peace and justice advocacy organizations and co-founded the Coalition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In 2005, she coordinated Make Poverty History Canada. Liz currently lives in Ottawa, Canada and is a co-founder of Ecology Ottawa.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USA

Christine Ahn is Founder & International Coordinator of Women Cross DMZ, a global movement of women mobilizing to end the Korean War, reunite families and ensure women's leadership in peace building. She is the co-founder of the Korea Policy Institute, Global Campaign to save Jeju Island, and the National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Christine has organized peace and humanitarian aid delegations to North and South Korea, and has addressed the U.S. Congress, the United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She is a columnist with *Foreign Policy in Focus*, and her writings have appeared in *The New York Times*, *The San Francisco Chronicle*, *The Huffington Post*, and more.



Kozue Akibayashi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Japan

Kozue Akibayashi is the international President o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She is a researcher/activist who has worked on issues of gender and peace, militarism, and demilitarization. She also serves on the steering committee of Women Cross DMZ, and was part of the delegation of 30 international women peacebuilders who crossed th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5. A Professor at Doshisha University (Kyoto) Kozue teaches gender studies, peace studies and peace education.



Mary-Wynne Ashford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anada

Dr. Mary-Wynne Ashford, MD, PhD. is a retired family doctor with a specialty in palliative care. She is a past Co-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and past President of Physicians for Global Survival (Canada). She has been an international speaker and writer on the health consequences of nuclear war since 1985. She led two medical delegations to the DPRK in 1999 and 2000. Her award-winning book, *Enough Blood Shed: 1-1 Solutions to Violence, Terror, and War*, has been translated into Japanese and Korean. She has received the Queen's Medal on two occasions and is an Honorary Citizen of the City of Victoria, Canada.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s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Mavic Cabrera-Balleza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USA**

Ma. Victoria “Mavic” Cabrera-Balleza is the Founder, CEO and International Coordinator of the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GNWP). As a *Women, Peace and Security* expert, Mavic initiated the national action planning process on UN resolution 1325 in her country, Philippines, and has authored several public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PS resolutions. Mavic has supported numerous countries to build and implement their WPS national action plans and is a member of the ‘Global Funding Board of the Women’s Peace and Humanitarian Fund’, a funding mechanism for grassroots women’s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Ann Patterson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

Ann Patterson works to provide counseling and support for families from divided communities. During the peace process in Northern Ireland, Ann worked with imprisoned paramilitaries from both sides, preparing them to enter into peace talks. She co-founded Peace People, a pacifist movement that played a critical role in promoting the Good Friday Agreement and advancing the peace process in Northern Ireland. Ann has since acted as an independent observer in numerous countries in conflict and lives in Northern Ireland.



Medea Benjamin **CODEPINK** **USA**

Medea Benjamin is the co-founder of the women-led peace group CODEPINK and the co-founder of the human rights group Global Exchange. She has been an advocate for social justice for more than 40 years. Described as “one of America’s most committed -- and most effective -- fighters for human rights” by New York Newsday, she was one of 1,000 exemplary women from 140 countries nominated to receive the Nobel Peace Prize on behalf of the millions of women who do the essential work of peace worldwide. She recently published *Inside Iran: The Real History and Politic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s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Aiyoung Choi
Women Cross DMZ
USA

Born in Korea during World War II and raised in Shanghai, Taiwan, and Japan, Aiyoung came to the United States for college and has made New York City her home. Originally a painter and sculptor, she became an entrepreneur, teacher, editor, and also worked in human resources and public relations. She became a consultant to non-profit grassroots organizations in the City, and also served on various boards of directors including Asian Americans for Equality, New York Women's Foundation, and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In 2015 she crossed the demilitarized zone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with Women Cross DMZ and currently serves on its Steering Committee.



Erica Fein
Win Without War
USA

Erica Fein is the Advocacy Director at Win Without War. In this capacity, she engages with policymakers in Congress, the Executive Branch, the NGO community, the media, and grassroots partners to advance the organization's progressive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agenda. Previously, she served as Director of Government Affairs and Nuclear Weapons Policy Director at Women's Action for New Directions, where she led campaigns to limit the excessive US nuclear weapons arsenal. Erica holds an MA from the Josef Korbel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a BA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and has been published and quoted in several media publications.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s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Rebecca Johnso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K

Rebecca Johnson is a feminist peace activist, and an original co-chair of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where she served as president to mobilise civil society and governments to achieve the 2017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Rebecca's campaigning for peace has focused on the banning of unnecessary nuclear weaponry and she has been published widely on security, disarmament and feminist issues. She coordinated Greenpeace's campaign for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set up the Acronym Institute for Disarmament Diplomacy and has campaigned against conflict with multiple organizations. ICAN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in 2017 and Rebecca hopes to share the award with campaigners around the world who work for disarmament, peace and justice.



Shawn Kim
One Heart for Justice
USA

Shawn is the president of One Heart for Justice, a voluntary organization established in 2014 to support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South Korean Sewol ferry accident. Shawn and members of One Heart for Justice are active locally, and are passionate about supporting indigent young adults through food drives and other efforts to help distribute backpacks and Christmas trees. Since then, Shawn (through One Heart for Justice) has been educating Korean Americans and Americans about Korean history, including efforts to help achieve justice for "Comfort Women." Her community-based organization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efforts to call for a Peac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Charlotte Lind

**Operation 1325
Sweden**

Charlotte is a communicator at Operation 1325, which advocates for power to women in peace processes. She is an active voice within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in Sweden, Turkey and the Middle East. Charlotte also operates the project Women Participation Through the Media. She holds a Master's Degree in conflict resolution and mediation from Tel Aviv University.



Olga Maltseva

**Dialogue of Culture /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of Vladivostok (FEFU)
Russia**

Dr. Olga Maltseva is coordinator of the public organization Dialogue of Cultures, which advocates for inter-cultural learning, as well as a member of the Russian Union of Journalists. Dr. Maltseva is interested in Korean unification — interviewing Kim Jong-Il twice in 2002, as well as initiating the international Russian-Korean photo exhibition during Kim Jong-Il's visit to the Russian far east in 2003. Dr. Maltseva is the author of more than 30 scientific articles as well as two books based on her travels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She holds a PhD in Politology and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Media School of Arts and Humanities FEFU.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Guam / USA**

Lisa Linda Natividad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Social Work at the University of Guam and President of the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An Indigenous daughter of Guahan (Guam) she is a leading voice against the United States's militarization of her island and an advocate for the exercise of her people's (Indigenous CHamoru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political decolonization. She joined the 2015 Women Cross DMZ and organized a global women's demilitarization conference on Guahan in 2009 (with International Network of Women Against Militarism). Lisa has advocated for the Guam Commission on Decolonization before multiple high-level UN committees.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s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Kalama Niheu
Ohana Koa-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Hawaii/USA

Dr. Kalamaoka`aina Niheu is a Kanaka Maoli physician from Hawaii and a representative for Hawaii and the Pacific to the United Nations. Born on the frontlines of the Hawaii Independence movement, she has been a community advocate throughout her life, most recently helping to establish the Standing Rock Medic Healer's Council. She is also a main convener for Aha Aloha Aina, a Kanaka initiative for traditional governance, is on the board of Ahahui o Na Kauka (Native Hawaiian Doctor's Association), and is the Kauka (Doctor) for Onipa'a Na Hui Kalo Traditional Kalo Farmers for Food Sovereignty.

Dr. Niheu also works as the Medical Officer on Hokule'a, a traditional Polynesian voyaging canoe.



Margo Okazawa-Rey
Women for Genuine Security
USA

Margo Okazawa-Rey is a Professor at Fielding Graduate University, Professor Emerita at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and holds a doctorate from the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er primary areas of research, activism, and publication have been militarism, armed conflict, and violence against women, examined intersectionally.

Margo was a group worker with Black and Latino boys, a feminist teacher of literacy with women of color in recovery, and a community activist in Boston. She is a founding member of the Combahee River Collective and her lifetime of teaching, activism, and scholarship has been deeply shaped by its work. Margo serves on the International Boards of Du Re Bang in South Korea, PeaceWomen Across the Globe and the Board of Highlander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Katherine Ronderos

LIMPAL COLOMBIA

Colombia

Katherine is the director of 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in Colombia (LIMPAL COLOMBIA), and works for the implementation of UN resolutions 1325 and 1820 with local women victims of armed conflict. A consultant for UNWOMEN in Colombia, she supports the inclusion of women's rights and gender perspectives into peace agreements. Katherine has coordinated the Women's Human Rights Defenders Initiative and consulted for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gender-based killings. Katherine holds a Masters in Development Studies. She has published on gendered violence (Oxford University Press), and directed the latest WILPF Colombia research report on women for disarmament.



Shawk Alani

**Organization for Women's Freedom in Iraq
Iraq / Canada**

Shawk Alani is a feminist activist and the Executive Assistant at the Organization of Women's Freedom in Iraq, which shelters women survivors of gender-based violence in post-invasion Iraq. She is a graduate student at Simon Fraser University writing on personal narrative in Iraqi literature. Her community organizing work has focused on the power of storytelling for immigrant and refugee youth as a tool for social justice. She is the founding member of the Iraqi Narratives Project, which archives oral history interviews about the journeys of Iraqis as they lived through wars, sanctions, dictatorship and the 2003 invasion and occupation to reach their new lives in the diaspora.



Yifat Susskind

MADRE

USA / Israel

Yifat Susskind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MADR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works to advance women's human rights. Yifat has been a leading global advocate for gender justice for more than 20 years. She partners with women's rights activists from Latin America, the Middle East, Asia and Africa to create programs in their communities that meet urgent needs and create lasting solutions. She leads MADRE's work to combine grant making, capacity-building and legal advocacy to secure women's rights, both in policy and in practice. Yifat's writing has appeared in publications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s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such as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Guardian and The Huffington Post.

Patti Talbot **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nada**

Patti Talbot has served as national staff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for 25 years. The United Church of Canada was one of the first ecumenical unions in the world to bring together major Christian denominations into one body. She currently leads the United Church's Global Partnerships team with direct responsibility for partnerships in northeast Asia. Born in Japan of missionary parents who lived and worked among Korean residents, she has a lifelong commitment to a vision of peace with justi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e United Church has a long-lasting commitment to mission, health, education for girls, and leadership development and training in Korea. She lives in Toronto with her husband and their teenage son.



Cindy Wiesner **Grassroots Global Justice** **USA**

Cindy Wiesner is active in U.S. social justice movements and is the National Coordinator of Grassroots Global Justice Alliance (GGJ) as well as a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Climate Justice Alliance. She represents GGJ on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World Social Forum, and advises for the new Liberation Fund. Cindy has organized with HERE Local 2850, People Organizing to Win Employment Rights San Francisco, and generationFIVE. She was the Leadership Development Director of the Miami Workers Center and represented them nationally at the US Social Forum, where she was also co-chair of the national outreach working group. Cindy is originally from Los Angeles and is of Salvadoran, Colombian and German descent and is Queer. She is based in Miami, FL.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s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Altaa Noogsoi
Blue Banner NGO
Mongolia

Altaa is a Professor in th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ublic Administration at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and is a board member at Blue Banner NGO in Mongolia. Blue Banner NGO collaborates with other NGO's and government authorities in exercising public oversight over Mongolia's law banning nuclear weapons — a cause of great interest to Alta. Blue Banner has also organized conferences centering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threats in Northeast Asia.



Ann Wright
Veterans for Peace
USA

Ann served in the US Army and the US Diplomatic Corps. She resigned in 2003 with the rank of colonel in opposition to the US war on Iraq after 13 years of active duty and 16 years in the army reserves. Ann co-founded the Freedom Flotilla Coalition in 2010, which is a grassroots people-to-people solidarity movement composed of campaigns and initiatives from all over the world working together to end the blockade of Gaza. She has co-authored a book "Dissent: Voices of Conscience" which focuses on those who risked their career and safety speaking out against the US invasion of Iraq. Ann crossed the demilitarized zone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with Women Cross DMZ in 2015.



Alice Nderitu
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Kenya

Alice Nderitu is a pioneer in the field of peacebuilding and violence prevention. She has served as Commissioner with the Kenya's National Cohesion and Integration Commission and as a Founding Member of the Uwiano Platform for Peace, which was pivotal in preventing violence during the 2013 Elections in Kenya. She is a Senior Advisor and as Lead Mediator for the 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is widely published as an author and academic and has developed Kenya's only curricular training manual for teachers on the topic of inclusion and conflict prevention. She was named a Woman Peace Maker Of the Year by the Joan B. Kroc Institute for Peace and Justice, was awarded the Global Pluralism Award, and was the recipient of the Jack P. Blaney Award for Dialogue.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s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Deann Borshay Liem
Filmmaker
USA

Deann Borshay Liem is Producer/Director of the Emmy Award-nominated documentary, *First Person Plural*, and the award-winning film, *In the Matter of Cha Jung Hee*, both of which premiered nationally on PBS on the POV series. A Sundance Institute Fellow and recipient of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Fellowship from the San Francisco Film Society, Deann has produced, executive-produced, and consulted on numerous award-winning films. Her film, *Memory of Forgotten War*, was broadcast nationally on PBS stations. In 2015, (with Women Cross DMZ) Deann took a film crew and covered the group's journey from North to South Korea, which is the basis of the work-in-progress documentary, *Crossings*.



Grace Lee
SFU Dialogue Centre
Canada

Grace Lee is the Programs and Events Officer at the Simon Fraser Institute for Dialogue. Grace has a BA in Communication from Simon Fraser University and experience in Digital PR and Corporate Events. She is responsible for project managing special dialogues at the Centre including the Centre's signature programming Jack P. Blaney Award, Bruce and Lis Welch Community Dialogue and the Simons Visiting Chair.



Jacquelyn Wells
Women Cross DMZ
USA

Jacquelyn Wells is the Communications Coordinator at Women Cross DMZ. A Korean American adoptee, Jacquelyn was born in Seoul in 1987 and arrived to the USA at four months of age. She is a Northeastern University graduate, and currently lives in Brooklyn, NY. She started working as a volunteer for Women Cross DMZ in late 2015. In addition to her work with WCDMZ, Jacquelyn is an entrepreneur and owns her own jewelry company, Oohjacuelina. She also is a musician, an Airbnb super host in Boston, MA, and a Registered Yoga Teacher.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s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Jim Choi
Mu Films
USA

Jim Choi is an award-winning director, cinematographer, and sound recordist. He co-directed and shot *Defender* about San Francisco's public defender Jeff Adachi. Jim also directed and filmed *Changing Season*, for which he won Best Documentary Director and *Don't Lose Your Soul*, an intimate profile of Anthony Brown and Mark Izu, founders of the Asian American Jazz Festival. He also served as the Director of Photography on the IFP Gotham Audience Award winning film, *Jake Shimabukuro: Life On Four Strings*, and *Lost and Found: Legacy of USS Lagarto* which garnered an Emmy nomination in the cinematography category.



Margaret (Jade) Sit Tsui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ARENA)
China

Dr SIT, Tsui Margaret Jade is associate 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Rural Reconstruction of China at Southwest University. She is board member of Asian Regional Exchanges for New Alternatives (ARENA), and also coordinator of a development organization, China Social Services and Development Research Centre (CSD). As well, she i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Global University for Sustainability. Her research areas include rural reconstruction, globalization, gender and development, and cultural studies.



Katia Gianneschi
Nobel Women's Initiative
Canada

Katia Gianneschi is a communications specialist i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She provides strategic communications advice and develops and produces tools including communications and campaign strategies, news releases, op-eds, briefing notes and other communication tools. Katia delivers workshops on media relations, strategic communications and key messages. Katia has provided communications expertise to Oxfam Canada, Nobel Women's Initiativ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Make Poverty History and Amnesty International Canada, among others.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Meri Joyc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Japan

Originally from Australia, Meri Joyc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nd Kyoto University with degrees in Politics and Asian Studies. Since 2005, she has been International Coordinator of Japan-based organization Peace Boat. Meri is also Regional Liaison Officer for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in Northeast Asia. In this capacity she coordinates civil society projects for dialogue, peace building, disarmament and peace education in the region. Meri sits on the Steering Committees of the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 building Institute and Women Cross DMZ. Meri is also active as an interpreter and translator.



Margaret Gerhart
Women Cross DMZ
USA

Margaret has worked with Women Cross DMZ since 2016, helping to shape and amplify messaging through various print, digital, and video media. Margaret believes design can bridge disciplines to bring optics and voice to marginalized communities and environments for a more sustainable and just future. She is currently a landscape and urban designer at the international planning firm SWA, where she leads the Los Angeles studio's research for the firm wide think-tank, XL. Margaret holds a BFA in Industrial Design from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a dual Master of Architecture/Master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re, she received the 2016 Anne Fisher Graduate Fellowship for excellence in design and the 2015 AIA Scholarship for leadership.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s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Simone Chun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USA

Dr. Simone Chun received her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and currently teaches at Northeastern University. She has over 20 years of teaching and research experience, including serving as an Associate in Research at the Harvard University Korea Institute. Dr. Chun serves on the Steering Committee for the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and is a member of the Korea Policy Institute and the Korean Peace Network. She regularly contributes to various media outlets and has presented widely on inter-Korean relations. As a researcher and activist, Dr. Chun strives to create meaningful engagements between South Korean activists, scholars and NGOs worldwide.



Kin Chi Lau

Global University for Sustainability China

Kin Chi Lau is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 at Lingnan University in Hong Kong. She i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Board of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a founding member of the Global University for Sustainability, and the vice-president of World Forum for Alternatives. Her areas of interest cover cultural studies, contemporary China studies, and comparative literature as well as critical pedagogy and gender studies. In these areas she has published papers extensively, including co-authoring books and producing documentary films on women for peace in China.



Wang Xuan

Research Centre of Biological Warfare in WW II China

Wang Xuan is the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of Biological Warfare in WW II, as well as the chair of the committee of the NGOs of the Japanese Biological Warfare Victims in China. A graduate of Zhejiang University, Wang also holds an ME from Tsukuba University in Japan. Wang is a leader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for Japanese biological warfare victims. Beginning her fight in 1995, when she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e plague in her village caused by Japanese biological warfare, Wang brought about the first ever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index

confirmation in court of the Japanese army's biological warfare in WW II and the disasters it had wreaked on local people. Wang was one of 81 Chinese women (among 1000 women in the world) nominated for the Nobel Peace Prize.

Christine Ahn, International Coordinator
Women Cross DMZ
christine@womenscrossdmz.org

Liz Bernstein, Executive Director
Nobel Women's Initiative
lbernstein@nobelwomensinitiative.org

MEMO

MEMO